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6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6

지은이 : 경북연구회

옮긴이 : 최범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박승주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외래교수)

윤경애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려옥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찬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발행일 : 2024년 12월 15일

ISBN :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일본 관점의 표현과 용어가 많지만 1차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문의 표현과 용어는 그대로 옮겼다. 이에 해당 표현과 용어 등은 옮긴이의 입장이나 역사 인식과 별개임을 밝힌다. 단 ‘내지, 내지인, 일본해, 일청전쟁, 일러전쟁, 이조시대’ 등은 ‘일본 본토, 일본인, 동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시대’ 등으로 바꾸어 옮겼다.
- 본 자료가 1차 자료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사진과 이미지 등도 최대한 빠짐없이 옮겼다.
- 일본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설명이 필요한 어휘 등은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 원자료의 연도 표기는 모두 일본 연호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서기로 변환해 옮겼다.
- 일본인 인명은 원자료에 성(姓)만 표기된 경우라도 확인이 가능한 인명은 이름을 추가해서 옮겼다. 일본인 이름 발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이름 한자의 음독 발음으로 옮겼다.
- 지명은 한반도 일본인 거주 구역의 일본식 지명이라 하더라도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옮겼고, 일본의 지명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 각종 단위는 원자료 단위를 그대로 옮기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 각주를 달았다. 단, 거리 단위 ‘리(里)’는 일본과 한국의 ‘리’ 단위 차이로 인한 오독을 막기 위해 한국 ‘리’ 단위로 변환해서 옮겼고, 원자료 화폐 단위 ‘圓’은 ‘원’으로 번역했다.

THE KEIHOKU

# 北慶

大正十二年二月十八日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二年二月五日發行(毎月一回五日發行)

慶北第二年第二號

號二第年二第

History without politics has not fruit,  
and politics without history has no  
root. — Seeley —

政治を離れたる歴史は實  
を有せず  
歴史を離れたる政治は根  
を有せぬ (セーレー)

號 月 二

경북

제2년 제2호

History without politics has not fruit, and politics  
without history has not root.

Seeley<sup>1)</sup> -

정치가 없는 역사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역사가 없는 정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실리 -

2월호

경북연구회

---

1) 존 로버트 실리(John Robert Seeley, 1834~1895). 영국의 자유주의 역사학  
자이자 정치 수필가. 영국 제국사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대영제국의 중  
요한 옹호자였고 대영제국의 개념을 장려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저서  
『The Expansion of England』(1883)에 담았다.


新調するなら  
最新スタイル

研究と改良と  
熱心と親切と  
約束の實行と

華客本位の  
大邸府十二間道路

旭洋服店

電話八〇三番  
發信電番アサ



### 아사히 양복점

대구부 12간 도로  
전화 803번  
발신 전신약호 (ア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복을 새로 맞춘다면 최신 스타일로.  
연구와 개량과 노력과 친절과 약속 실행을 가게  
의 방침으로 삼아 단골손님 본위



木村時計本店

營業課目

各種指輪  
眼鏡純裝  
計類眼鏡  
時類眼鏡  
各國雙貴

木村時計店

大邸府上町道廊側  
電話五五五番  
標電九三三番

### 기무라 시계점

대구부 상정 도청 옆  
전화 555번  
대체 계좌 경성 9532번

영업 품목  
각국 시계, 쌍안경 종류, 귀금속 /  
각종 안경, 순금 반지, 장신구

# □ 목 차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6 (1923년 2월 발행)

- ◆ 권두 그림(口繪) : 청송군 주왕산 경치 / 9
- ◆ 권두언 / 16
- ◆ 조선의 산업(상) … 식산국장 니시무라 야스요시(西村保吉) / 17
- ◆ 현행 지방제도와 나의 자각 … 도평의원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 26
- ◆ 조선인 초등교육시설 개정 필요 … 봉화군청 이케자키 요타(池崎鷹太) / 32
- ◆ 도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하) …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 38
- ◆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하) … 스야마 요시오(巢山義雄) / 45
- ◆ 군(郡) 사무감찰 상황(상) … 도속(道屬)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 50
- ◆ 여자체조복에 관하여 … 대구본정소학교(大邱本町小學校) / 55
- ◆ 물의 응변 … 조화생(藻華生) / 57
- ◆ 블라디보스톡 시찰기(앞 호에 이어) … 도미나가 가즈지(富永一二) / 62
- ◆ 시조(한시) / 72
- ◆ 경상북도 산업자문회(2일째 이후) / 78
- ◆ 주왕산 고적보존회 / 93
- ◆ 서임사령 / 98
- ◆ 조선어 장려 시험문제 / 108
- ◆ 조선교육과 문부성령 / 112
- ◆ 통계 강습 개황 / 114
- ◆ 질의응답 / 115
- ◆ 군웅할거의 시대(상) … 니시에 레이겐(西江靈弦) / 117
- ◆ 회보 및 회원명부 / 139
- ◆ 해제 / 152



■ 청송군 주왕산의 경치 ■

◆ 景の山王周郡松青 ◆



(上) 紫霞城址 周王龍城の砌築けるものにして左蓮花峰上に築き上る長一千四百五十尺、今は半ば崩壊せるも往時疑々空に走り雲中に入るの觀あり故に名づくと傳へらる右一角は其門址也(記事参照)  
 (下) 周王窟 周王の庶子大典戦ひの非なるを見て此窟を作り父を匿藏せしめしと遂ひに保たず敵將の爲め生擒せられたりと傳ふ  
 (記事参照)

상) 자하성지(紫霞城址): 주왕(周王)이 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것으로 왼쪽 연화봉(蓮華峰) 위에 길이 1,450척의 성벽이 세워졌다.<sup>2)</sup> 지금은 반쯤 부서졌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을 향해 달려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진다. 오른쪽 한 구석은 그 문의 터이다(관련 기사 참조).

하) 주왕굴(周王窟): 주왕의 서자 대전(大典)이 전투의 형세가 불리해지자 이 굴을 만들어 아버지를 숨기려 했으나 결국 보호하지 못하고 적장에 생포되고 말았다고 전해진다(관련 기사 참조).

2) 주왕산성은 자하성(紫霞城) 또는 주방산성(周房山城)이라고도 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주방산성(周房山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450척이다. 삼면은 하늘이 만든 천험(天險)이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 시무라 조헤이(志村長平) 상점

目 品 業 營

倫敦グリーン會社  
 伊國ボルスリー會社  
 東京帽子株式會社  
 大阪濱谷製帽會社  
 大阪ハグルマ製帽會社


各製帽會社製品特約販賣

◎三都流行男女洋傘

◎毛糸製品ノリヤス類洋服雜貨各種

◎特製學生帽子學生靴各種品揃多少ニ不拘御用命願上候

大邱元町

  
**志村長平商店**

電話 六〇六番  
 編替 四三九番

小地人入用

#### 영업품목

런던 그린(green) 회사<sup>3)</sup>, 런던 배터즈비(Battersby) 회사<sup>4)</sup>, 이탈리아 보살리노(Borsalino) 회사<sup>5)</sup>, 도쿄모자주식회사<sup>6)</sup>, 오사카 하마타니(濱谷) 제모(製帽) 회사<sup>7)</sup>, 오사카 하구루마(ハグルマ) 제모회사<sup>8)</sup> 각 제모 회사 제품 특약 판매

- ◎ 삼도(三都)<sup>9)</sup>유행 남녀양산
- ◎ 털실 제품, 메리야스류, 양복 잡화 각종
- ◎ 특제 학생모자, 학생화, 각종 물품 구비, 수량 관계없이 주문해 주십시오.

어린 일본인 점원 구함  
 대구 원정  
 전화 606번  
 대체 계좌 43189번

朝鮮京城府本町二丁目

**京城電氣株式會社**

電話 本局 六〇〇八番

### 경성 전기 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

조선 경성부(京城府) 본정(本町) 2정목 장(長)전화<sup>10)</sup> 본국 6008번

3) 미상.

4) 1895년에 개업한 영국의 모자 회사로 주로 남성용 중절모를 생산.

5) 1857년에 주세페 보살리노(Giuseppe Borsalino)가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창업한 고급 모자 회사.

6) 1892년, 서양 모자를 일본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창업한 모자 회사.

7) 1894년에 창업한 모자 회사로 해외 수출용 모자도 생산하였다.

8) 미상.

9) 도쿄, 교토, 오사카

10) 장거리전화(長距離電話)를 말하며 보통의 가입 구역 이외에, 아주 먼 구역과 통화하는 전화.



### 김천-춘양(春陽)<sup>11)</sup>

김천에서 춘양 방면			춘양 방면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춘양행	오전 8:00	오후 3:40	춘양 출발	오전 7:30	오후 3:10
예천행	오전 8:00	오후 12:20	예천 출발	오전 8:00	오후 12:30
영주행	오전 9:30	오후 3:40	영주 출발	오전 7:30	오후 1:10
예천행	오후 2:20	오후 6:40	예천 출발	오후 2:30	오후 6:30
상주행	오후 2:20	오후 4:00	상주 출발	오전 8:00	오전 9:40
상주행	오후 4:20	오후 6:00	상주 출발	오후 5:30	오후 7:10

### 김천-문경

김천에서 문경행			문경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문경행	오후 2:20	오후 6:20	문경 출발	오후 7:30	정오 12:00

### 김천-선산

김천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 출발	오후 2:30	오후 4:00	선산 출발	오전 8:00	오전 9:00

### 구미-선산

구미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구미행		
행선지	구미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행	오전 9:00	오전 9:50	선산 출발	오전 11:00	오전 11:50
선산행	오후 4:00	오후 4:50 <sup>#12)</sup>	선산 출발	오후 5:00	오후 5:50

김천에서 춘양, 문경 방면 자동차는 김천역 앞 경북자동차주식회사  
전화 84번, 189번

11) 경상북도 봉화 지역의 옛 지명.

12) 원자료에는 도착 시각이 오후 4:00로 되어 있다. 이는 출발 시각과 동일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오전의 동일 구간 출발 도착 시각을 참고해서 오후 4:50으로 정정해서 옮겼다.

和洋紙類ト  
各種印刷  
現代的文房具ト  
新式事務用品

**伊藤吉商店**

パイロット萬年筆特約店

大邱府大和町大通角  
電話 一 二 三 番  
振替 京城 二七六番

**이토 기치 상점**

대구부 대화정 큰길 모퉁이  
전화 123번  
대체계좌 경성 276번  
일본 종이류, 서양 종이류와 각종 인쇄  
현대적인 문방구와 신식 사무용품  
파이롯트 만년필 특약점

和洋家具  
各種運動具  
製造販賣部

**建築設計部**

官衙、學校、御家庭向キ  
用具ノ設計見積歡迎

工場 大邱府大和町八一番地  
事務所 北内町二三番地

**平澤工務所**

電話 二 一 八 番  
(御照會の節は事務所の方へ)

**히라사와 공무소**

공장 대구부 대화정 81번지  
사무소 북내정 23번지  
전화 218번  
일본, 서양 가구, 각종 운동기구 제조  
판매부  
건축설계부  
관청, 학교, 가정 용구의 설계, 견적 환영  
상담은 사무소로

大邱府東雲町

**大興電氣株式會社**

社長 小倉武之助  
專務 青木重信

電話 四四六二番  
八四八番

**대흥전기주식회사(大興電氣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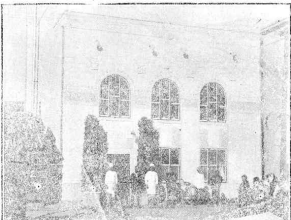
대구부(大邱府) 동운정(東雲町)  
사장 :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전무 :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  
장전화 : 462번  
848번

新築落成開業

おてかるで  
おいしい  
西洋料理!!!

主 高木信二  
**白鶴食堂**  
大邱田町(電話六一六番)

時代の要求  
が生んだ  
最新式の食堂



### 근하신년

하쿠쓰루(白鶴) 식당  
싸고 맛있는 서양요리!!  
주인 다카키 신지(高木信二)  
대구 전정(田町)(전화 616번)  
시대의 요구가 낳은 최신식 식당

寫眞機並二材料一式

大邱東城町一丁目  
**長藤寫眞機店**



燒付現像

### 나가토 사진기점

대구 동성정 1정목  
사진기 및 재료 일습  
소부(燒付) 현상<sup>13)</sup>

大弓具 附屬品一式  
劍道具 柔道具一式  
齒科器械及材料

外ニ文房具、雨具類  
防水布、張雨傘

大邱東城府一丁目  
**牧瀨伊左衛門商店**  
振替東京一〇八三七番

### 마키세 이자에몬 상점

대체계좌 경성 37081번  
활, 검도, 유도 장비 일습  
치과 기계 및 재료  
그 외 문방구, 우비류  
방수포, 종이우산

13) 인화지에 원판 음화(陰畫)를 덧대어 빛을 비추어 명암이 실제와 같이 보이는 사진인 양화(陽畫)를 말한다.

萬表裝屏  
風襖製造

懇切ニ致マス

大邱東城町二丁目四三

長谷川表具店

電話九四八番

表具一式

하세가와 표구점

대구 동성정 2정목 43  
전화 948번  
병풍 표장(表裝)  
방풍 맹장지  
표구 일습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드립니다

朝鮮大邱府錦町一丁目

貿易商會社 光成商店

電話 表五〇六〇、六五〇番  
受電 表五〇六〇、六五〇番

합자회사 미쓰나리 상점(光成商店)

곡물 무역상  
조선 대구부 금정(錦町) 1정목  
장전화 : 550번, 600번, 650번  
시장 특설 장전화 723번  
전신약호(電信略號) : (ミツ) 또는(ミ)  
수신 등록 대구 미쓰나리

## 권두언

대륙의 겨울 추위는 혹독하다. 나는 이 겨울 추위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겨울 추위만큼 온몸에 스며 퍼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겨울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기러기뿐이겠는가? 추위는 강자에게는 긴장이고 약자에게는 위축이다. 긴장은 머지않은 발전의 요인이다. 위축은 결국 고사할 것을 전제한다. 짜디짠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엄혹한 추위도 부패를 막는 데에 가치가 크다. 사람의 마음을 해이해지지 않게 한다는 것에서 추위의 가치를 발견한다. 누가 겨울을 적막하다 하는가? 음력 3월 봄을 기다려 흘러넘칠 듯 발휘될 기운은 이 한겨울 안에 압착(壓搾)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은 우주의 무한한 기운을 품으면서 만유(萬有)를 지배한다. 벌레들이 한가롭게 동면을 즐기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겨울처럼 부패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긴장미가 인간 생활의 존엄함이다. 바로 여기서 강자다운 쾌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나는 겨울을 크게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겨울을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는다.

## 조선의 산업 (상)

식산국장(殖産局長) 니시무라 야스요시(西村保吉)<sup>14)</sup>

이번에 경상북도가 개최한 산업자문회(産業諮問會)는 조선에서 최초의 실험이기도 하고 직무상 관계가 있기도 해서 저도 꼭 회의 모습을 보고자 왔습니다. 오늘은 위원회가 개최 중인데 제 강연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전 지사님이 강연을 꼭 부탁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선의 산업에 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총독부도 산업조사위원회(産業調査委員會)를 개최했고 그 결의에 기초해 총독부의 산업방침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대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의 진행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에 썼습니다. 이 산업자문회는 경상북도 지사가 소집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훈시 같은 것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총독부가 어떤 방침으로 조선의 산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10년의 성적

가장 먼저 조선의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의 산업은 1910년(施政) 이래로 관민의 노력으로 현저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910년 당시

---

14) 1865-1942. 일본 에히메 현(愛媛縣)에서 태어났다. 1903년에 미야기 현(宮城縣) 사무관을 시작으로 여러 현의 사무관과 부장 등을 역임했고, 1917년에 시마네 현(島根縣) 지사에 취임해 산업 10년 계획 등을 세웠다. 1919년 8월에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으로 전임한 후 1924년에 사직했다.

조선의 총생산액은 약 3억 4천만원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7억 9천만원으로 약 18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농업생산액은 1910년 당시 2억 4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4억여 원입니다. 임산물(林産物)은 1910년 당시 약 1천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1천 9백만원이 되었고, 어업은 제조와 생산을 합쳐서 1910년에 8백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약 7천만원까지 상승했으며, 공업 생산품은 3천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2억 6천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광업 생산물(鑛産物)은 1천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2천 5백만원에 달합니다. 전체적인 대세를 말씀드리면 기존 10년간의 성적을 볼 때 6배 진보한 셈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임업의 진보가 늦고 공업생산의 진보가 가장 현저해서 약 9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조선의 산업은 산업 간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체로 점차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산업이 진보했다는 것은 조선만 놓고 보면 현저해 보이지만 일본 본토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현저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18억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작지 않지만 일본 본토와 비교하면 나고야(名古屋)가 10억, 홋카이도(北海道)가 6억이므로 조선 전체 생산액은 겨우 아이치현(愛知縣)과 홋카이도를 합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의 산업은 아직 개척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래 조선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육 시설을 확장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령 교육이 충분히 진보했다고 해도 일반 민중의 경제력이 미약해서 산업상의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쓸데없이 고등유민<sup>15)</sup>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경제력을 향상시켜 견실한 토대를 확고히 하면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조선의 산업 발달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부터 의식(衣食)이 충분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경제생활의 기초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교육이 다소 부족해도 국민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의 기반이 약하고 경제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만 앞서간다면 몇 가지 두려운 상황을 동반합니다. 장래 조선의 영구적 행복을 도모한다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산업의 진보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 근본적으로 교육이나 경찰 문제 등과 달라서 단지 정부가 적당한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방면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충분한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도자 위치에 있고 산업에 대해서는 조성(助成)하는 위치에 있어서 일국의 산업 발달은 실로 일반 국민 전체의 자각에 기초한 근면과 노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더욱이 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천차만별입니다. 산업 그 자체와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관계가 매우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지방산업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도 정부의 계획이나 시설이 국민의 실체에 적합하지 않고 민도(民度)와 적절히 조화하지 않으면 국민은 이에 공감할 수 없고 계획은 결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문에 호응해야 하는 정부 계획이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정한 방향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방침의 대강을 먼저 일반에 분명

---

15) 고등 교육을 받고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

하게 밝히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총독부도 일찍이 조선 전체에서 통용할 산업 정책을 연구했지만 만일 민간의 유식자와 당사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모처럼 진행한 연구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일본 본토와 조선의 유력한 당사자와 전문 학자를 모아 충분한 비평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총독부의 근본 산업방침을 정했고, 이에 기초해 장래 조선의 산업에 적합하고 견지해야 할 하나의 목표를 확립한 것입니다.

## 장래 계획의 개요

그렇다면 총독부가 정한 방침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종다양해서 항목이 46개 항목에 이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농업, 임업, 수산, 공업에 대해 대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토지입니다. 따라서 농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작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경지 면적이 430만 정보(町步)<sup>16)</sup>이고 이 가운데 벼를 경작하는 150만 정보는 대부분 관개와 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호우와 가뭄이 닥치면 곧바로 홍수와 가뭄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조선 농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430만 정보의 기존 경작지 이외에 하천 연안, 간석지(干潟地)<sup>17)</sup>, 산간 경사지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

16) 1정보(町步)는 3,000평에 해당한다.

17)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

토지가 적지 않아서 이것을 이용해 경작 구역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의 농업 발전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 문제는 기존 경지를 개량하고 위험을 제거해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과 경지 확장을 도모하는 것 두 가지가 조선의 농업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조선의 경지를 농가 호수로 나누어보면 1호당 1정(町) 7반보(反步)<sup>18)</sup>가 됩니다. 일본 본토의 1호당 면적인 1정보와 비교하면 약 60%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경지를 개량해서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동시에 미간지를 개간하고자 한다면 조선 농가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지 개량 이외에 소와 같은 가축의 이용, 기계의 보급과 적응도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지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지는 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을 경작할지가 문제인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식량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경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농산물은 국민의 식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식량 문제 가운데 조선에서 중요한 것은 산미(産米) 문제인데 조선의 경작 상황을 보면 경지 154만 정보에서 1반보(反步)당 9두(斗) 6승(升)의 쌀을 생산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1반보당 2석 6승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생산량이 적은 것은 결코 조선의 기후와 풍토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후와 풍토는 일본 본토보다 좋으면 좋았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선의 농업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가뭄과 수해 위험을 제거하는 것, 둘째 경작 재배 개량, 종자 개량, 비료 개량입니다. 이에 더해 진보된 경작 방

---

18) 1반보(反步)는 300평에 해당한다.

법을 활용하면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령 일본 본토와 비슷하게 생산한다고 해도 조선의 경지 150만여 정보에서 3천만석은 어렵지 않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쌀이 이 정도이니 현재 지극히 미미한 수확량을 보여주는 다른 작물의 생산은 장래가 밝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 활용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식량 생산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식량 생산 이외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인데 바로 경제적 작물 생산에 이용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얻는 것과 더불어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작물을 경작하고 해외에 수출해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조선의 공업 발달을 파악해서 공업 원료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공업 원료는 농업 생산물입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에 이용하는 경지 이외의 경지는 주로 이러한 방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농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 농가의 수입은 1년에 3~4백원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5인 가족 농가의 수입이 이렇다고 한다면 생활의 빈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조 대대로 이어지는 관혼상제 등의 비생산적인 관습에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큰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농가의 자치적 계획을 방해하는 무계획적인 부채를 신속히 없애고 하루빨리 수입을 증가시켜 경제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 양잠, 가마니 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부업을 장려해 조금이라도 농가의 수입을 늘려서 농가의 경제 기반을 다져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축산과 양잠 두 가지인데, 양잠 현황은 아시다시피 1910년의 신정(新政) 때보다 많이 증가

해 1만석이던 것이 15만석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잠 호수(戶數)는 농가 총 호수 264만호 가운데 겨우 33~34만호로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1호당 평균 5두(斗)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본토의 나가노현(長野縣)이나 아이치현(愛知縣)은 1개 현의 생산량이 50만석 내지 60만석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조선의 잠업이 얼마나 발달하지 못했는지 증명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방면은 양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잠의 발전을 꾀하려면 먼저 뽕나무밭의 개량과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온전한 종자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본토에서 8~9만 장이 들어오는데 이들 이입(移入) 잠종 가운데는 불완전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 불량 잠종을 막고 우량 잠종을 들여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량한 종자는 사육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를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고치를 유리하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치 건조기(乾繭器) 설비와 집단 사육이 필요합니다. 조선에서는 현재 양잠 지역이라고 할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집약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제사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산자, 제사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집약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해서 지도하고 장려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조선의 상황은 생산한 고치를 대개 생고치 상태에서 팔거나 재래식으로 불완전하게 건조하기 때문에 고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고치 건조기 사용을 보급해서 온전한 고치를 제사업자에게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꼽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축산입니다. 축산은 부업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 조선에서는 대규모 목장이 없

어서 일단은 부업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고 부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현재 축우 숫자는 150만 마리입니다만 도살, 폐사, 이출(移出) 증가로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로 가는 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150만 마리를 조선 전체 경지 430만 정보와 비교하면 한 마리당 3정보가 됩니다. 또한 호수로 나누면 한 호당 한 마리가 안배되지 못합니다. 이용 측면에서 말하자면 조선의 토지는 질소 성분이 매우 부족해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식용 측면의 내실도 기하기 위해 소를 충분히 키워서 배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경(農耕)에서도 기계 동력 이외에 소를 이용해 동력을 늘리는 것도 경작의 진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소는 농가의 자산으로써 금융에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소를 늘리고 개량해서 그 특질을 유지·향상시키면서 조선소의 실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축우 개량과 증가를 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종모우(種牡牛)<sup>19)</sup>의 개량과 증가인데 현재 80마리당 1마리 꼴인 것을 적어도 두 배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의 개량은 종모우의 이상적 체형을 정하고 그에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우(牡牛)의 증가, 세 번째는 사료의 개량과 충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들풀이 있으므로 그 성질을 연구해서 적당한 것의 생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평야 지대에서는 사료 생산을 꾀하는 동시에 비료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 판매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소를 키워서 가능한 비싸게 파는 것과 수요자 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

---

19) 능력이 우수하여 자손생산을 위해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수소.

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수 문제입니다만 오늘날 조선에서 과수의 진보와 증가는 상당한 기세입니다. 이 가운데 밤나무는 재배도 쉽고 피해도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사과(蘋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의 사과는 일본 본토보다 좋은 환경 덕분에 우수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본 본토는 외국산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생산품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 본토 생산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조선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 일본 시장에 활발히 공급하고 나머지는 외국에 수출한다면 막대한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 사과 재배는 적지 않은 수고와 엄밀한 주의가 필요해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바로 병충해가 발생해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과수업자는 공익 차원에서 자신의 것을 망치지 않는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공덕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서운 피해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시장에 팔아서 좋은 결과를 얻자 이에 솔깃해 곧바로 확장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해충 구제와 시비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장래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완결)



## 현행 지방제도와 나의 자각

도평의회원(道評議會員)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sup>20)</sup>

나는 ‘현행 지방제도와 나의 자각’에 대해 제군과 함께 잠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군의 감상도 듣고 이후 시대 상황의 진행에 따른 우리의 정치 지식 향상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미 1910년의 신정(新政)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산업, 교육, 교통, 기타 제반 시설은 매년 현저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 민중은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입고 행복은 점차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반 제도와 사회 질서가 점차 정비되고 안녕을 유지하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몇 배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성대(聖代)의 은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군과 함께 물질적 일상생활에서는 부자유를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즉 물질상의 행복을 향유하면서 생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생활은 단지 ‘물질(物)’을 획득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만인은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서 적의 수급(首級)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삼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법률도 없고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사회

---

20) 오이타현 오이타시 출생. 1897년 무렵부터 상업에 종사하며 1904년 5월에 대구로 건너와 무역과 담배 제조업을 시작으로 점차 대구 지역 신문 발행에 관여했다. 대구로 이주한 일본인 중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1907년 『대구일일신문』 후원을 시작으로 1909년 『대구신문』 사장, 1913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민보』 사장을 역임했다. 1910년에 『경북요람』을 집필하고 1930년에 『대구물어』를 저술했다.

조직 기관도 없어서 강한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문명국에는 체계적인 법률 질서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고 확고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서 국정을 논의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명국 사람은 물질상 아무 부자유가 없이 취미를 누리며 정신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500백 년의 정치는 전제적 관료 정치였고 문벌을 중심으로 한 세습 관리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적 관료 정치란 국가를 관리의 것처럼 여기고 민중을 하인, 즉 노예처럼 다루면서 무슨 일이든 인민이 제기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리가 마음대로 정치 방침을 정해 가렴주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와 제도 아래서 사는 국민은 결국 영양부족으로 야위어 버립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초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처럼 난폭한 제도 밑에서 오랫동안 학대 받은 민중은 그야말로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가는 재산을 감추지 않으면 관의 징발(徵發)을 당합니다. 수도에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인민에게 불법으로 물품을 요구하고, 국민은 이 때문에 고달파지고 피폐해 집니다. 게다가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그 불법과 포학(暴虐)을 호소하려고 해도 천하에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통치자와 관리는 국가가 관리의 것이고 민중은 국가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반 제도와 법률은 모두 관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게 이롭게 제정하고 개폐(改廢)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관료적 전제정치라고 합니다.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 정치가 시작되면서 한때는 치안유지 때

문에 ‘무단정치’라든가 ‘사벨(sabel) 정치’<sup>21)</sup>라든가 ‘입헌적이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시 우리도 불평이 상당히 많았고 데라우치 총독(寺內總督)<sup>22)</sup>의 무단적 방식에 은근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의 제반 질서가 정비되고 제도가 점차 혁신되면서 현재의 사이토 총독(齊藤總督)<sup>23)</sup> 때가 되어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펼쳐 민중의 권위, 즉 일반 인민의 힘에 띄게 강해지고 또 승인받으면서 마침내 일본 본토와 동일한 지방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현행 지방제도가 재작년에 개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도(道)에 도평의회(道評議會)를 설치하고, 부·면(府面)에 협의회(協議會)를 만들었으며, 학교 경리를 위해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를 설치했습니다. 즉 도는 지방비 지변 사업에 관해서는 도평의회에 그 가부(可否)를 자문하고, 부·면은 부·면민 자치에 속하는 사업에 관해 각각 부면 협의회(協議會)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 관리가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선(官選) 혹은 민선(民選) 의원을 선출해서 권한이 있는 대의기관으로 인정하고 도와 부면의 공적인

21)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지칭한다. 헌병경찰제도에 입각해 서양식 검인 사벨을 찬 헌병경찰이 치안유지 명목으로 전면에 나선 상황, 교사들 조차 검을 차기도 했던 당시 상황을 가리킨다.

22)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 야마구치 현(山口縣)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1898년에 초대 교육 총감에 임명되었고, 1901년에는 일본 내각 육군상이 되었으며, 1910년에는 제3대 조선통감을 역임했다. 이때 한일합방을 성사시키고 초대 조선총독이 되었고 1916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른바 무단통치를 시행했으며, 1916년에 일본 총리대신이 된 이후에는 시베리아 전쟁을 진행하며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23)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1858-1936). 이와테 현(岩手縣)에서 태어났다. 1877년 해군병학교를 졸업했고, 1906년에 해군대선에 취임했으며, 1912년 해군대장으로 승진했다. 1919년에 3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되어 1927년까지 재임했고, 이어서 1929년에 5대 조선총독으로 다시 임명되어 1931년까지 재임했다. 일반적으로 1910년대의 무단통치와 다른 ‘문화통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이야기된다.

사업에 관해 관리가 민간 대표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 인민, 즉 일반 민중으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로서 자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릇 정치는 민중을 위한 정치이고, 관리는 그 정무를 맡는 기관(機關)입니다. 국가는 민중의 국가이지 통치자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중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합니다. 민중이 없는 국가가 존재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이 점을 인정한다면 민중의 국가인 국가의 정치는 우리 민중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자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것이 ‘자치’라는 정치 제도가 각 문명국에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일본에는 최고의 민중 대의기관으로서 제국의회(帝國議會)가 있습니다. 부·현·군·시·정·촌제(府縣郡市町村制) 제도가 만들어져 일본의 모든 정치는 모두 민중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은 성년 이상의 성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sup>24)</sup> 사람들이 대개 무엇에 가장 불쾌해하는지 생각해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만큼 불쾌한 일은 없습니다. 관리가 전적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에는 천하는 관리들의 천하였고 민중의 천하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의 감정을 거스르면 옛날에는 감옥에 투옥되고 일가 친족이 모두 비참한 상

---

24) 정확히는 1923년 시점에 일본의 성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인 남성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일본은 근대 이후 선거에 입각한 의회 정치를 1890년에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국민의 약 0.1% 정도에만 해당하는 성인 고액납세자 남성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었다. 1900년 시점에 유권자는 76만명이었고 이후 러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납세 기준액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1908년 시점에 158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이 당시 일본 총인구는 약 5천만명이었다. 일본에서 성인 남성 전체로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은 1926년의 보통선거법 입법 이후이고, 성인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1945년 패전 이후이다.

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는 재산도 가치가 없고, 나 자신이라는 소중한 한 인간도 모두 토우(土偶)처럼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즉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관리에게 구속되고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처럼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는 자주와 자유의 몸입니다.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정치는 우리 민중이 합니다. 현재 지방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가 높다든가 지방에 대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관리만 꾸짖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국가는 우리가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가(一家)의 경제를 유지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우리 민중의 대표자가 도, 부, 면의 평의원 또는 협의회원이 되어 담당 관리와 함께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진보한 제도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옛날을 되돌아보면 감개무량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선각자 제군은 특히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큰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 '현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낡은 관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치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인민의 권리와 의무가 지니는 진정한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제멋대로입니다. 아직 많은 일반인이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감입니다. 정치상의 자유와 개방은 요구하면서도 운용 방법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국민의 훈련이 부족해서 일본처럼 완전한 자치 제도를 조선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매우 유감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똑같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자치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치에 우리 대표자가 나서게 됩니다. 현재 제도는 절반 정도는 자치의 형식을 갖

추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지금과 같은 관리의 정치 제도를 타파하고 우리 민중의 정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상의 자치와 자유는 문명국 사람의 공통된 특권입니다. 정치에 자유가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하루라도 빨리 현행 제도를 개선해 민중의 권리가 더욱 신장하도록 정치적 이해를 함께 진전시키고 싶습니다.  
(1922년 12월 4일, 군위군 강연의 대강)

# 조선인 초등교육시설 개정 필요

봉화군청 이케자키 요타(池崎鷹太)

## 1. 향학심<sup>25)</sup>의 발흥

최근 조선에서 일반 민중의 향학열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 인심이 선량해지는 혁신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현저하게 높아졌다. 1914년~1915년까지 보통학교 입학자 모집 시 지방 경찰 관헌의 손을 빌려 반강제로 입학을 시켰던 상황을 회상하면 실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이제 각지 3면(面) 1교(校)의 보통학교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도 입학 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총독부 당국자가 1면 1교 제도의 계획을 고려하게 만들 정도이다.

작년도 각 공립 보통학교<sup>26)</sup>의 입학 지망자 상황을 실제로 보면, 일부 학교는 모집 정원의 열 배를 초과했고, 벽지(僻地)<sup>27)</sup>의 학교에서도 몇 배를 넘는 상황이었다. 가령 1면 1교 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모든 희망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학심의 발흥은 한 시대의 추이에 따른 민중의 굳건한 자각과 교육에 대한 선량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총독 정치의 교육 보급 장려의 효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향학열의 발흥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공립 보통학교의 증설을 도모하거나 부속 학교 및 2부(二部) 수업을 실시하는

---

25) 배움에 뜻을 두어 그 길로 나아가려는 열의.

26) 1906년 통감부가 <보통학교령>에 따라 소학교(小學校)를 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이때 교육 목적에 '선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7) 원문에는 '避地'로 적혀있으며 오기로 보인다.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희망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작년 이래 각지에 설립된 사설 교육<sup>28)</sup> 기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명백하다. 이하 나는 이에 대한 소신을 서술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시체를 해부하기 전에 먼저 오른손의 메스를 점검하는 것처럼, 나도 글을 쓰기 전에 펜에 적극적으로 숨통을 불어 넣어야 한다. 비록 나는 본래 교육 시설에 대해 확고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적으로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근 지방에서의 향학심 발흥으로 보통학교난에 대한 절실한 요청을 듣고 약간의 소신을 기술하여 당국자의 검토 자료가 되도록 나선 것이다.

## 2. 보통학교 시설 개정의 필요.

조선의 초등교육 기관인 공립 보통학교의 운영 연혁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시대부터 여러 변천을 거쳐 오늘날 완전한 학교 제정의 제도를 정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기술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곧바로 보통학교 시설의 현황 보다는 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교육은 국민의 의무인 이상, 조선에서도 임의 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다. 특히 자진하여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전원을 취학하도록 하고 동시에 더욱 국민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문화 정치의 본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통학교 시설 운영에 근거하여 학교의 수입을 검토할 때, 실로 2면 1교의 비용에도

---

28) 1922년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표면적으로 완화되었고, 사립학교는 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서당, 사숙, 야학, 강습소 등 기존의 토착 교육 기관들이 사립학교로 전환되기도 했다.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각지 어떠한 벽지에서도 공립 보통 학교 교사(校舍)는 모두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거나 훌륭한 반 서양식 목조 구조로 건축되고 있다. 이 경비는 적어도 첫해에는 20,000원의 임시비가 필요하고 교사 전체를 완성하기까지는 약 30,000원의 건축비가 투입된다. 또한 매년 한 학급당 1,600원의 경상비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보통학교 교사의 증축과 개축에만 매년 500,000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신설 학교의 건축비를 합하면 실로 750,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 사업은 본래 백년대계에 속하며 교사 외 설비 같은 것도 오늘날과 같이 훌륭하게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왕년에 서당의 온돌방에서 불완전한 교육을 받던 자가 갑자기 서양식 건물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그들 아동 및 부모의 생활 상태와 너무나도 대조되어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조선의 초등교육은 여전히 과도기여서 교육 내용의 충실한 개선, 교사(校舍) 및 설비의 완전을 기하기에 앞서 먼저 많은 미취학 아동을 취학시킴으로써 초등교육의 보급을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믿는다. 또한 나는 여기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교육의 내실 있는 발달은 교사와 그 밖의 설비 여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직 보급의 단계에 있어 수입 재원이 빈약한 오늘날의 초등교육 시설에서는 과감히 세출(歲出)의 절감을 도모하고 교사는 수용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만 개축한다. 현재 평(平)당 백삼십 원의 건축 비용을 칠십 원 정도로 줄이고 한 학급당 경상비 천육백 원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한다. 수업의 개선에 대해서는 시학제도(視學制度)<sup>29)</sup>의 확장을 도모한다고

---

29) 넓은 의미에서는 근대국가 교육행정의 지도감독 제도이지만, 본 장에서는 전

하면 많은 경비를 절약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세출 절감 방침을 과감히 취하는 한편 세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일본에서 소학교<sup>30)</sup> 교육비에 대한 한 호당 부담액은 약 십팔 원인 반면 조선에서는 이십일 원이다. 그러나 조선인의 학교비 부담액에 대한 한 호당 평균은 이 원 오십 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조선의 현재를 감안하여 이 원 오십 전의 교육비 부담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설학술강습회(私說學術講習會)에서 입학금 삼 원을 받고 매월 수업료로 일 원 오십 전을 징수하면서 다수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당에서 한 사람당 부담액이 연간 십여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학교비 부담액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은 가혹한 부과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상으로 기술한 것처럼 세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세출의 절감을 실행하며, 교육 및 교육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시설을 운영한다면 바로 1면 1교 제도를 실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점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3. 실행책

내가 여기에 기술하려는 실행안은 그 개요에 그치는 것으로 요점은 향학심의 발흥을 감안해 다수 지식인들이 요구하는 1면 1교의 실시안이라는 초등교육의 보급 방안이다. 이상적으로는 현

---

쟁 전 일본제국의 제도를 다룬다.

30) 소학교는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이다. 1096년에 보통학교로 개편되었고 조선인 학교를 보통학교, 일본인 학교를 소학교로 구별하였다.

재의 군(郡) 단위 학교비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운영을 면(面)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이는 제도 개편에 속하는 것이기에 이를 배제하고 우리는 현재의 제도에서 곧바로 실행 가능한 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술하기에 앞서 작년부터 속출하는 사설 학술 강습회의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사설 학술 강습회는 공립 보통학교와 견줄 만큼 많으며 그 대부분은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자를 수용하여 단기에 보통학교의 교과 과정을 가르친다. 모두 고액의 월사금을 징수하면서 실로 불완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국의 정책도 완전한 감독과 지도가 미치지 못한 채로 머무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초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을 단지 설립 시에 인가제를 취하는 것에 그치고, 불완전한 사설 기관이 초등교육을 맡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위정자로서는 진지하게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나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조선 전통의 서당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바로 1면 1교의 실행안에 들어가겠다.

지금 가령 학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4학급(學級) 편성의 공립 보통학교를 4개년에 완성시키기로 하고 각 연도의 경비를 내가 산출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자면 초년도는 건축비 6,520원, 경상비 한 학급 1,960원, 2차년도에는 경상비 두 학급 2,560원이 되며, 3년도에는 건축비 3,500원, 경상비 세 학급 3,600원, 4차년도에는 경상비 네 학급 4,200원으로 총 22,340원이 되며, 일 년 평균 5,585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변 재원으로서는 학교 수업료 3,300원(초년도는 60명, 한 사람당 1원 50전을 11개월분, 이하 완성 연도까지), 보조금 2,000원(1개년 평균 500원, 소학교 보조 규정에 준하여 보통학교에 응당한 보조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 최소 금액을 계상하였다.), 부과금 17,040원(4개년)으로 계산하여 총 22,340원이 된다. 한 면 당 평균 부과 호수를 1,100호로 했을 때 연간 한 호수당 평균 약 4원이 되며, 여기에 각종 경비를 추가해도 4원 50~60전 정도의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산출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사치스러운 시설 방침을 취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조정하면 1면 1교 실시상 재원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 4. 결론

위에서 기술한 바는 어디까지나 초등교육 보급이 급선무라고 외치는 나 같은 비전문가의 거침없는 고찰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산업의 발달과 교육의 진흥은 두 가지 모두 국가의 큰 목표로 여겨진다. 특히 문화가 아직 충분히 개화되지 않은 조선의 개발에 있어서는 산업과 기타 시설에 앞서 먼저 초등교육의 완전한 보급이 급무라고 믿는 바이다. 한편 이 실제 상황을 되돌아볼 때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다행히 최근 향학열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매년 취학난을 애절히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1면 1교 제도의 시행을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완결)

## 도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하)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 3. 교육

(1) 대구공립농업학교-농업상 필요한 학술 및 기능을 전수하기 위해 대구에 설치하여 생도를 도내에서 모집한다. 현재 교유<sup>31)</sup> 10명, 서기 1명 고원<sup>32)</sup> 1명이 있다.

(2) 상주공립농잠학교-농업 및 잠업 상 필요한 학술 및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상주에 설치하여 생도를 도내에서 모집한다. 현재 교유 4명, 서기 1명, 고원 1명이 있다.

(3) 교원사회 교화 강습회-사회 진운(進運)<sup>33)</sup>의 추세에 따라 일반 사회의 풍조에 대한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 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우수 교원 80명에게 단기 강습을 시킨다.

(4) 교원강습회-오로지 학력 보충을 목적으로 우수 부(副) 훈도 40명에게 단기강습을 시킨다.

(5) 교원 체조강습회-아동 체육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 100명에게 체조 강습회를 시킨다.

(6) 교원양성 강습회-1개년 예정으로 조선인 부 훈도 60명을 양성하여 교원의 충실을 기하고자 강습을 하고 있다.

(7) 학사 시찰-일본인과 조선인 교원 42명에게 내지를 시찰시킨다.

---

31) 일제 강점기에 정식 자격을 가진 중등학교의 교원을 이르던 말.

32) 관청에서 사무를 돕기 위하여 두는 임시 직원.

33) 진보할 기세나 기운.

(8) 대구공립농업학교 이전(移轉) 건축-기존 건물은 대부분 노후하고 협애(狹隘)<sup>34</sup>한데다 기존 위치가 시가지에 위치하여 교육상 지장이 적지 않아 소요 경비를 계상하여 적합한 토지를 찾아 이전 건축하기로 했다.

(9) 상주공립 농잠학교 건축-작년에 본관과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건물을 신축했는데 올해는 이에 필요한 부속 교사(敎舍) 및 교원 주택을 건축한 필요가 있어서 소요 경비를 지출하여 목하 공사 중에 있다.

(10) 대구공립상업학교 건축-대구에 상업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년부터 개교할 목적 하에 소요 경비를 지출하여 이를 건축하기로 되어 있다.

(11) 공립보통학교 보조-관내 공립보통학교의 재원이 부족한데 대해 특별경비로 국고에서 지방비에 대한 보조금에 증액해서 보조했다.

(12) 공립소학교 보조-공립소학교는 경비가 적어서 교원 봉급과 기타 설비비는 국고에서 직접 보조가 있으나 재원이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조를 하고 있다.

(13) 고등여학교 보조-대구학교조합 설립에 관련된 고등여학교 교원 봉급, 여비, 기타 잡비 등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14) 각종학교 보조-사립대구보조야학교, 사립대구여자야학교에 대해 교원봉급의 일부, 기타 잡비를 보조하고 있다.

(15) 국어강습회 보조-국어 보급을 신속하게 하고자 공립보통학교에서 국어강습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16) 교육회 보조-경북교육회 사업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

34) 지세(地勢)가 좁고 험(險)함.

#### 4. 위생

(1) 종두-종두인허원(種痘認許員)<sup>35)</sup>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인민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봄가을 두 차례 및 임시로 종두 접종을 한다.

(2) 도수(屠獸)검사-도축 검사원에게 도수 검사를 시키고 이에 필요한 여비 및 검사용구 등을 마련했다.

(3) 전염병 예방-전염병 예방령에 의거한 교통차단 및 격리에 관한 각종 경비, 교통차단 및 격리에 따른 실업자 생활비, 해당 부면(府面)이외에 거주하는 빈민 환자, 사망자(전염병)에 관한 각종 경비를 지출한다.

(4) 위생순회 전람회-위생사상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순회전람회를 각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운반비 등을 지출한다.

(5) 음용수 검사-임시 조수를 두고 오로지 관내의 음용수를 검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6) 보호조사-임시 조수를 두고 학교 아동에 대한 기생충병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방지 방법을 강구시키고자 한다.

(7) 김천병원의 설치-올해 소요건물 부지 등을 김천군 유지가 기부하기로 해서 김천군에 독립병원을 설립하여 원장 이하 의원 4명, 약제사 2명, 서기 1명, 간호부 4명을 두고 일반 환자 진찰에 종사시키기로 했다.

(8) 위생보조-공의(公醫)를 배치하지 않은 곳에 의사 및 율령

---

35) 1895(고종 32)년 10월 7일에 제정된 종두규칙(種痘規則)에 의하여 규정된 종두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우두의사(牛痘醫師)이다. 대한제국 시대(大韓帝國時代)에는 종두의양성소(種痘醫養成所)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종두인허원이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와서는 조선총독부의 감독(監督)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도에 산파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사 1명, 산파 1명에게 지방비에서 보조하고 대구시가지 청결 및 부면(府面)에 공동 우물 굴착, 격리병동 설비와 전염병 예방비 등에 보조한다.

## 5. 사회사업

(1) 사회교화-촉탁 2명, 고원 3명을 두어 신정(新政)의 취지를 선전하고 일본 문화를 소개하여 지방민심을 지도하고 이끄는 데 쓰고 있다.

(2) 구휼-행려병자 대응비를 지출하고 있다.

(3) 제중원 구료(救療)<sup>36)</sup>보조-도내 나환자를 수용, 양육하는 것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4) 경북 고아 구제 보조-도내 조선인 고아를 수용, 양육하는 것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5) 면 직원<sup>37)</sup> 일본시찰보조-우수한 면 직원 25명을 선발하여 일본 시찰과 견학을 시키기 위해 경비를 보조한다.

(6) 의생(醫生) 일본시찰 보조-우수한 의생 3명을 선발하여 일본 의술을 시찰 견학을 시키기 위해 경비를 보조한다.

(7) 경북연구회 보조-조선의 시정 방침 및 경상북도의 지방행정 및 제반 상황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잡지 경북(월간)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8) 경주고적보존회 보조-경주의 고적 보존, 유물 보존 및 모집,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반 계획 및 설비 등을 하고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36)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병자(病者)를 구원하여 무료로 치료해 줌.

37) 원문에서는 이원(吏員)으로 되어 있다. 이원은 당시 지방의 관공서의 하급직원을 의미한다.

## 6. 기타

도(道)지방령에 의거한 도평의회에 필요한 비용 및 지방세의 징수, 금고 수당, 출납 제 경비 및 법령에 의거한 징병여비의 일시 전용 지급, 지방비 직원의 퇴직과 사망 급여금, 조선어 장려 수당 등을 계상하고 있다.

### 임시 은사금 사업

#### 1) 수산(授産)

(1) 농업기술원 설치-농업기수 또는 기수보 25명을 두고 도(道)에 2명, 군(郡)과 울릉도에 1명씩을 배치하여 일반 농업의 지도 장려에 종사시킨다. 단 대구부의 일반농업 지도 장려는 달성군에 근무하는 농업기수에게 시킨다.

(2) 잠업기술원 설치-잠업기수 또는 기수보 24명을 두고 도에 1명, 각 군과 울릉도에 1명씩을 배치하여 일반 잠업의 지도 장려에 종사시킨다.

(3) 제지기술원의 설치-제지기수 또는 기수보 7명을 두고 도에 기수 2명, 경주, 영덕, 경산, 김천 및 영일의 각 군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일반 재래종이 뜨는 법(抄漉法)의 개량과 현장 지도를 시킨다. 단 기술원 배치 이외의 제지 생산군의 현장 지도는 도에 근무하는 기수에게 시킨다.

(4) 원잠종제조소 설치-대구부에 원잠종제조소를 설치하여 기사(겸무) 1명, 기수 4명을 두고 원잠종을 제조하여 잠종제조자에게 유상 배부한다. 또 필요에 따라 잠종 제조방법에 관한 전습을 한다.

(5) 수답 채종답 보조-면 채종답 원종에 이바지하도록 대구부

(府) 및 각 군에 설치하여 경영자에게 비료 값 및 설비비를 보조한다.

(6) 밭 작품 채종전 보조-각 부군도(府郡島)에 설치하여 경영자에게 비료 값 및 설비비를 보조한다.

(7) 공동 채종답 보조-대구부 및 각 면에 공동 채종답을 설치, 경영하게 하여 비료 값 및 설비비를 보조한다.

(8) 제지업 보조-제지업자로 개량기구를 구입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구입비 또는 설비비로 보조한다.

## 2) 교육

매년 임시 은사금 이자의 1.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립보통 학교비 경비에 충당시키기 위해 학교비에 보조하고 있다.

## 3) 흉경<sup>38)</sup> 구제

매년 임시 은사금 이자의 0.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가뭄, 수해, 기타 비상 재해를 당한 자에게 각각 보조하고 잉여가 생겼을 때는 기금에 편입시키고 있다.

## 4) 사회구제

(1) 빈민 환자의 구료-빈민으로 신진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창이(瘡痍)<sup>39)</sup>를 고치기 위해 부군도(府郡島)의 공의 또는 경찰 의무 촉탁을 위촉하고 부군도(府郡島) 경찰관리 또는 면장에게 치료권을 발행하여 이에 따라 구료를 하고 실비를 지변한다.

---

38) 곡식 농사가 잘 안되어 농사가 결단남.

39) 종기와 상처.

(2) 육아 사업 보조-달성군 해안면 조선 부식농원이 도내 고아를 수용하여 양육하는 것에 대해 경비를 보조하고 사업 조성에 힘쓰고 있다.(완결)

##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하)

스야마 요시오(巢山義雄)

산림평야 및 기타 국유 미개간지를 정리하여 경지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도로, 도랑, 제방 등을 신설, 변경, 폐치(廢置)하여 경지를 늘이는 것에 대해 생각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경지가 의외로 크다. 일찍이 내가 일본 경지정리 분야에 있었을 때 조사해 본 경험으로 지구(地區) 총면적에 대해 약 1할, 심한 경우 2할 이상이나 경지가 증가한 일이 있었다. 말로서 2할이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정보를 정리해서 20정보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니 굉장하다. 현재 20정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반(反)<sup>40)</sup> 가격이 150원이라 해도 거의 3만 원이다. 일본처럼 1반에 천 원이나 하는 곳에서 20정보를 마을에서 심는다면 대단한 일이다. 마을 사람이 기뻐서 3일 밤낮으로 미친 듯 춤출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경지정리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지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개간지, 개척지처럼 종래 도로, 도랑도 없던 곳이나, 극히 적은 곳에 다수의 수리(水利) 교통 기관을 완비하면 자연히 경지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경지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리 전에는 거의 불모지이거나 극히 작은 이익만 있었던 토지이므로 정리한 결과 얻는 이익으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잉여 이익은 보통 공사비의 몇 배로 계산한다.

---

40) 논밭이나 산림의 면적 단위로 1反은 300보(步), 1정(町)의 1/10이다.

도로, 도랑 등의 변경, 폐치로 인해 경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야겠다. 설사 경지정리를 했다고 해서 토지가 늘거나 줄지는 않는데, 경지 면적의 증감을 초래한다고 하면 순간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일 관청에 다니는데 여태껏 구불구불한 길을 다녔다고 치자. 그런데 이번에 그 곡선도로를 직접 개조해 버렸다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같지만 관청에 도착하는 시간은 빨라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꿔 말하면 거리가 그만큼 단축된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말하면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직선 외에 가까운 선은 없으니까. 만약 이 거리에다가 폭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개조 전보다도 개조 후의 도로 붕괴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즉 경지 면적에서 도로, 도랑 등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직선 식으로 고친다는 말은 위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경지 면적을 늘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지정리를 해서 경지 면적이 늘거나 혹은 줄어든 경우 지조(地租)(조선에서는 지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지정리를 했다면 이동된 토지에 대해 귀찮은 절차가 필요한데, 새롭게 경지를 얻은 경우는 지가를 설정해야 한다(지조 산출 기초는 모두 지가를 표준으로 삼으니 이하 지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즉, 지가 증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경지정리법에 의해 시행한 경우는 굉장한 은전(恩典)이 부여된다. 즉, 국유 도로, 도랑, 제방 등을 정리하여 경지를 얻은 경우는 새롭게 지가가 붙지 않고 이를 경지 총면적에 넣어 다른 경지의 지가 일부가 해당 토지에 배부된다. 바꿔 말하면 정리하기 전의 지가총액은 정리 후, 1필마다 상응하여 배부되는 것이므로 경지가 늘어도 지가는 여전히 증액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와 반대로 경지가 줄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때는 평균 지가를 그 줄어드는 면적에 곱한 금액만 지구 내 총 지가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한 금액을 나머지 경지 1필마다 상응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조 금액은 줄어드는 것이다. 즉 부담이 경감된다. 이 경우는 경지가 줄어드니 정리해서 손해를 보는 듯 하나, 한편으로는 굉장한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결코 손해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대다수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시행하기 위해 국유 도로, 제방, 도랑, 습지 모두 혹은 일부를 없애서 필요 없게 된 토지는 무상으로 정리 시행한 땅의 소유자에게 교부된다.

다음으로 은전은 총면적 1/5 이상의 지목(地目) 변환, 개간 등을 했을 경우 그 1/5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 지가 거치 기간을 연장 받는 것이다. 지조 조례에 의하면 지목 변환은 바로 지가 수정이 필요하지만, 경지정리의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해로부터 6년간 경지정리 지가 거치 기간이 허가된다. 만약 개간에 노력과 비용을 들인 지목 변환의 경우는 개간으로 간주되어 공사가 착수된 해로부터 40년간 지가 거치 기간이 허가된다. 개간도 물론 마찬가지다. 만약 경지정리로 인한 국유 삼림, 평야 혹은 황무지 개척으로 인한 제1류지 즉 전답과 택지(조선에서는 답畚, 전田, 대塿)의 경우, 또는 국유 수면(水面)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민유지(民有地)로 한 경우는 그 매립지와 간척지에 대해 60년,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내의 경지정리 신개(新開) 면조(免租) 기간이 허가된다. 만약 그 기한이 되더라도 토질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다시 10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허락된다. 여태까지는 이 지가 거치 기간도 신개 면조 기간 몇 년 이내라는 막연한 어구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세무서가 자유재량이 가능해서

안 좋은 폐해가 따른다고 하여 경지정리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몇 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물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지조 조례도 개정되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큰 은전이라 할 수 있다.

이익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이즈음에서 은전론을 마무리하고 이야기 순서가 달라지지만, 마지막으로 경지정리 시행에 관한 조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 싶다. 경지정리법에 의한 시행자 조직에는 세 종류가 있다. 즉, 1인 시행과 공동 시행 그리고 조합이다. 먼저 1인 시행이란 글자 그대로 토지소유자 한 명이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 시행이란 두 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지정리 조합은 몇 명 이상이라는 제한은 없으나 요컨대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지정리는 법인이며 강력한 강제력이 주어져 있다. 공동 시행은 토지소유자가 전원 동의하여 성립되므로 두세 명 정도 되는 소인원의 경우는 아주 편리하지만, 다수의 경우는 경지정리조합에 의거하는 것이 수적으로도 득책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지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 총인원의 1/2 이상으로, 그 구역 내 토지 총면적 및 총 지가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서 및 규약을 만들어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고 서야 비로소 설립된다. 현재 조선의 수리조합령<sup>41)</sup>은 이 경지조합에 의거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듯하다. 경지정리조합은 사업을 주로하고 유지관리는 부수적인 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완전히 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되면 수리조합법에 의한 보통수리조합으로

---

41) 일제는 1920년에서 1939년에 이르는 시기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1917년 '수리조합조례'를 개정하여 '수리조합령'을 제정, 반포하였다.

변경하든가 혹은 인계하거나 해산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경지정리조합을 영구히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 아니다. 경지정리 공동 시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지정리법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오로지 보통수리조합 조직에 의하여 관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지정리법이 발표된 이후는 보통수리조합은 유지 관리가 주요한 사업이라 해도 될 정도로 사업의 대부분은 경지정리법에 의해 시행되다가 보통수리조합으로 인계 혹은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조선에서는 아직 이러한 종류의 법령이 없어서 사업자는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 어쨌든 수리조합령에 의해 사업은 시행되나, 일본처럼 경지정리 시행은 잔무 정리상 다소 곤란함이 있어 사업자가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이 사업 또한 일본의 상황과 비슷해져서 토지개량령 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우리가 다시금 토지개량령에 대해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절실히 바란다. 여기서 조선에 적용되지도 않는 경지정리법에 의거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다시 토지개량령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자 할 때 참고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경지정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완결)

## 군(郡) 사무감찰 상황(상)

도속(道屬)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부군도(府郡島) 사무감찰 규정에 근거하여 작년 9월 이래 칠곡, 성주,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봉화, 청도, 경산, 선산, 경주, 영일 12군의 사무감찰을 시행하였다. 성적은 대체로 양호하며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향후 주의 개선하면 충분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국에 있는 자의 노력 여하에 있다. 다행히 감찰원들이 강평(講評)이나 훈시의 취지를 명심하여 상하 모두가 자신이 맡은 사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장래에 지방 정무가 개선, 진보되는 것은 실로 용이하리라 본다. 여기서는 지난번 감찰 때 공통적인 결함이었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감찰원 수행원의 일원으로서 느낀 두,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군(府郡) 당국자 및 면과 기타 공공단체 직원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문서 정리

#### 1) 문서 건명부

처리 요항(要項)란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 완결 기호가 없는 것, 편집 서책의 명칭, 보존 기한의 기입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건명부(件名簿)<sup>42)</sup>의 효용이 완전치 않은 것이 유감이다. 그러므로 미결 사항을 조사하여 주무자에게 그 처리를 독촉하거나 혹은 편집 문서의 소재를

42) 일이나 물건 등의 이름을 적은 장부.

찾아내야 한다.

## 2) 미결 문서

군에 따라서는 미결함을 마련하여 각 담당자가 미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담당자마다 보관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출장 혹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미결 문서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특히 항상 출장이 많은 기술원의 경우, 더욱더 지장이 많다. 그러므로 각과 별로 통일해서 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

## 3) 편집 보존

편집 문서에 색인을 붙이지 않거나 색인을 붙였다고 해도 기입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것(가령, 민적 예규 목차인데 통틀어서 민적 사무 취급에 관한 건으로 한 경우. 또한, 개명 원서철(綴) 색인을 모두 단순히 개명 원서라고 한 것). 문서의 연월일 번호 기입이 없는 것, 페이지 수 기입이 잘못된 것, 연도와 역년(歷年)<sup>43)</sup> 구분이 잘못된 것, 혹은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철한 것, 서고 격납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것, 보존 기한(종류별) 기입이 없는 것, 폐기할 문서를 섞어서 보존하거나 문서 보존 목록이 없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문서를 종류별로 정해놓지 않고서 해마다 주무자가 생각나는 대로 서책 명칭을 다는 경우, 내용이 같은 데도 해마다 다른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혹은 연도와 역년 편집의 구분을 실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철해 놓는 등 이는 크게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예규는 각 과별로 예규철을 하여 주

---

43) 매년을 의미.

관(主管) 사항별로 전사(轉寫)하고 항시 현행을 명백히 하도록 군(郡) 처무 규정으로 정해두었는데도 원본을 그대로 펴내고 게다가 개폐(改廢) 정리 작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심한 경우는 어떤 규정이 개폐되었는데 규정 혹은 일부 개정 등의 규정을 그대로 펴낸 것도 있어 목차를 보면 동일 사건이 몇 군데나 중복되어 있고 그중 어떤 것은 현행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예규철을 하는 취지를 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잃는 것이니 항시 엄격히 작성하여 주무자는 물론 누가 참조해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왕왕 어떤 사무의 담당자가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 담당 사무에 속하는 예규 등을 전사하여 자신 전용의 것으로 삼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중에는 해당 관청의 비치용 가운데 자신이 담당하는 예규는 평소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신이 편하게 집무할 목적으로 근무 시간에 관청의 용지로 써가며 다른 급무를 제쳐두면서까지 대장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무엇 때문에 봉급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의 노력으로 온전히 관청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담당하는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동료나 후배의 참고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관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 장부 및 대장류의 설비

사무의 간단, 신속함을 도모하고 지난 일을 교훈 삼아 향후 시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장부, 대장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상당히 고려한 흔적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여지가 적지 않다.

1) 양식을 제정할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양식이 너무나 복잡해서 오히려 기입을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기입하는 데에 그쳐 중요한 기사 기입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2) 소수 단체의 직원명부처럼 오히려 이력서에 의거할 수 있다.

3) 대장 작성의 필요와 불필요에 따라 연구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처분 사항인 경우는 대장을 마련하고 평의회원, 학교조합회 의원의 임기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장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다.

4) 갑 대장과 을 대장이 제각각이어서 양자의 내용 연결이 안 되는 경우.

## 사무 처리

사무 처리를 민첩하게 하고 잠시라도 밀리지 않는 것이 처무 규정의 정신이다. 평소 집무자로서 명심해야 할 사항인데도 이러한 점에 깊이 주의하지 않는 자가 있어 유감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지극히 간단한 사무를 이유 없이 며칠이나 걸려 처리하는 자.

2) 인민이 제출한 신청 건의 취급을 미루는 자가 있다. 적어도 인민의 편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친절히 취급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사유림 벌채 신청을 할 때 벌채 기간을 원서에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벌채 기간 후에 허가하거나 심한 경우는 백 수십 건을 한꺼번에 일괄처리한 자도 있었다. 그 내부 사정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3) 부분(副本)이 필요 없음에도 부분을 만들어 두는 경향이 있다.

4) 입안이 필요치 않음에도 규정 문서 처리에 입안용지를 사용하거나 입안 대신에 간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입안용지를 사용한

자가 있다.

5) 과장 위임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중요치 않은 것에도 일일이 상관의 결재를 거친 자가 있었다.

6)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도(道)보고 예규에 준하는 군(郡)보고 예규를 마련하여 1년간 보고해야 할 사항을 미리 통달해 두면 그때그때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7) 각과의 합의가 없거나 관련 관청 사이 또는 같은 관청 내 사무 연락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호세 부과를 면(面)의 호세할(割) 예규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는 현주소의 호구 조사와 호세를 부과하는 호수 조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미완결)

## 여자체조복에 관하여

### 대구본정소학교(大邱本町小學校)

본교에서 여아의 체육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아 체조복 제정 의견이 제기된 것은 1920년 3월이다. 이후 수차례 직원회의로 부쳐서 연구하고 체조복 연구위원회를 마련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적당한 것을 고안해 바로 본교 아동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구부 내 다른 소학교와 연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두 곳의 소학교와 회의를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협정을 이루지 못했다. 1922년도가 되어서야 마침 대구부 교육회에 아동연구부가 생겨서 사업의 일환으로 여아 체조복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부 교육회에서 고안한 것과 본교에서 연구 고안한 것이 대동소이하여 본교에서도 체육회가 고안한 여아 체조복을 채용하기로 내정하였다. 수차례 부형회(父兄會) 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방법을 협의하고 1922년 6월 부형회 총회 자리에서 찬동을 얻어 『여자체육복에 대하여』라는 인쇄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부형 일동의 양해를 구했는데 상당한 호의를 얻을 수 있었다. 3학년 이상은 모두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는 두세 벌을 한꺼번에 신청한 자도 있었다. 1, 2학년은 착용이 자유지만, 이미 이 체조복이 운동에 적절하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인지 2학년은 거의 모두, 1학년은 3분의 1정도가 신청하였다. 이 신청서에 따라 바로 부형회에서는 공동으로 옷감을 구입하여 재봉에 착수하였고, 1922년 7월에 전원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후도 계속해서 부형회 사업으로 공동구입, 공동제작 방법으로 염가의 가격, 품질의 통일을 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자체조복을 통일하였기에 1922년 7월 19일 제1회 체조회를 개최하여 전교 학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와서 여아가 운동할 때, 종래의 복장과 이번에 제정한 체조복이 어떻게 운동능률과 관련이 있는지 견학하도록 청하였다. 또한, 학교체육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아동 체육의 중요함과 운동복의 필요성이 더욱 더 통절히 느껴졌다.

### 1. 재질, 줄무늬, 형태 등

재질: 목면

줄무늬: 상의는 옥양목

하의는 큼직한 격자무늬<sup>44)</sup>

모자 앞은 큼직한 격자무늬, 뒤는 백목면

### 2. 재봉 방법(생략)

### 3. 가격

크기/종류별	운동모자	운동복 상의, 하의	합계
특대	40전	1원 80전	2원 20전
대	40전	1원 80전	2원 20전
중	40전	1원 70전	2원 10전
소	40전	1원 60전	2원
특소	40전	1원 60전	2원

44) 원문에서는 같은 빛깔의 농담으로 나타낸 큼직한 격자무늬를 뜻하는 벤케이 지마(弁慶縞)로 되어 있다.

## 물의 웅변

조화생(藻華生)

어느 날 카메라를 메고 대구천(大邱川) 상류에서 논 적이 있다. 세 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 소리도 드물고 새조차 울지 않아 그 고요함이 마치 봄 바다에 배를 띄운 듯한 기분이었다. 그 정적을 깨고 바위와 자갈에 부딪히며 댁댁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크게 웅변을 펼치듯 열심히 자기선전에 힘쓰고 있었다. 그 변은 샨-샨-하며 청산유수로 말하는 능변과 같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귀를 기울여 보니 허튼소리이긴 하지만 잠깐은 들을 만했다. 마침 펜이 있어서 재미 삼아 속기를 해 보았고 이것이 바로 그 한 편이다.

여러분! 내(我輩) 이름은 '물'이라고 한다. 이 이름은 내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내 조상이 지어준 것도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제멋대로 붙인 것이니 과연 나에게 이 이름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인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이 이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이름은 왠지 모르게 다정하다. 나는 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든다. '물'은 여성의 이름과 가까운 느낌이 들지만 나는 여성이 아니다. 아니, 여성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물은 그릇의 형태에(方圓の器) 따르고 사람은 선악의 친구에 따른다고 인간이 말했다. 사람이 선악인 친구를 따르든 말든 나와는 상관 없지만 물은 그릇의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든 바로 그 형태 그대로 따른다. 나

를 관리로 삼는다면 분명히 출세는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관계(官界)에서 처세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매우 순종적이다. 이 순종이라는 점이 바로 여성에 가깝다. '물'이라는 이름은 어찌면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무엇이든 부드러움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철두철미한 순종은 아니다. 꽤 과감하게 난동도 부리고 반항할 때도 있다. 토목계의 당국이나 백성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심성은 선하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특성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나는 끝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수평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일시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것뿐이다. 만약 흘러 내려가는 거리가 길다면, 결국 나는 수평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잃고 어디까지나 흘러가 버린다. 결코 본의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극단적인 민주주의다. 내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다. 벌레든 꽃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고위 고관이든 돼지든 물고기든 두더지든 세균의 곰팡이든 동등하고 모두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그곳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 나를 원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응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때로는 숙녀의 화장수가 되고 때로는 거지의 그릇을 씻는다. 민주주의도 이 정도면 철저하다. 그런데도 세상의 위선적인 민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스스로는 여전히 관료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사벨(sabel)<sup>45)</sup> 냄새에 미련을 두고 있는 조

선 관료 사회를 보면 어이가 없다. 나의 민주주의적 일은 옛날부터 일관되어 과언이 아니다. 아니, 이 허튼소리가 너무 길어져서 실례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 변화를 조금 말해둘 필요가 있다. 나는 아시다시피 보통 액체 상태이다. 그러나 한 번 열을 만나면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될 수 있다. 하늘로 모여 구름이 되고 식으면 비, 싸라기, 눈, 우박, 서리, 얼음 등 수 천 가지 형태로 항상 변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곳은 역시 '물,' 즉 나 자신이다. 내가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액체일 때도 있고 기체가 되어 움직일 때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변화들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 정도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애당초 내가 우주 안에서 노력하는 일은 웬만하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농업계, 공업계, 의약계, 기타 일반 사회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번거로우니 이하에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요점만 나열해 보겠다.

여러분! 먼저 물 없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을 비롯한 일반 동물, 곤충류, 아메바 또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내 수중에 있다는 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항상 자중하려고 애쓰고 있다. 인간이 요리할 때도 물이 없으면 안 된다. 목이 마른 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피곤한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플 때

---

45) 일본경찰이 차던 칼.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물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생명체는 전멸하고 여기 모든 것이 종언을 고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 열병을 앓고 있는데 만약 얼음이 없다면...? 무더운 한여름에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하고 땀투성이로 돌아왔을 때 만약 강에 물이 흐르지 않고 우물에 물이 솟지 않아 목욕도 못하고 발도 씻지 못한다면...? 저기 사거리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불이야!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증기 소방 펌프가 튀어나왔다. 물!물! 이봐, 수도는 어디에 있나!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물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 나의 진가를 이런 일로 결정해 버리기에는 아직 곤란하다. 자기 선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지난 여름 50~60일 동안 가뭄이 이어져 수돗물이 말라 물 절약 선전에 크게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나를 소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한마디 덧붙이겠다.

최근에 나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활발히 공업계에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나에게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어느 정도 낙차를 두고 나를 떨어뜨리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힘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 힘을 '수력'이라고 부른다. 수력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의 힘으로 각종 기계를 작동시키며 유선과 무선의 전신전화, 전등은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벼를 도정하고 쌀을 찌기도 한다. 공장, 병원, 전차, 전령(電鈴)<sup>46)</sup> 등 꽤 사용 용도가 대단해졌다. 최근에는 시계까지 전력을 이용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전기를 이용해 인간을 만드는 일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남녀동권(男女同權)은 아무

---

46) 전류를 이용하여 종을 때려서 소리가 울리게 된 신호. 또는 통신 장치.

의미도 없게 되고, 남녀 구분이 불필요해져 결국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아, 정말이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전기 이용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길 바란다. 이렇게 수력의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남성에게 gaps... 어떤 유명 학자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 공업계의 혁신을 꾀한다고 운운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어느 의사는 사람의 머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요즘이다. 그 정도의 일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분해가 가능하다면 매우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내 미래도 매우 기대된다. 이제 제법 시간도 흘렀으니 잠시 농업적 측면에서 내 활약을 말하고 물러나겠다. 내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내용도 거기에 있으니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경품에 불과했다. (미완결)

##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앞 호에 이어)

도미나가 가즈지(富永一二)

서언, 동부 시베리아의 대세,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 개관, 군비 상황, 조선인의 정황,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상황,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경제상황, 러시아인의 궁핍한 상황, 러시아의 경찰 및 소방, 블라디보스토크 감옥

### 7.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경제상황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지역에 발을 한번 디딘 사람은 훌륭한 가옥과 점포의 미관에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점포에 진열된 물품은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으로 현지의 생산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군벌지인 관계로 제정시대부터 그러했기에 큰 공장은 제분회사가 겨우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과격파가 발호<sup>47)</sup>하여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없게 되어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노력과 근면 사상은 사라져 무위도식하며 공산주의를 동경한다. 강도는 물론 각종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경제계의 기초가 파괴되어 민중을 구제할 아무런 계획도 없다. 또 국민의 복리를 도모할 산업이 일어날 서광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몹시 곤란하여 루블화조차 백 원 지폐는 일본 화폐의 5,6전으로 환산되는 추세이며, 게다가 제정시대에 발행한 것이나 다른 정부에서 발행한 지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우스꽝스러운

---

47)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

것은 실제 가치가 7,8전인 15전 은화가 일본 화폐에 대해서는 1/4로 환산되어 불과 3전 7리 5모로 통용되고 있어서 간사한 장사치들은 그레섬 법칙<sup>48)</sup>에 따라 이를 사들인 뒤 다른 곳으로 수출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은화가 모습을 감추게 되는 일도 머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찰자들이 흔쾌히 여기는 점은 해당 지방 일대가 우리 군헌(軍憲)에 압도되어 배짱이 센 러시아 놈들도 일본인을 만나면 길을 피하는 상태인데, 경제적 방면에서도 지금은 완전히 우리 세력 범위에 있는 느낌이다. 일용 잡화, 장식품은 물론 제반 물자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온 수입품이고, 화폐와 지폐는 적어도 우리 정부 보증 하에 발행된 것은 조선은행 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불안 없이 유통되어 한 장의 루블화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기회에 일본은 해당 지방을 우리 세력 범위에 넣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실업가와 상인은 크게 활약하여 미국의 상업 세력을 쫓아내고 시베리아 일대를 우리 상권 하에 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조선의 실업가와 상인 역시도 이 점에 착안하여 조선 대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무역을 신장시키고자 분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대부분 오사카와 고베 지방 생산품인데, 조잡하게 마구 만들어낸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한때를 호도하여 폭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바자 같은 기이한 시장이 있다. 매일 바자를 열어 점포를 마련하고 상품을 들고 다닌다. 겉보기에는 조선

---

48) 16세기 영국 금융가 토머스 그레섬의 이름에서 나온 용어로 화폐유통에 관한 경제학 법칙이다. 그레섬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가치가 낮은 돈이 가치가 높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이다.

의 시장과 다르지 않지만, 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일본제국 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데다 러시아의 무경찰, 무질서를 나타내는 축도이다. 즉 매매하는 상품은 일용 잡화, 귀금속, 의복류 등인데, 그 중에는 보통 일반 거래 물품도 있으나 강도나 절도한 물품과 사기 제품, 어려운 생활 때문에 매도하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통칭 도둑시장으로 알려지는 까닭이다. 인상이 매우 불량한 패거리가 어울리지 않는 금시계나 다이아 등의 보석류 내지 백원짜리 외투, 양복류를 들고 다니며, 이를 스스로 훔친 물건이라고 명언(明言)하며 구입을 권하거나 누구누구한테 의류를 받아 대신 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도 있다. 따라서 가격도 대체로 극히 저렴하며 새로 온 사람은 우선 호기심에 바자 시찰을 전례로 삼는 까닭이다. 바자 상인도 여간내기가 아니어서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하여 모조품과 위조품을 진품으로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좋은 호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귀금속, 보석류 등의 고가품을 소지하는 자는 대개 두세 명이 짝을 지어 구매자의 편인 척 하거나 경쟁 구매자인척 하여 구매자를 낚아 올려서 좋은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권총 등도 매매가 아주 많아 하루 2,30정을 쉽게 사들일 수 있어서 불령선인들이 이러한 바자를 이용해 사들인 권총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내정이 무질서하여 불량한 무리들이 발호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8. 러시아인의 궁핍한 상황

전술한 것처럼 극동 러시아는 시정(施政)을 통일하지 못해 과격파 공산당의 천하로 귀결되어 인민은 점점 더 타락 피폐할 수밖에 없고, 시베리아 일대 어느 곳이나 러시아인의 궁핍한 상황

은 차마 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우리 군대의 소재지 등에서는 앞 다투어 잔반을 받아서 근근이 살아가는 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에서도 역시 생활난은 가차 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즉 자산가라 할지라도 과격파의 주구강탈로 인해 도산하는 자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산업이 왕성해지지 않아 생활을 유지할만한 직업이 없는데, 오지 각 지역이 불온하여 피난민이 수도 없이 모여들어 집세를 비롯하여 모든 물가가 올라서 하루하루 생활을 유지하는데 몹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성실한 자는 노동자가 되거나 마차꾼으로 전락하지만, 심보가 고약한 자는 사기 또는 강도나 절도를 하여 돈을 벌며 생계를 꾸리려고 했다. 특히 여성은 직업이 적어서 여러 관청의 사무원이 되어 분투하는 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타락하기 쉬운 매춘부가 되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유럽전쟁 및 과격파 발호로 인해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은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많고, 이들은 원래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자들이라 맨 주먹으로 생활의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지만, 찾아도 직업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중극장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러시아어 교사, 외국인 첩, 매춘부 등 갖가지 직업에 종사한다. 즉 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먹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도 불사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생활난에 위협을 받아 몸에 걸친 의류와 장식품을 닦치는 대로 내다 팔아서 생활비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시찰자의 주의를 가장 끄는 것은 이들의 사정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전체에 매춘부가 많다는 점으로 전 세계의 최고 환락지인 파리로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평이다. 어두컴컴한 중심가에 나가면 잘 차려입은 매춘부가 삼삼오오 활보하고 다니며 여

색을 밝히는 남자를 유인하려고 한다. 길가는 부인의 9할까지는 이들 추업부(醜業婦)<sup>49)</sup>라고 하니 이들의 공상을 짐작할 만 하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니콜리스크 지방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지가 많다는 점으로 비단 러시아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조선인 거지도 있다. 생활난 때문에 낙오자로 걸인이 된 모양으로 정거장 안, 더 나아가 차안에 까지 들어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지경이 되면 어이가 없어진다. 특히 우스운 것은 거지라고 해도 흑한의 시베리아에서는 구두를 신지 않을 수 없어서 되도록 구두를 오래 보존하여 겨울철에 사용하기 위해 이들 거지패거리는 여름철에 맨발로 다니며 정성껏 구두를 보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궁핍한 민중들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 임시정부에 뭔가 좀 해결방안이 있느냐 하면, 러시아의 근본정치 조차 통일되지 않은 오늘날 이러한 궁핍한 민중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리 없고, 또 회사와 공장 등이 부흥할 가망성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궁핍한 민중들을 구제할 만한 직업도 찾지 못하니 결국 시베리아의 러시아인은 가장 극단까지 타락하여 마침내 일부는 말라비틀어져 시베리아 광야에 잔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인도상의 문제로써 뭔가 좀 연구하고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9. 러시아의 경찰 및 소방

작년 4월 과격파군의 무장해제 이래 블라디보스토크 및 니콜리스크시 등에는 러시아 군대를 두지 않게 되었다. 민경인 경찰관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데 연해주 전체의 민경수는 4,250명,

---

49) 더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 주로 색주가, 창녀 따위를 이른다.

그 중 블라디보스토크시 민경은 약 2,000명이다. 연해주 민경총장 아래에 민경서장과 부서장이 부하를 지휘 감독하고, 조선 국경에 속하는 민경서는 니콜리스크 경찰서가 소관에 관계하며 남부 조소리 노키엵스키에 지서가 있다. 50명의 민경이 두만강 연안지방까지 관할한다. 배치 인력이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관과 마찬가지로 민경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행정민경, 요새민경, 수상민경, 철도민경 및 예비민경 등이 있다. 예비민경은 평소 아무런 사무를 보지 않으나 마적 토벌 등과 같은 임시 사건이 있을 때 그 일을 담당하는 이들로 순전히 예비병의 지위이다. 민경은 흡사 함경북도 등의 경찰관처럼 총칼을 둘러메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관이 합쳐진 성격이다. 블라디보스토크 민경학교(4개월 수업)를 졸업한 후 채용되며, 월급은 원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4,5원에서 30원 정도이다. 임시정부 경무장 격인 연해주 민경총장의 월급도 놀랍게도 백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강도나 절도를 하고 협박을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으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납득하고 있다. 소관은 민경총장 클로젠씨를 방문하여 1시간 정도 서로의 경찰 및 기타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하길 러시아 경찰관의 대우는 매우 박봉이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 민경이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유감이라고 한다. 이에 소관은 조선의 경찰관 급여는 양호하다고 전했더니 그는 부럽기 그지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요컨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박봉으로 대우하는 것은 일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생활을 위해서라면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금품을 취득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되므로 무사는 굶어도 배부른 체 한다는 말 따윈 현실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20원 내지 30원의 월급으로 한 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리 없다.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시가지가 백주에 강도와 절도가 활개를 쳐서 잡고 보니 내 자식이라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민경이 강도나 절도를 하는 것도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예는 중국 순경처럼 한 달에 14,5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경찰관의 지위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가급적 잘 대우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러시아 영토 안에서 불령선인을 체포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민경이 체포하지만, 같이 간 일본헌병 몇 명이 보조라는 이름하에 실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체포 송치할 때는 러시아식의 관례라고 할지, 우스운 일은 체포한 범인에게 결코 포승줄을 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4, 5월 사건으로 신한촌에서 불령선인 십여 명을 체포하여 포승줄로 묶고 끌고 가는데, 이 상황을 본 러시아인이 기이하게 여기며 일본인은 야만스럽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러시아 아니 자유사상이 발달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일단 체포된 이상은 결코 도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범인을 송치하더라도 포승줄을 매지 않으며, 중대 범인이면 무장한 경찰관이 호위하고 만약 도주를 꾀할 때는 이들을 사살해도 일반 사회는 이를 당연시하여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귀화 조선인 중 러시아 민경이 된 자도 적지 않다. 러시아에서도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발탁하여 경부(警部)급으로 승진시킨 자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민경서 안에서도 조선인이면서 부서장이 된 자도 있다고 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소방은 기계와 기구가 완비되어 있는 점에서는 결코 일본의 대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지만, 도구와 설비가 훌륭한데 비해 사용할 때의 무질서함에는 놀랄 따름이다. 이 또한 경관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 뿐이지만, 소화(消火)작업이 한창일 때 돈을 융통해 달라고 조르다가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기계에 고장 있다는 등의 구실을 대며 소화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힘 앞에는 굴복해라 주의로 할 수 없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시 각 소방수는 거의 도둑과 다르지 않아 손에 닿는 물건은 모조리 팔아치우는 상황으로 화재가 한번 나면 타지 않고 남은 물건은 모조리 도둑맞아서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경영에 관여하는 블라디보스토크 병원이 화재가 났을 때인가 원조하러 온 일본 군대가 기구와 물품을 도둑질한 소방수로부터 이를 되찾았다고 한다. 실화라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시베리아지방의 민경과 소방은 내부적으로 부패하여 규율이 문란해지고 인민은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오로지 시베리아에 한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의 상황 역시 그러하다. 문명국임을 자랑하는 서구 여러 나라 경찰의 경우에도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규율이 느슨해져 진정한 경찰권의 발동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고 들었다.

## 10. 블라디보스토크 감옥

어지럽게 엉켜 있는 과격파 정부치하의 감옥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고 해서 짬을 내어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을 시찰했다. 그런데 일찍이 제정시대에 감옥 총장이었던 현재 감옥장은 조선총독부에서 나오는 시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꺼이 맞이해 상세하게 설

명을 해 줬다. 현재 수용된 죄수는 350여명으로 최대한은 천 명 정도의 수용력이 있고, 건물이 굉장하며 지하층, 2층, 3층 등의 각 구간마다 견고한 철책을 설치하는 등 경호가 매우 엄중하다. 남자 감방과 여자감방은 본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여자 감방에는 여자 간수를 배치하고 공작장, 욕실, 병원, 취사장 등의 설비도 각각 갖춰져 있다. 식사도 빵, 생선, 고기, 야채류 등을 일정한 분량으로 안배하여 지급한다. 표면적으로는 어지간히 정돈되어 과격파 하에 이러한 질서 있는 감옥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소관은 감옥장과 함께 남녀 감방 여러 곳에 들어가 죄수의 상세한 생활 상태를 보고 또 수감된 까닭에 대해 물어보니, 강도, 절도, 사기범이다. 기타 갖가지 범행 및 혐의가 있으나 그 중에는 아무런 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는데도 과격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제정시대에 장교 부인이었던 까닭에 구금되었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노인을 구금하니 바라건대 방면되도록 힘써달라고 울기 시작하는 노파도 있었다. 특히 우스운 것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감방 안에서 큰소리로 부르짖는 자가 있어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자신은 제정파 장교라는 이유로 철창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관(大官)의 시찰을 다행으로 여기며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자신의 감방에도 들어와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러한 대강의 시찰 결과, 일본 감옥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유사상이 발달한 외국인만큼 기결과 미결 죄수에 대해 그다지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일률적으로 붉은 색 옷을 입히지 않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의류를 입히거나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락한다. 또 여자 죄수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허

락하고 있다. 병원 실내는 청결하고 담요도 양호한 것을 지급하며, 또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화분을 두고 입욕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정시대에는 집행 유예가 있었지만, 과격파 치하가 된 이래 은전(恩典)이 중지되었으나 반대로 사형 같은 극형도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위 과격파의 횡포와 무질서는 벗어나기 힘들고 때로는 압박에 의해 때로는 돈의 힘에 의해 형기 같은 것은 자유롭게 늘어나거나 줄일 여지도 많아서 사람을 죽여 감옥에 들어온 자가 불과 반년 정도에 방면되는 일도 있다. 감옥은 질서가 문란한 현재 러시아의 하나의 축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완결)

## 사조(詞藻)

### ○ 일본 본토를 시찰하고 읊다.

#### ■ 우도훈(禹導勳) 청송

爲愛優遊渡海東 一般旅苦此中同 十年恒切關河夢 萬里來觀朝野風  
雪深富士山容白 日射扶桑曙彩紅 看取文明移我土 莫教他日謾成空  
(東行道中)

자애 덕분에 편안하게 동쪽 바다를 건넌다. 여행의 고통은 여기  
서도 다르지 않구나. 십 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 강의 꿈을 꾸었  
다. 만 리를 와서 조정과 민중의 모습을 본다.

눈이 깊이 쌓인 후지산 모습이 하얗다. 해가 뜨는 일본(扶桑)의  
아침 햇살이 붉다. 문명을 살펴보고 우리 땅에 옮기리라.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함을 배운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 ■ 남석한(南錫翰) 청송

千里探眞一路通 櫻花四月待人紅 翁造化窮湖水外 客精神老瀑聲中  
恐露靈區終日霧 尙餘寒候過冬風 儂惟拙手難摸得 渡海奇觀自此空  
(中禪寺)<sup>50)</sup>

진리를 찾는 천 리 길은 한 길로 통한다. 4월의 벚꽃이 사람들을

---

50) 일본 닛코(日光) 시에 있는 주젠지(中禪寺) 호수는 그 넓이와 풍경이 좋기로  
유명하다. 위 한시를 지은 청송 지역 조선인 유림은 조선통신사 때부터 잘  
알려진 일본의 닛코를 방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다리며 붉게 피어 있다. 바깥의 호수는 노인을 궁하게 만든다.  
 늙은 노객의 정신은 폭포 소리에 헝싸인다.  
 신령이 이슬이 된 듯 종일 안개가 짙다. 아직 추위가 남아 있어  
 겨울바람이 분다. 나의 부족한 생각과 손으로는 묘사하기 어렵  
 다. 바다를 건너와 진기한 경치와 하늘을 본다.  
 (주젠지에서)

■ 조정환(曹正煥) 청송

東遊又上日光山 消却塵緣不欲還 百尺華流飛勢急 千年禪寺老僧閑

일본을 거닐며 닛코산에 오른다. 세속의 티끌과 인연을 잊고 있  
 자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  
 백 척의 화려한 폭포 물줄기가 갑자기 힘차게 날린다. 천 년 된  
 선사의 노승은 한가롭다.

■ 권수엽(權秀燁) 청송

日光難上似青天 壯觀吾猶及盛年 俯瞰千層銀浦影 瀛州<sup>51)</sup>洲畔好  
 寅緣 (登日光吟)

닛코산은 오르기 어려워 마치 푸른 하늘과 같다. 나는 가히 성년  
 에 이르러 장관을 본다.  
 천 겹의 은빛 물결을 내려다본다. 영주산과 물가가 아름다운 녹  
 음을 펼친다.  
 (닛코산에 올라 읊음)

---

51)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진시황이 불로불사의 약을 찾고자 했던 선경(仙境).

### ■ 심능성(沈能成) 청송

日光山屹聳雲空 天稱靈湖泰嶽中 不歎尋常出洞口 懸崖千尺作飛瀧  
(登日光吟)

닛코산이 구름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신령하다고 칭하는 호수가 태산 가운데에 있다.

동굴을 빠져나오며 모든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천 척의 절벽이 힘차게 날리는 폭포를 만든다. (닛코산에 올라 읊음)

### ■ 조병식(趙炳植) 청송

四月南天出海東 江山到處古今同 萬方物色皆殊俗 一片行裝是土風  
景光視盃斜陽白 美味相酬醉面紅 屢日長程鐵馬嘶 扶桑深夜夢魂空

사월에 남쪽 하늘, 동쪽 바다로 나선다. 강산과 이르는 곳이 모두 예나 지금이 같다. 만방의 경치와 사물, 그리고 풍속이 모두 다르다. 한 별의 행장이 곧 선비의 품모이다.

경치가 잔에 비치고 기우는 해가 하얗다. 맛있는 음식이 오가고 취기에 얼굴이 붉어진다. 연일 이어지는 긴 여정에 철마가 운다. 일본(扶桑)에서 깊은 밤에 공허한 영혼의 꿈을 꾸다.

### ■ 심경택(沈璟澤) 청송

曉發樓船碧海東 昔聞今見果相同 到此堪愧餘舊習 於斯始覺革新風  
舉國衣冠德尚墨 滿城旂旆忽翻紅 一句名勝經行處 消却塵愁世廬空

새벽에 누각 같은 배가 동쪽 푸른 바다로 나선다. 예전에 듣던

것을 지금 보니 과연 같구나.

이곳에 오니 남아 있는 옛 관습이 부끄럽다. 여기서 비로소 혁신의 기운을 깨닫고 느낀다.

온 나라가 의관을 갖추고 덕과 글을 숭상한다. 도시의 휘날리는 깃발이 일시에 붉게 바꾼다.

열흘 동안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세속의 근심 걱정이 지우고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

### ■ 조정식(趙定植) 청송

日光山色等半空 訪人寺深白雲中 千年古塔眠佛界 百尺層岩掛瀑瀧  
(次沈能成日光山)

닛코산 산색은 하늘과 같구나. 절을 찾아 방문하니 깊은 흰 구름 안에 있고,

천 년 된 고탑은 불계에 잠들어 있다. 층층이 쌓인 백 척 바위에 폭포가 걸려 있다.

(심능성이 닷코산을 읊은 것에 잇는다)

### ○ 남세 선전 잡영(雜咏)

#### ■ 소진하(蘇鎭夏) 세무과

盈車典法世無傳 稅吏徵租苦索錢 畫紙不言能化俗 懶夫相戒莫相愆  
野戶山庄貼彩華 街童指畫說邦家 始知皇廩由吾稅 國富民安怠納何  
百政俱興四海清 男耕婦織樂昇平 皇恩報答將何物 納稅如期是素誠

수레에 가득한 법전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세리가 힘들게 찾아내어 세금을 걷는다. 그림과 종이는 말은 못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게으른 자들이 서로 경계하여 서로 잘못하지 않도록 하라.

들판의 집과 산속 마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다. 길거리 아이들이 그림으로 나랏일을 이야기한다. 황실의 공간이 내 세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처음 알게 된다. 나라고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한데 어찌 납세를 게을리하겠는가.

모든 정치가 흥성을 갖추고 세상이 맑아졌다.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베를 짜니 태평성대가 즐겁다. 황제의 은혜에 과연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성실한 보답이다.

## ○ 구보 덴즈이<sup>52)</sup> 선생께 드림(呈久保天隨先生)

### ■ 일호(一湖) 박광렬(朴光烈) 경주

文雄司馬筆義之 遊雅風流亦且宜 菊釀初濃明月在 雁書不至碧雲垂  
疎鍾佛舍僧同話 孤角官樓我獨思 遙望東天相憶苦 上驅巢鴨夢難隨  
(七八句中天字隨字先生之號, 八句中上驅巢鴨先生之住地故謂之也, 五句中佛舍去夏先生來慶之時同遊於佛國寺意也)

글을 잘 쓰는 문웅(文雄) 사마천이 기록하기를. 우아해서 풍류를 즐기기에 또한 적합하다. 국화주가 비로소 진하게 익고 밝은 달

---

52) 구보 덴즈이(久保天隨, 1875-1934). 일본의 한학자이자 한시 시인. 타이완의 타이페이 제국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시 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위 한시는 이처럼 한시로 유명한 구보 덴즈이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창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떠 있다. 기러기의 소식은 오지 않고 구름이 드리운다.  
드문드문 울리는 절 종소리에 승려들은 함께 이야기한다. 관청  
건물 누각 한 모퉁이에서 나 홀로 생각에 잠긴다. 등지에서 오리  
를 쫓아내는 것 이상으로 꿈을 이루기 어렵다.  
(제7·8구의 ‘천(天)’자와 ‘수(隨)’자는 선생의 호에서 따왔다. 제  
8구의 ‘상구소압(上驅巢鴨)’은 선생 주거지 지명에서 따왔다. 제  
5구의 ‘불사(佛舍)’는 선생이 경주에 왔을 때 거닐었던 불국사이다.)

## 경상북도 산업자문회(2일째 이후)

### 제2일(12월 12일)

오전 10시 50분 개회. 의장을 맡은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지사가 자리하여 전날에 이어 개회 취지를 이야기하고 바로 질문 및 의견 진술에 들어갔다.

### 질문 및 의견

제일 먼저 23번 권병선(權丙宣)은 당국의 산미개량 장려방침이 왕왕 실제 사정과 맞지 않다며 참고로 지방 농촌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였다. 즉, 지주의 탐욕을 비롯하여 소작관리인의 폐해, 예약거래 폐해 등을 상술했다.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당국의 엄중한 단속을 요망함과 동시에 농회령<sup>53)</sup>의 급속 발령, 기술원(員)의 인선 및 감독, 종묘장의 증설, 축산조합과 군농회의 병합 실시 등에 관한 희망 및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38번 스기하라 조타로(杉原長太郎)는 “원시산업에서 가공산업으로 진행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적인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공업교육을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관해 도(道) 당국은 과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연료 및 동력은 단순히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의 중대한 문제인데,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현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장래

---

53) 일제는 1918년 법제화에 들어가 일본농회법(日本農會法)을 본 따 1926년 1월에 조선농회령을 발포하였다. 이는 각종 농업 단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주의 이익을 피하고 소작 농민의 착취를 위한 것이었다.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업자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조선의 상황은 자칫하면 예금이 일본으로 역이출될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조선에서 도 당국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일본자금의 이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는 “공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만약 경비가 허락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조선에서 동력은 큰 문제라서, 총독부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일단 대략적인 조사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력전기는 도저히 이 남선(南鮮) 지방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탄의 경우는 경상북도 동해안에서도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는 총독부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식산은행, 조선은행, 동양척식에서도 할 수 있는 자금 공급은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타 일본자금 이입도 연구 방법에 따라서는 꼭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오후 0시 10분에 점심 식사를 위해 휴식을 선언하고 1시 30분에 재개하였다. 오전에 이어 질문 및 희망 개진에 들어가려고 할 때 39번 요시무라 시즈오(吉村鎮雄)가 긴급동의(動議)를 제출하였다.

39번 요시무라 시즈오는 “위원 전체를 세 개로 나누어 부회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부문을 나누고 나서 부장의 인선도 당국에 일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다수가 찬동하였기에 이의 없이 이를 결정하고,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는 부문을

나누고 다음과 같이 위원을 지명하였다.

### ▽ 제1부(농업)

와카바야시 세이조(若林誠助), 박병채(朴丙采), 이토 기치사부로(伊藤吉三郎), 시모무라 다다시(下村忠), 사키사카 쇼키치(向阪庄吉), 김명옥(金明玉),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 요시다 에이자부로(吉田英三郎), 배동옥(裴東玉), 히우라 고지(日浦廣治), 진희규(秦喜葵), 이풍환(李豊煥), 김구현(金龜鉉), 정해붕(鄭海鵬), 노나카 가나에(野中鼎), 나카노 류이치(仲野隆一)

### ▽ 제2부(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쇼고 야자부로(十河彌三郎), 후루타 주에이(古田忠衛), 가타오카 기치에몬(片岡吉右衛門)<sup>54</sup>, 이일우(李一雨), 김준림(金濬林), 우상학(禹象學),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 권병선(權丙宣), 한익동(韓翼東), 박정준(朴正隼), 이기소(李起韶),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문명기(文明琦), 스기하라 조타로(杉原長太郎), 요시무라 시즈오(吉村鎮雄), 다쓰노 산노스케(龍野三之助)

### ▽ 제3부(실업교육, 산업자금, 교통, 기타)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야마모토 고조(山本好造), 오이시 다케키(尾石剛毅), 서병조(徐丙朝), 김남수(金南洙), 남연탁(南延卓), 야마카미 산라쿠(山上三樂), 모토다 다케오(元田武雄), 야마가타 사다에몬(山形定右衛門), 정원조(鄭元朝), 김상기(金相基)

---

54) 1호 기사에는 나미오카 기치에몬(波岡吉右衛門)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 부회(部會)로 들어가 제1부는 요시다 에이자부로(吉田英三郎) 씨, 제2부는 요시무라 시즈오(吉村鎮雄) 씨, 제3부는 오이시 다케키(尾石剛毅) 씨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개시하였다.

### 제3일(12월 13일)

당일은 특별히 총독부에서 니시무라(西村) 식산국장이 대구로 와서 오전 중에는 자문회 위원 일동을 대상으로 별항<sup>55)</sup>에 실린 연설을 하였고 오후에는 각 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4일(12월 14일)

전날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각 부문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오후 1시에 종료하였다. 2시 10분부터 본회의로 옮겨갔는데, 먼저 각 부문의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결과 및 경과보고를 하였다.

### 제1부 위원회 경과(요시다 에이자부로 위원장 보고)

#### 1) 토지개량에 관한 건

가) 토지개량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보조금을 증액하여 속히 처리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답은 3할 5푼 내지 4할을 보조하겠으나,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보조금이 앞서 말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지방비로 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55) 「조선의 산업(상) 경북산업자문회 강연 요지」 참조.

나) 경상북도의 계획요령 이외 간단한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특종 기구를 대부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 **2) 산미에 관한 건**

가) 벼 검사는 준비가 필요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속히 준비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나) 제4항의 특종 기관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있었기에 부언해 둡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있는 것은 경제적 활동 기관이 아니므로 경제적 방면에서 농업을 활용할 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 조선 쌀을 일본에 선전하기 위해 상설 선전기관을 일본에서 마련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 **3) 쌀 이외 주요 식용작물에 관한 건**

### **4) 특용작물에 관한 건**

이 두 항에 대해서는 딱히 따로 보고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리와 대두에 대한 장려도 쌀과 마찬가지로 당국에서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부가해 둡니다.

### **5) 원예작물에 관한 건**

원예시험장을 설치하여 병리, 화학시험 및 기술원 양성에 힘써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 6) 비료에 관한 건

현재보다 더 자급비료 개량과 증식에 힘을 쏟아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 7) 가마니에 관한 건

## 8) 농기구 및 기계 등에 관한 건

벼 조제 개량에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방비로 보조해 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발동기를 설치 사용하기 위해 당국에 허가를 구할 때 조금 더 농민이 바라는 대로 간소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마침 방안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9) 소농 보호에 관한 건

공평한 생산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실제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세의 경우는 당연히 지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비료 대금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주와 소작인 모두 이익을 얻으므로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략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특별히 부가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요령 이외 당국에서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는 자작농 증가 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 10) 농업연구 및 장려기관에 관한 건

제6항에 특수농사회사 설립 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특수한 회사를 창립하여 농사자금을 공급하거나 생산비 절약과 유리한 생산판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 창립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는 동시에 적절한 배당제한을 할 것이며, 이외 이사 인선에 대해서도 도의 양해를 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11) 목화에 관한 건

이는 결국 국방, 경제면에서는 물론 조선 전체의 산업방침 상, 상당히 장려,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잠업에 관한 건

특히 부녀자에게 사육방법을 보급 장려했으면 하는 바람과 간단한 양잠실 구조 등에 관해 당국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입니다.

### 13) 축산에 관한 건

조선에서 우량한 소를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의 수이출을 방지하고 도축되는 소의 수를 줄이기 위해 양돈을 장려할 것과 사육장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 제1부 위원회 결의

요시다 에이자부로 위원장 낭독

농사에 관한 건

이번에 제출한 계획 요항은 대체로 적절하기에 완급을 잘 도모하여 시설 진보를 기하도록 바랍니다. 특히,

- , 토지개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 및 보조금을 속히 증액할 것
- , 산미에 대해서는 경종법(耕種法)<sup>56)</sup> 개량 조제
- , 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목화, 과수 재배 장려, 원예 연구 기관의 충실과 확장
- , 비료에 대해서는 자급비료의 개량, 증식
- , 소농 보호에 대해서는 소작 관행 개선을 위해 한층 더 지주의 자각을 촉구하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친애 공영주의의 철저를 기할 것
- , 잠업에 대해서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시설
- , 축산에 대해서는 우량 소의 확보, 종축장의 설치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면(面) 기술원의 충실은 위의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음으로 계획 요항에는 특기(特記)가 없으나, 이하 사항은 경상북도 산업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 , 자작농을 늘이기 위한 적절한 방책에 대해 연구할 것
- , 일본에 조선 백미 선전을 철저히 하기 위한 상설 기관을 마련할 것
- , 토지개량에 필요한 공사용 특수기구를 대부할 것

## 제2부 위원회 경과(요시무라 시즈오 위원장 보고)

### 1) 임업에 관한 건

경상북도의 조림 수종은 주로 소나무이지만 이외에도 본도의

---

56) 농작물의 선택부터 논밭 갈기, 씨뿌리기, 김매기, 거름주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사에 관한 모든 방법을 일컫는 것.

식림에 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과 묘포 설비를 적절히 해 줄 것, 그 외 당국이 주의를 해 준다면 딱히 이의 없음을 결의했습니다.

## 2) 수산에 관한 건

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부정어업을 적절히 단속할 것, 저인망 밀어(密漁)를 엄중히 단속할 것, 한층 더 어항(漁港) 수축(修築)에 힘 써줄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 3) 상공업에 관한 건

추가로 제지, 완초 및 기류(杞柳)<sup>57)</sup> 증식 및 그 생산품을 장려하고 도자기, 제마(製麻), 제지도 넣도록 결의했습니다. 이외 희망 요건으로는 불충분한 전기전화를 개선하는 데 진력해 줄 것과 석탄 운임의 저감을 도모하고 중앙시험소 지소 설치를 교섭하도록 결의했습니다.

## 제2부 위원회 결의

요시무라 시즈오 위원장 낭독

임업에 관한 건

수산에 관한 건

상공업에 관한 건

부업에 관한 건

이번에 제출된 계획 요항에 열기되어 있는 각 사항은 대체로 적절하므로 그 경중을 잘 헤아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시설의 진

---

57) 버드나뭇과에 속한 낙엽 관목으로 바구니, 가방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됨.

척을 기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각 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나무, 전나무 이외 경상북도에 적합한 수종을 조사, 선정할 것

—, 각종 어족이 떼를 지어 있는 유역의 방향을 조속히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어업 편의와 어획 증진을 도모할 것

—, 공업 직공 양성에 관한 항목 중에 제마, 제지, 도자기 세 개 과(科)를 추가할 것

## 희망 사항

—, 유망(流網)<sup>58)</sup> 어업 보급 및 발달을 도모해 줄 것

—, 어선을 사용하는 나잠(裸潛)<sup>59)</sup> 어업과 관련된 종래 협정(나잠 어업으로 전북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관계자와 미에현(三重県) 시마군(志摩郡) 해녀가 협정. 이번에 대구부 및 상기 도(道)가 알선하여 성립.)은 쌍방에게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개정할 것

—, 단속 중인 저인망 밀어를 엄중히 단속할 것

—, 전신전화가 불충분하여 연락, 오역 등이 많아 불편하므로 상응하는 대처를 해 줄 것

—, 이입세(移入稅)는 상공업의 발달을 크게 저해하므로 속히 개선해 줄 것

—, 석탄 운임의 저감을 도모할 것

—, 중앙시험소 지소 설치를 교섭해 줄 것

---

58) 물고기가 지나는 곳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회유(回遊)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만 사용.

59) 잠수하여 행하는 어업.

## 제3부 위원회 경과(오이시 다케키 위원장 보고)

### 1) 실업교육 및 실과교육 시설에 관한 건

### 2)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대체로 당국의 계획에 찬성을 표하며 따로 의견 진술은 없었지만, 해당 계획을 조속히 실시할 것과 특히 공업학교 설치를 서두를 것을 결의했습니다.

### 3) 산업자금에 관한 건

문제가 문제인 만큼 장시간에 걸쳐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요컨대 특별한 명안은 없었고 대체로 당국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희망 사항으로는 일본자금이 조선에 이입되도록 조선의 산업상태를 한층 더 널리 일본에 선전할 것, 상당한 자금을 지닌 조선인이 단순히 대지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금을 산업화하도록 힘써 줄 것, 금융조합의 신용대부 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금리를 낮추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4) 교통에 관한 건

왜관에서 군위, 영천에서 안동을 거쳐 포항으로 가는 직통 도로를 속히 만들 것, 포항과 하마다(濱田) 간 항로<sup>60)</sup>가 개시되도록 서둘러 줄 것, 조선산업철도 김천 안동선을 연장하여 중앙철도와 연결해 줄 것, 대구 안동 간 경철을 속히 만들도록 당국이

---

60) 포항과 시마네현(島根縣)의 하마다(濱田) 간 직통 항로는 1924년 개통되었으나 1927년 폐항되었다. 상세한 사항은 해제 참고.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 제3부 위원회 결의

오이시 다케키 위원장 제출

실업교육 및 실과교육 실시에 관한 건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산업자금에 관한 건

교통에 관한 건

이번에 제출된 계획 요항은 각항 모두 적절하므로 실행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했으면 합니다.

- , 산업 발달 촉진을 위한 인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실업학교 그중에서 공업학교를 신속히 설치할 것
- , 일본 자금의 이입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산업을 널리 소개, 선전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응하는 인물 유치 방법을 강구할 것
- , 달리 적당한 투자처가 없는 조선인 자산가가 자연스레 부동산 특히 토지 구입에만 몰두하여 한꺼번에 토지를 소유하는 폐단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금을 한층 더 유효하게 산업화하도록 연구할 것
- , 금융조합의 증설은 상황에 맞는 시설로 보고 있음. 이와 동시에 금융조합 신용대부 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금리를 내리는 등 소농 보호 취지를 한층 더 철저히 할 것
- , 도로에 대해서는 왜관에서 군위, 영천에서 안강으로 통하는 도로 개수를 조속히 할 것
- , 포항과 하마다 간 항로를 개시하여 산인선(山陰線)<sup>61)</sup>과 연결하면 대구와 오사카 사이는 128리, 대구와 교토 사이는

170리가 단축된다. 이출입에 있어 많은 편의를 얻으므로 경상북도 산업에 끼치는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당국은 적극적으로 이 항로 개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 , 조선산업철도 김천 안동선을 연장하여 중앙철도에 연결할 것
- , 그 외 항만 설비에 관해서는 많은 경비가 들더라도 인명 및 재산과 관련된 중대 사항이므로 강구, 기타 연안 어항의 개수 설비에 충분히 유의하여 시설할 것

이와 같이 끝나고,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가 각 부문의 위원회 결의에 대해 본회의의 가부를 묻자, 전원 이의 없이 각항 모두 위원회가 결의한 대로 가결하였다. 여기서 4일간에 걸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의사(議事)를 종료하고, 다음과 같은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의 폐회 인사를 끝으로, 오후 5시 10분에 해산하였다.

## 지사의 폐회 인사

이번에 개최된 산업자문회도 여기서 예정대로 종료되어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기간은 혹한의 시기인 데다가 특히 평소에도 바쁘신데 연말이라 한층 더 용무가 많았을 터인데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진중하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각 방면의 사항에 관해서 실제 경험과 지방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모로 적절하고 유익한 의견을 듣고서 경상북도 산업계획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바라마지 않던 것으로,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겨우 나흘이

---

61) 교토역을 출발하여 각 지역을 거쳐 야마구치시(山口市) 하타부(幡生)역에 이르는 철도 노선.

라는 회의 기간에 부의(附議)한 사항이 광범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충분히 의견을 주실 여유가 없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당국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경상북도가 계획한 요항의 모든 항목에 대해 이해와 찬동을 얻어 경상북도의 산업방침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래 산업시설에 천근의 무게가 더해지고 큰 권위가 부여되어 산업진흥에 있어 위대한 효과를 나타내리라 확신하니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착실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완급과 재정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순서와 방법 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종 결의 사항을 수행할 때에는 어제 식산 국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방침과 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해당 사업자에게 이해시키고 자각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사자가 분발하여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계획도 자칫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이해와 자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당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도 본 계획의 공동책임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더욱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행 책임까지 여러분께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산업이라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하는 즉, 전투선에서 있는 해당 사업자가 온전히 우리와 같은 방침과 의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관청 측이 해당 사업자의 의향과 열성에 이끌려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관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산업의 진보는 더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관민 일치하여 경상북도의 각 계급과 방면을 관통하는 여론으로서 이번 계획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책임의 절반을 짊어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향후, 실행 시에도 시기와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실행 방법이나 산업 개발을 기하는데 있어 생각하시는 바, 혹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마음에 두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열성적으로 심의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아무쪼록 조심히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폐회에 즈음하여 한마디 인사를 올렸습니다.

(완결)

## 부기

경상북도 산업자문회의 결의를 거친 경상북도 산업계획의 요항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오는 3월호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 주왕산 고적보존회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동에 소재한 주왕산은 천연 절경지로서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고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탓에 여태까지는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작년, 청송과 의성 사이에 자동차가 개통되면서 드디어 유람객의 왕래가 늘었다. 이에 청송의 관민과 유지는 해당 고적을 보존함과 동시에 명승지를 찾는 일반 유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주왕산 고적보존회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비 및 보존비용에 충당하고자 도내 일반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보존회설립 취지서 및 사업계획 등은 다음과 같다.

### 주왕산 고적보존회 설립 기부금 모집 취지서

때는 당나라 덕종 즉 신라 시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1,100여년 전이다. 동진 시대 때 신하였던 주의(周顛)의 8대손 주도(周鏞)라는 자가 멸망한 진나라의 사직(社稷)을 회복하려 웅이산(熊耳山)에서 거병하였으나 실패하여 조선 땅으로 도망쳤다. 신라왕의 진격으로 인해 석병산(石屏山) 즉, 주왕산 천연 요새에서 3년간 농성하였으나 무운(武運)이 다하여 생포되어 참수당했다. 그의 아들 도군(道君)이 망부의 유해를 그 산에서 장사지내고 삭발하여 암자를 세워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 후, 고려시대 때 눌옹(訥翁)이 이곳에 절을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향불 연기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사적을 지닌 주왕산은 세상에서 드문 명승지로 당시 사람들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렀다. 이렇듯 유서 깊은 명

승지가 근래에 들어서는 관리 소홀 및 매정한 나무꾼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청송 산중 자연에 방임한 채 돌보지 않았기에 우리 동지들이 상의해서 보존회를 설립하고 널리 모금하여 별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적을 영원토록 보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경북의 명승지로서 널리 세상에 소개하여 유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문화 방면의 사회봉사가 되었으면 한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취지에 찬동하시고 많은 원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1922년 2월

청송군 주왕산 고적보존회

## 주왕산 고적보존회 사업계획

### 1) 유람길 건설

#### 가) 현황 및 건설 이유

주왕암 앞에 있는 옥순봉 뒤쪽과 용추폭포에 각각 등반하기 어려운 곳이 한 군데 있다.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유람하기 편하게 하고자 한다.

#### 나) 시설

유람길 조성을 위해 바위에 굴착을 해야 하는데, 한 곳은 20원 하고자 한다.

#### 나) 시설

유람길 조성을 위해 바위에 굴착을 해야 하는데, 한 곳은 20원

또 한 곳은 5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숙박소 건설 및 부속 건물 포함

### 가) 현황 및 건설 이유

주왕암과 백연암이라는 숙박소가 있으나, 승려가 기거하고 있어 멀리서 많은 손님이 찾는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민가에서 수용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한다.

### 나) 시설

숙박소는 대나무로 지붕을 이은 단층집 건물로, 한 동의 건평은 10평 6첩 2간<sup>62)</sup>이다. 객실과 부엌은 4첩 1간으로, 전면에는 서까래를 둔다. 평당 100원으로 합계 1,000원(다다미, 문, 장지 모두)이다.

부속 건물로는 한 동이 욕실 및 변소가 이어지는 구조로, 숙박소와 마찬가지로 내부 설비 일체는 평당 100원이다. 3평이므로 합계 300원이며, 이들 금액을 모두 합치면 1,300원이다.

## 3) 뱃나무 식재

### 가) 현황 및 식재 이유

상의동에서 이전리로 가는 길과 주왕암으로 들어가는 교차점에서 주왕암 아래 자하성터에 이르는 구간 노변은 수목이 적으므로 경치를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

62) 1평은 약 3.3㎡, 1첩은 약 1.6㎡, 1간은 약 1.8m이다.

#### 나) 시설

총길이 500간으로, 계곡 사이나 길 공도(公道)에 2간마다 1그루씩 합계 1,000그루의 벚나무를 심는다. 묘목 한 그루는 20전으로 합계 200원이다.

식재는 상의동 동민 인부들이 봉사하기로 한다.

#### 4) 주왕산 소개 및 기부금 모집

소개글 및 기부금 모집을 위해 인쇄물 1,500부를 경상북도 각 군에 배포하여 주왕산을 알리고 이와 더불어 기부금 3,300원을 모금하여 사업비와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 밖에 그림엽서 12장짜리 1조(組)를 1,000부 제작한다. 한 부는 20전으로, 200원을 들여 선전, 소개할 목적으로 각 방면에 배부한다. 합계 500원이다.

#### 5) 휴게소 정자 설치

##### 가) 설치 이유

산중 곳곳에 전망 좋고 휴게하기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비가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유람하기 좋게 하고자 한다.

#### 나) 시설

최적인 네 곳에 정자를 건축하고 간이 의자를 둔다. 한 곳당 20원으로 합계 80원이다.

#### 6) 잡비

제반 잡비로 15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본회 설립부터 사업착수까지 제 잡비 및 예상 예비비이다.

## 7) 기금 설치

### 가) 설치 이유

무정한 나무꾼이 함부로 산에 들어가 무허가로 몰래 베어가거나 어린 나무를 잘라버려 명소를 해치는 바람에 해마다 산 전체의 풍경을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용의주도하지 못하여 유지기금으로 1,000원을 부동산 담보로 해서 연리 1할 2부에 대부하여 1년에 이자 120원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 나) 시설

월 수당 10원으로 감리인을 두어 앞항과 같은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서임사령(敍任辭令)<sup>63)</sup>

### ○ 1922년 11월 10일

진나이 기조(陣內喜三)  
훈<sup>64)</sup>8등 우지모리 기요시(氏森清)  
종(從)7위<sup>65)</sup> 서임  
다나카 도키(田中とき)  
정(正)8위 서임

### ○ 1922년 11월 14일

조선총독부 도순사(道巡查) 권영숙(權寧淑)  
조선총독부 도(道) 삼림주사(森林主事) 임명  
급여 월봉 39원  
나리타(鳴田) 삼림 보호구역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 ○ 1922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 군속(郡屬) 이범혁(李範赫)  
충청북도에 출향을 명한다.  
김세국(金世國)  
고원(雇員)을 명한다.  
월봉 30원을 지급한다.  
원잠종(原蠶種) 제조소 근무를 명한다.

---

63) 벼슬을 내려주는 명령.

64) 훈등은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의 등급.

65) 조선시대에서는 관리의 품계 앞에 正(바를 정)과 從(좃을 종)을 붙여서 위아래를 나눴다. 같은 1품일 경우 정1품이 종1품보다 높다.

○ 1922년 11월 17일

사자생(寫字生)<sup>66)</sup> 다치노 야스코(立野彌壽子)  
고원을 명한다.  
일급 1원 20전을 지급한다.  
내무부 회계과 근무를 명한다.

○ 1922년 11월 20일

정6위 훈6등 도미나가 이치지(富永一二)  
종5위 서임  
정7위 주재영(朱載榮)  
정7위 손해진(孫海震)  
종6위 서임  
7위 고지마 칸이치(小島完一) 서임  
7위 다카스기 겐조(高杉權藏) 서임  
7위 미야하라 히데오(宮原秀雄) 서임  
정7위 서임  
정8위 조정환(曹正煥)  
정8위 윤관일(尹貫一)  
종7위 서임  
조선총독부 수산 시험장 기수 훈7등 부견항(富攄恒)  
조선총독부 도기사 임명  
고등관 7등 서임  
연봉 3천 원 하사  
경상북도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

66) 글씨를 베끼어 써 주는 일을 직업(職業)으로 하는 사람.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한다.

훈7등 부견향

조선산업기사에 임하다.

고등관 7등으로 대우받다.

9급봉 하사

경상북도 산업 기사를 맡기다.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한다.

조선총독부 도경부(道警部) 미야케 히코나나(三宅彦七)

조선총독부 도경부 임명

4급봉 지급.

포항 경찰서장 보임.

조선총독부 도경부 가토 세시로(加藤清四郎)

왜관 경찰서장 보임.

조선총독부 도경부 보임 기타무라 고이치(北村伍一)

왜관 경찰서장 사무 취급을 면(免)하다.

○ 1922년 11월 21일

고원 아키요시 가미히로(秋吉督廣)

어용제(御用濟)에 붙여 고원을 면하다.

○ 1922년 11월 22일

경상북도 산업기수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

8급봉 지급.

소원에 따라 본업에서 면하다.

○ 1922년 11월 24일

임시고원 이성집(李性執)

고원을 명한다.

월급 40원을 지급

내무부 토목과 근무를 명한다.

개별 통지 경상북도 토목 기수 시마무라 후지히코(島村藤彦)

전체 통지 고원 사이키 세키치(佐伯清吉)

내무부 토목과 안동 파출소 근무를 명한다

경상북도 토목 기수 보임 이케다 겐이치(池田憲一)

내무부 토목과 대구 파출소 근무를 명한다

경상북도 토목 기수 세노 에타로(妹尾英太郎)

내무부 토목과 대구 파출소 검무를 면하다.

무라카미 모토노리(村上基憲)

사자생을 명한다.

일급 1원 50전을 지급한다.

재무부 세무과 근무를 명한다.

○ 1922년 11월 25일

조선총독부 군속 후나바시 호코키치(舟橋銚吉)

김천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조선총독부 군속 오상한(吳相漢)

예천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오진수(吳震洙)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11급봉 지급

성주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권영기(權永璣)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9급봉 지급

연일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박선호(朴宣鎬)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월봉 60원 지급

의성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강필원(姜弼元)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8봉급 지급

문경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조선총독부 군속 박노경(朴魯庚)

경상남도에 출향을 명한다.

(의성) 조선총독부 군속 유시환(柳時煥)

(청송) 조선총독부 군속 김상현(金相鉉)

(선산) 조선총독부 군속 김무현(金武鉉)

(영천) 조선총독부 군속 최혁규(崔赫奎)

(연일) 조선총독부 군속 권중철(權重轍)

(안동) 조선총독부 군속 박세봉(朴世鳳)

무슨 무슨 군에 근무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각 두서 대로).

고원 요코다 시게조(橫田茂造)

월급 55원을 지급한다.

소원에 따라 고원을 면하다.

고원 이케야마 기치타로(池山吉太郎)

어용제에 붙여 고원을 면하다.

○ 1922년 11월 28일

사자생 하라다 고이치(原田幸一)  
어용제에 붙여 사자생을 면하다.

○ 1922년 11월 29일

조선총독부 군기수 모리 미키(森幹)  
조선 총독부 도기수 임명  
7급봉 지급  
내무부 농무과 근무를 명한다.

○ 1922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 군기수 아베 마쓰시(阿部醇)  
월봉 60원 지급  
야카타 오쓰(屋形乙)  
조선총독부 군기수 임명  
8급봉 지급  
경주군 근무를 명한다.  
스미다 다키지로(隅田瀧次郎)  
경상북도 산업기수에 임하다.  
9급봉 지급.  
경주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가미무라 시로(上村四郎)  
경상북도 산업기수에 임한다.

10급봉 지급. 단, 가봉(加俸) 25원  
영천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경상북도 산업기수 쓰쓰미 겐지(堤健次)  
영천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경상북도 산업기수 스즈키 만조(鈴木萬藏)  
잠업 관리소(取締所) 근무를 명한다.  
엔소 마사오(延増正男)  
고원을 명한다.  
월급 55원을 지급한다.  
지사관 방비서과(房秘書課) 근무를 명한다.  
개별 통지 경상북도 산업기수 아베 마쓰시(阿部醇)  
전체 통지 경상북도 산업기수 야카타 오쓰(屋形乙)  
본 직을 면하다.  
元 경상북도 산업기수 야카타 오쓰(屋形乙)  
금 27원 50전  
右滿 1년 이상 재직에 급여하다.

○ 1922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 도기수 기무라 고지로(木村庫治郎)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元 조선총독부 도기수 기무라 고지로(木村庫治郎)  
금 1원  
右滿 1년이상 재관(在官)에 급여하다.  
경상북도 산업 기수 기무라 고지로(木村庫治郎)  
6급봉 지급.  
소원에 따라 본직을 면하다.

元 경상북도 산업기수 기무라 고지로(木村庫治郎)

금 37원 50전

右滿 1년 이상 재직에 급여하다.

○ 1922년 12월 4일

메하라 오스케 (目原碩介)

고원을 명한다.

월급 60원을 지급한다.

재무부 세무과 근무를 명한다.

○ 1922년 12월 6일

훈7등 후지모토 히로아키(藤元博亮)

고원을 명한다.

월급 50원을 지급한다.

내무부 토목과 상주 파출소 근무를 명한다.

조선총독부 도경부(道警部) 보임 다마키 케이지(玉置奎治)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

○ 1922년 12월 8일

조선총독부 소속 미즈노 노보루(水野昇)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5급봉 지급

성주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조선총독부 군속 엔도 리지(遠藤里治)

군위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 1922년 12월 9일

이시자키 구니시게(石崎國重)  
고원을 명한다.  
월급 55원을 지급한다.  
내무부 지방과 근무를 명한다.  
임시고원 니시노 유우이치(西野勇一)  
소원에 따라 임시고원을 면하다.

○ 1922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 도속(嶋屬) 함준호(咸俊瀨)  
조선총독부 군속 임명  
7급봉 지급  
경산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 1922년 12월 12일

조선총독부 군속 서영수(徐永洙)  
조선총독부 군기수 임명  
월봉 63원 지급  
상주군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  
조선총독부 도기사 모토무라 하지메(元村甫)  
제복출사(除服出仕)

○ 1922년 12월 14일

조선총독부 기수 안기수(安基洙)  
조선총독부 도기수 임명

6급봉 지급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한다.

○ 관리(官吏) 전임 개령군 재근 조선총독부 군속 이축혁(李築赫)은 1922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단양군 재근 군속에 경산군 재근 조선총독부 군속 박노경(朴魯庚)은 동년 11월 25일 경상남도 동래군 재근 군속에 전임한다.

## 조선어 장려 시험문제

1922년 11월 총독부에서 집행된 조선어 장려갑종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

(한자를 섞어 구어체로 번역해야 한다.)

1. 호화즈데로 부귀를 겸전하야 그럴것이업시 쯔흥즈지흐며 한세상을 쏜결갓치 지내는사람잇스나 그것은 부러워할것도아니오.
2. 감언이설로 유인즈데흐야가며 경향에 출몰하야 불의힝스흐는쟈도 적지아니한모양이오.
3. 죠션말에 장유를짜러 구별흐는것은 고금이 여일흐나 소위 반상을짜러 칭흐흐는말은 점々업서져가는쟈요.
4. 요사이세상에는 ?죤니 희망이니흐면서 입으로만 원갓소리를흐며 건방진테흐고 도라뎡기는위안도 적지아니한모양이니 참한심한일이오.
5. 이근방농민은 거의타인의뎡답을 붓치며 겨우호구를 흐야가다가 불히히 올갓튼 지년을 당흐면 남부녀디흐고 전々결식흐다 십히 흐는사람이 쯔々잇습니다.

##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

### (순 언문 구어체로 번역해야 한다.)

1. 心ヲ善クシ仕事ヲ著實ニシ暇アルトキハ學究ニカメヨ疑シ  
タリ猜ンダリ羨ンダリ阿シタリスルコトハ總テ無用ノユトデス<sup>67)</sup>

2. 銃ヲ放ツタが狙とソユネタ爲カ中ラナカツタ折角見出シタ  
鳥ヲ取逃シテ獵師が口惜ガッテ居ル<sup>68)</sup>

3. 丁度其ノ時水ガチョロチョロ音ヲ立テテ内庭ニ入り込テ来  
タノテ取ルモノモ取敢ヘズ窓カラ飛出シタガ雨ハ吹キ付ケルシー  
寸先モ見ヘナイ眞ノ暗夜テ閉口シタ<sup>69)</sup>

4. 此ノ寒サニボロ著物一枚ヲ著テフルヘテ居ルガ裂ケタリ綻  
ヒタリ破レタリオ負ケニ綿ガチギレ出テ居ルカラ嘸寒イユトダロ  
ウ<sup>70)</sup>

5. 私ノ家ハ夜分ハ極ク靜カデ木ノ葉ガ一枚バサト落テモ聞取  
レル位テ夜中ニ臺所ヲ走り廻ル鼠ノ足音ト宿ナシ犬ノ遠吠ガハ  
ケ間敷位デス<sup>71)</sup>

---

67)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일을 착실히 하며 여가가 있을 때는 학문에 힘써 의심  
하거나 질투하거나 탐내거나 아부하는 것은 모두 불필요한 일입니다.

68) 총을 쏘았지만 조준을 잘 못해서 빗나갔다. 모처럼 발견한 새를 놓쳐서 사냥  
꾼이 분해하고 있다.

69) 마침 그때 물이 줄줄 소리를 내며 안뜰로 들어와서 부랴부랴 창문으로 뛰쳐  
나왔는데 비는 휘몰아치는데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서  
몹시 난처했다.

70) 이 추위에 낡은 옷 한 벌만 입고 떨고 있는데, 찢어지고 벌어지고 터진데다  
가 솜이 튀어나와 있으니 얼마나 추울까.

71) 우리 집은 밤에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극히 조용해 밤  
중에 부엌을 뛰어다니는 쥐 발자국 소리와 떠돌이 개가 멀리서 짖는 소리가

##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

(한자를 섞어 구어체로 번역해야 한다.)

경상남도 창원이라 하는 곳에서는 얼마전에 로인과 청년이 한자리에서 무슨일을 의논케된일이잇섯다는데 세사람만모혀도 [회]라는 일흠으로 회장내고 서기내고 무슨부장 무슨위원을내는 것은 시테사람의형색법이라 그자리에서도 즈연회장을 내게되여 립시로추천한결과 청년중한명이 회장의영광스러운자리에 안게되엿다 그러나 [회]라면 [녹회]나 [성선회] 밧게알지못흐든 로인들은 [회장]이라 하면 회에고쵸장을 찍어먹는것밧게 모르는터이오 더욱이 질문사람이회장이라 하야 놓흔자리에안게됨에 무슨싱각이났던지 [여보-회장의소리는 흐기실흐니 회장의일흠을 일너주오 우리는일흠을부러겟소] 흐고 어느로인이특청을함애 청년편에서는 반디의박슈가랑자흐얏다한다 [허리가압흐니 일어설슈엄고 나히싱각을하야도 회장이란 [장] 즈는부르기실타] 는로인의일도 한심하지마는 이를비방흐고 반디흐는청년유지의테면도 그야말노 [녹회]인가 [성선회] 인가.

##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

(순언문이면서 구어체로 번역해야 한다.)

時勢ノ進運ニ伴ヒ各國民間ノ接觸ハ益々頻繁ニ行ハレ其ノ交情愈々親密ナラントスルノデアリマス從テ將來第二ノ國民トナルベキ青年子弟ハ誠實ト温情トヲ以テ他國民ニ接スルノ美風ヲ養ヒ苟モ排他的行動ナキ様ニ期シナケレバナリマセン然ルニ同

---

성가실 정도이다.

一國民間ニ於テ唯内鮮其ノ故郷ヲ異ニスルノ放ヲ以テ往々ニシテ些々タル感情ノ衝突ヨリ互ニ相反目セントスルガ如キ事例アルノハ甚ダ遺憾トスル所デアリマス今後宜シク互ニ寛容ノ雅量ヲ以テ相交ル様ニ指導セネバナリマセン是ニ就テハ平素ヨリ内鮮人ノ風俗習慣等ノ相違スル處ニ付能ク兩者ヲシテ諒解ヲセシメテ幾微ノ間ニ相互ノ融和ヲ圖リ提斯親善以テ内鮮融合ノ實ヲ擧ゲナケレバナリマセン殊ニ内鮮語ニ通スル人士ニ於テ最モ努力ヲ要スベキトト思惟セラレマス<sup>72)</sup>

---

72) 시세의 진운에 따라 각국 국민 간의 접촉이 점점 빈번해지며 그들의 친분은 더욱 친밀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의 국민이 될 청년 자제들은 성실과 온정을 바탕으로 타국민과 접한다는 미풍을 기르고 결코 배타적인 행동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같은 국민 간에, 단지 일본과 조선 그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주 사소한 감정의 충돌로 서로 반목하는 것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서로 관용의 아량으로 교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의 풍속과 습관 등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양자를 충분히 이해시켜 어떤 작은 일에도 서로의 융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친선을 바탕으로 내선융합에 결실을 거둬야만 합니다. 특히 일본어와 조선어에 능통한 인사가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조선교육과 문부성령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학교의 생도(중고등학생), 아동(초등학생)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및 전학할 때의 규정이 1월 22일부로 문부성령 제1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학교의 생도, 아동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및 전학할 때의 규정

제1조: 조선교육령에 따라 설치된 소학교, 보통학교의 아동 및 졸업자는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소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소학교의 아동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단, 수업 연한이 5년인 졸업생은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중학교 및 고등 보통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중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중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3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고등여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고등여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입학 자격 및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4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실업학교 가운데 실업전문학교, 공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상선학교, 수산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실업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입학 자격, 수업 연한 및 유형에 해당하는

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5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전문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입학 자격, 수업 연한 및 유형에 해당하는 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6조: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사범학교의 실습과 생도 및 졸업자가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관계에 있어 사범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사범학교의 생도 및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7조: 본령은 조선교육령 부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령(이전 조선교육령)<sup>73)</sup>에 의한 것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73) 구령은 1차 조선교육령을 의미하며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 2차 교육령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적용되어 교육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일본인의 교육 연한과 같게 하였다.

## 통계 강습 개황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도쿄 국세원<sup>74)</sup> 통계직원 양성소에서 개최된 제3회 강습에 조선에서 참석한 총 인원은 11명이었고 그 중 경상북도에서 참석한 입소자는 5명이었다. 이 기간에 수업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통계학 범론, 경제통계, 수리통계, 통계실무, 국세조사 및 인구통계, 법제 대의, 경제학 원론, 경제정책, 사회학, 재정학, 영어, 수학(數學)이다.

총 입소 인원 72명(그중 6명은 중도 퇴소) 중 경상북도의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가와시마 기요오(川島清雄) (경주) 3등, 오다 가네키치(太田金吉) (경상북도) 4등

도히 세고로(土肥清五郎) (영덕) 13등, 사카가와 히데키(坂川英毅) (경상북도) 31등

최혁규(崔赫奎)(영천) 46등

---

74) 일본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통계 및 국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

## 질의응답

문) 협의회원 명부 가운데 ‘임기만료 연월일(滿任期年月日)’란의 기재는 협의회원의 당선, 또는 임명이 있고 나서 명부에 처음 등재할 때 기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기입해야 하는가?

답) 당선 또는 임명 당시 ‘임기 만료 연월일’란에 기입해야 한다.

문)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 제7조 제2항의 ‘소집 및 자문할 사안은 적어도 개최일 3일 전에 협의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에서 ‘3일 전’은 예를 들어 11월 5일에 개최할 경우는 11월 2일이 된다는 의미인가?

답) 견해대로이다. 단 이것은 가장 짧은 기간 설정이므로 보통은 5~6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면협의회 회의록은 모두 협의회 서기가 기재하도록 해도 되는가?

답) 면제시행규칙 제7조 5에 따르면 회의록 조제(調製)는 의장의 직책이므로 의장이 임명한 서기에게 시켜도 된다. 단 회의록 말미의 서명은 의장과 협의회원 모두 각자 서명해야 한다.

문) 면협의회에 관한 규정 조문 가운데 ‘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라는 자구가 있다. 이 두 개는 의미에 차이가 있는가?

답) ‘반수 이상’이라고 할 때는 반수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과반수’라고 할 때는 반수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반수를 초과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둘 것.

문) 신고자의 잘못인지 취급자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동음이자 (同音異字) 성명을 민적부에 기재한 것은 1918년 6월 27일 법률 제231호 법무국장 통첩에 따라 개명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하지만, 개칭(改稱)은 1916년 1월 6일 경북지(慶北地) 제36호 통첩 개명원(改名願) 처리에 관한 내규의 제 몇 호에 해당하는가?

답) 위 사항은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리고 사유가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불허가 지령을 해도 된다고 알아둘 것.

## 군웅할거의 시대(상)

### 니시에 레이겐(西江靈弦)

일본 60여 개 주(州)가 모두 아수라장에 빠졌던 전국시대. 규슈(九州) 천지에서도 구름이 없는데 탄환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섬광이 번쩍이는 일이 많았다. 특히 북쪽 부젠(豊前)<sup>75)</sup> 들판에서는 오토모(大友) 세력과 마치 산중 맹호처럼 히젠(肥前)<sup>76)</sup>의 절반 지역에서 웅비하여 점차 크게 성장한 류조지(龍造寺) 세력과의 충돌이 가장 격렬했다. 류조지 야마시로노카미 다카노부(龍造寺山城守隆信)<sup>77)</sup>의 의붓딸 야스코(安子)의 붉은 비단 기모노에 쏟아진 아름다운 눈물의 역사는, 먼저 이 요란한 전투의 끝에서 그 서막을 연다.

때는 1570년 8월 20일. 떠오르는 아침해의 햇살 아래서 위풍당당하게 사가성(佐賀城)의 정문으로 들어온 이는, 성주 류조지 다카노부의 가신이 된 동생 나베시마 사에몬 다이후 노부나리(鍋島左衛門大夫信生)<sup>78)</sup>가 이끄는 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전날 저녁 오토모 쪽의 이마야마(今山) 본진에 십사일생(十死一生)의 야간 습격을 감행해 적장 오토모 하치로 지카히데(大友八郎親秀)<sup>79)</sup>를 토벌하고 엄청난 적의 대군을 쫓아낸 뒤 지금 막 사가성

---

75) 현재 규슈 후쿠오카현에 속한 지역.

76) 현재 규슈 사가현

77) 야마시로노카미(山城守)는 관직명이며 이름은 류조지 다카노부이다.

78) 사에몬 다이후는 관직명이며 이름은 나베시마 노부나리이다.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동일 인물로 수차례 개명했다.

79) 오토모 지카사다(大友親貞)의 별칭

으로 개선한 것이다.

어제까지는 성안의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마치 우리 안의 작은 새처럼 시시각각 육박해 오는 성의 비극적 운명을 눈앞에 두고 덜덜 떨며 싸웠으나 오늘 아침은 의외의 승전 소식에 덩실거리며 춤추었다. 여기저기서 기쁘게 웃는 소리로 성 안팎이 떠들썩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성주 다카노부만은 기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멍하니 무언가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듯했다.

“다카노부 전하” 하고 부르며 개선장군 나베시마 사에몬 다이후는 의아한 듯이 의형 다카노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성을 겹겹이 둘러싼 포위도 이제 풀리고 성 안팎에서 모두 희열의 소리가 흘러넘치는데 오직 한 분 전하만이 기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환우가 있으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여 어젯밤 전투에서 시원치 않은 부분이라도....”

“아닐세 아니야. 어젯밤 대승은 정말 훌륭했네.”라고 다카노부는 황급히 말했다.

“그런데도 기색이 좋지 않으신 연유는 무엇인지요?”

“연유라...., 기색이 좋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네. 그래, 전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시겠으나,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노부나리에게는 격의 없이 말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

“뵈옵건대, 아무래도 말씀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야기하도록 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다쿠성(多久城)<sup>80</sup>의 오다 단조쇼히쓰 시게미쓰(小田彈正少弼鎮光)<sup>81</sup>에게 시집간 야스코(安子)라고 있지”

---

80) 가지미네성(梶峰城)의 별명. 사가현 다쿠시에 있었다.

“그렇지요”

“그애는 선대 다네히데(胤榮)님께서 남기신 아이로 우리에게  
는 돌볼 의무가 있는 아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듣자 하니 이번에 오토모 쪽에 가담해 처참하게 패한  
오다 시게미쓰(小田鎮光)가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쿠  
고(筑後) 쪽으로 도망갔다더군. 그래서 야스코와 쓰루히토오(鶴  
仁王)<sup>82)</sup>의 일신에 관한 것이 걱정이네”

“지당하신 염려이옵니다”

“우리의 승리로 더더욱 두 사람의 안부와 소식이 걱정되는군.  
이런 내가 무사답지 못하다고 비웃겠구먼.”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전하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합니  
다.”

“.....”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이 노부나리가 지금부터 다쿠성으로 가  
서 반드시 두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자네에게 그런 수고를 끼치는 것은 미안하지. 다른 사람에게  
시키도록 하겠네.”

“그 또한 공연한 배려이시옵니다.”

“그래도 자네는 어젯밤의 피로도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쿠성이야 한  
달음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베시마 사에몬 다이후는 저녁에 입고 온 갑옷을

---

81) 단조쇼히쓰(彈正少弼)는 관직명.

82) 고토 이에노부(後藤家信)의 어린 시절 이름. 본문에는 쓰루히토오(鶴仁王)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래 쓰루히토 오마루(鶴仁王丸)이다. 번역문에는 원문대로  
표기하였다.

벗기도 전에 심복인 오가와 무사시노카미 노부토시(小川武藏守信俊)<sup>83)</sup> 이하 육백여 기마병을 이끌고 사가 성을 나섰다.

다쿠성에는 오다의 노신(老臣) 에구치 우마노스케(江口右馬助), 우치다 지부노쇼(内田治部少輔) 등이 빈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마야마에서의 패전 소식은 이미 퍼져서 주군 시게미쓰가 지쿠고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마노스케는 이미 류조지 쪽에서 군마를 몰고 올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지부님 조금 전 들어온 급보에 따르면 아마도 결국 이 성에 류조지 가의 군병이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 지부노쇼도 끄덕이며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반드시 두 분을 모셔가기 위해 군병들이 오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군께서는 우리를 믿고 이 성을 맡기셨다. 설령 백만의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순순히 항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숨이 붙어있는 한, 두 분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부님, 어차피 우리는 주군을 잃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자결하는 것이 사후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분의 신변의 말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운이 다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두 사람이 눈만 깜빡이고 있을 때 한 젊은 무사가 서둘러 뛰어

---

83) 무사시노카미(武藏守)는 관직명으로, 현재 도쿄부에 해당하는 무사시국(武藏国)의 정무를 맡긴 중앙의 파견직이다.

들어와 나베시마 사에몬 다이후가 이끄는 육백여 기마병이 지금 막 이 성 부근까지 몰려왔다고 보고했다.

“뭐야, 류조지 가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그야 예상했던 바가 아닌가.”

우마노스케와 지부노쇼는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지었다. 우마노스케는 곧바로 일어서서

“이제 곧 적진으로부터 두 분을 건네라는 군사(軍使)<sup>84</sup>가 올 것이다. 자네는 서둘러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하게. 나는 이 뜻을 마마께 말씀드리도록 하지.”

이렇게 말하며 히데노마에(秀の前, 야스코)의 거처로 서둘러 갔다.

히데노마에의 처소는 니노마루 안쪽에 있었다.

“마마, 마마”

맹장지문 밖에서 양손을 짚고 엎드려 말씀을 올리자, 사방침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고 있던 히데노마에는 조용히 얼굴을 들고

“우마노스케인가. 무슨 일이지.”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말했다. 나이는 28세인가 29세인가. 이슬을 머금은 눈은 저녁에 내린 비로 반쯤 벌어진 해당화와 같고, 근심 어린 뺨은 흰 명주에 붓으로 담홍색을 한 번 칠한 것과 같으며, 광택 있는 눈썹과 잘 다문 입술은 무한한 애정과 범접하기 힘든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류조지 가에서 마마를 마중하기 위해 군병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막 척후병이 급보를 전해왔습니다.”

“무엇이라, 마중을 위한 군병이라고?”

역시 부인은 놀라워했으나 잠시 후 느림하게 말했다.

---

84) 전쟁 중에 군의 명령으로 교섭의 임무를 띠고 적군에 파견되는 사람.

“마중이라니 누구를 마중하려는 군병인지 알 수 없으나, 그대들은 이 성을 지킬 책임을 맡은 분들 아닙니까. 대비하고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영접할 필요도 없을 것....그러면 마마께서도 이미 각오를 하신 겁니까...”

“각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설령 류조지 가에서 마마를 모시러 오더라도 마마께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돌아가다니, 이 성 밖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설령 류조지 집안이 내가 태어난 친정이라 하더라도 내 남편인 시게미쓰는 오토모 전하의 편에 가담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류조지 집안으로 어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류조지 집안으로 간다면 남편에게 탄 마음을 품었다고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성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각오입니다.”

얼굴은 아름다우나 마음은 강직하고, 나이는 아직 젊으나 지조는 견고했다.

우마노스케는 황공해하며 물러났다. 한편 류조지 군병은 성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사자(使者)를 보내왔다.

군사(軍使)는 나베시마 아와지노카미(鍋島淡路守)<sup>85)</sup>, 구몬 사가미노카미(公文相模守)<sup>86)</sup> 두 사람이었다. 우마노스케는 두 사자를 기다리게 하고는 마침내 우치다 지부노쇼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

85) 아와지노카미는 관직명으로 아와지(淡路, 효고현 남부 아와지 섬과 누시마 섬 일대)의 정무를 맡은 중앙의 파견직.

86) 사가미노카미는 관직명으로 사가미(相模, 가나가와현 일대)의 정무를 맡은 중앙의 파견직.

“사자께서 수고가 많으시오. 나는 주군이 안 계신 동안 이 성의 수호를 맡은 예구치 우마노스케라 하오.”

“나는 우치다 지부노쇼라 하오. 그런데 사자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소.”

라고 먼저 말하니, 아와지노카미가 이르기를

“우리가 사에몬 다이후 님의 사자로서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찍이 이 성에 오신 히데노마에 마마와 쓰루히토오 두 분을 모셔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서둘러 두 분을 넘겨주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마노스케는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치도 않은 일시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라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사에몬 다이후 전하께 전해주소.”

“당치도 않다?” 라고 사가미노카미는 강하게 반발하며 되물었다.

“히데노마에, 그리고 쓰루히토오 두 분의 신변에 대해서는 주군인 시게미쓰 전하 외에 타인이 그에 관해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소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 성을 지킬 책임을 맡은 자로서 시게미쓰 전하가 안 계신 때 두 분은 물론이고 이 성의 풀 한 포기조차 우리 멋대로 건네드릴 수 없소이다.”

“그 또한 듣기 거북한 말. 무엇보다 두 분께 말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닌가.”

“잘못 전하다니 이 무슨 괴이한 말을.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분명히 전해 듣지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염려는 없소이다.”

“성의 정문과 뒷문에 수많은 무장한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는가?”

“잘 알고 있소. 무장한 병사들로 두 분을 모셔간다면 그것 참 불만하겠구려.”

“무어라 말해도 두 분을 건네줄 수는 없다는 것인가?”

“이제 돌아가시오.”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담판이 끝났다.

아와지노카미와 사가미노카미는 아무 성과 없이 사에몬 다이후의 본진으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사에몬 다이후는 불같이 화내며 즉시 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는 소리가 금세 성 주위에서 일더니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우치다 지부노쇼는 성의 뒷문에서, 예구치 우마노스케는 정문에서 각각 성의 병사들을 지휘하며 방어했다. 그러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성의 병사들은 잇따라 쓰러져 갔다.

이러한 때에 성안 깊은 곳에 있던 히데노마에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 도련님, 이리로 오세요.”

하고 쓰루히토오를 손짓해 불렀다. 당년 5세에 용안은 꽃과 같은 쓰루히토오는 류조지 야마시로노카미 다카노부의 막내 아들로, 일찍이 오다(小田)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 부름을 받은 쓰루히토오는 미즈마치 단고노카미(水町丹後守)<sup>87)</sup>의 아내에게 보좌를 받아가며 순순히 히데노마에 곁으로 왔다. 히데노마에는 방긋 웃으며 쓰루히토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련님, 잘 들어요. 지금 적들이 이미 성 밖까지 몰려왔답니

---

87) 단고노카미는 관직명으로 단고(丹後, 교토부 일부 지역)의 정무를 맡은 중앙의 파견직

다. 무사 집안에 태어난 자는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깁니다. 도련님도 오다 시게미쓰 전하의 아들인 만큼 순순히 적들에게 붙잡히기보다 유모와 함께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아버지는 지쿠고로 가셨다 하니 곧 도련님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쓰루히토오는 히데노마에의 얼굴을 올려 보며 씩씩하게 끄덕여 보였다. 밖에서는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는 소리,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들리고 성문의 일부는 이미 몰려온 적군에게 파괴된 것 같았다. 히데노마에는 천천히 쓰루히토오를 일으켜 세우고는 미즈마치 단고노카미의 아내에게 의미 있는 눈짓을 보냈다.

미즈마치 단고노카미의 아내는 쓰루히토오를 안아 들고 곁으로 힘껏 싸매며

“그러면 이만....”

말을 마치자마자 히데노마에의 방에서 나와 곧장 적군의 눈을 피해 성의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뒷문을 공격하던 군사들 중에 눈 밝은 고모하라 다이젠(菰原大膳)에게 발각되었다.

“어이 어이 거기 부인. 잠깐 멈추시오.”

라고 소리지르며 쫓아와서는 획 붙잡았다.

“당신 정체가 뭐지. 게다가 안고 있는 분은 류조지 가의 어린 군주이신 쓰루히토오가 아니신가. 이리 건네게.”

“아, 아니 이 아이는 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아, 저....여기 안고 있는 아이는 소첩의 하나뿐인 아이입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게냐. 그 분은 분명 어린 군주이시다. 그렇게 숨기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얼른 이리 넘기거라.”

“아닙니다. 분명 소첩의 외아들이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누구의 아내인가?”

“예, 저...소첩은...미즈마치 단고의 아내이옵니다.”

“무엇이라, 미즈마치 단고노카미 님의 부인...그렇다면 안고 있는 그분은 분명 류조지 가의 어린 군주가 틀림없겠군. 이리 건네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령 제가 단고노카미의 아내라 해도 안고 있는 아이가 어린 군주라고는...아닙니다. 이 아이는 소첩의 외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미즈마치 단고노카미 님의 부인은 예전에 다카노부 전하께서 어린 군주님의 유모로 정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증거가 아니냐. 이제 이리 건네라.”

하며 아이를 받아 안으려 하자, 여자는 천천히 어린 군주를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다시 고쳐 안으며 오른손으로 품속의 작은 칼을 뽑아 들고 자세를 잡았다.

“이렇게 반항한다면...”

다이젠은 허리에서 검을 빼자마자 재빨리 여자의 오른손을 서걱 베었다. 순식간에 잘린 여자의 오른손은 잡고 있던 칼과 함께 땅 위로 툭 떨어졌다. 쓰루히토오는 갑자기 벌어진 사태에 으앙하며 소리 내어 울었다. 다이젠은 쓰루히토오를 받아 안고는 본진으로 돌아갔다. 뒤에 남은 것은 여자의 슬피 우는 소리 뿐. 길고 가늘게.

공격이 시작된 후 성의 정문은 어느새 파괴되고 적군은 밀물처럼 성안으로 쇄도했다. 그런데 히데노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어린 쓰루히토오를 미즈마치 단고노카미의 아내에게

안겨 보낸 후, 조용히 시녀 기누(絹)를 불렀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부름을 받은 기누는 조심스럽게 히데노마에의 곁으로 다가갔다.

“기누, 너는 얼른 성을 빠져나가 지쿠고에 계신 오다 전하께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전하거라. 나는 이미, 이미 자결을 결심했다.”

기누는 흠칫 놀라서

“그런 엄청난 명령을.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야 할 이 상황에서 어찌 자결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마에 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하고 재촉했다. 하지만 히데노마에는 조금도 움직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도망친다고 해도 추격대에게 잡히지 않겠느냐. 만약 졸병이나 보병들에게 잡혀 강제로 사가(佐賀)에 끌려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깨끗하게 자결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지조 넘치는 히데노마에의 말은 너무도 늠름하여 도저히 거역할 수 없었다.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뜻을 꺾지 못할 것이다. 히데노마에는 다네히데 부젠(胤榮<sup>88</sup>)의 첫째 딸로, 일찍이 남편이 사망한 후 친족 일동이 호린인(寶琳院<sup>89</sup>)의 주지승으로 있던 주나곤(中納言<sup>90</sup>) - 후의 야마시로노카미 다카노부 - 을 환속시켜 류조지 가문의 가독(家督<sup>91</sup>)을 잇게 하면서

---

88) 본명은 류조지 다네히데(龍造寺胤榮)이다. 부젠(豐前, 현재 후쿠오카현 동부와 오이타현 북서부) 히젠(肥前, 현재 사가현 및 나가사키현 일부)에서 카미(守), 슈고(守護)라는 관직을 맡은 바 있다.

89) 류조지 가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천태종 사찰.

90) 옛 벼슬의 하나로 태정관(太政官) 차관.

91) 집안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갈 맏아들의 신분을 이르는 말.

자신을 다카노부와 결혼시키려고 하자 이를 듣지 않고 2년 동안 무언의 저항을 지속했다고 한다. 여성으로서 일관되게 강한 의지를 지켜온 히데노마에의 일화이다. 그 결심은 강철과 같고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다. 일찍부터 히데노마에의 이러한 기질을 잘 알고 있던 기누는 도저히 그녀의 굳은 결심을 뒤집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각오하신 거라면 더 이상 간청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같이 저세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며 엎드려 울었다. 그 모습을 본 히데노마에는 일부러 거칠게 말했다.

“기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와 함께 죽을 생각이라면 내가 너에게 여기서의 일을 전해달라 했겠느냐. 나와 함께 죽는 것만이 충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하여 한시라도 빨리 이곳의 사정을 지쿠고의 오다 전하께 전하거라. 무엇보다 그것이 나에 대한 충의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낭패이다. 얼른 일어나라...자, 기누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다다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떨면서 울었다.

“요, 용서하십시오. 어째서, 어째서 함께 죽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저세상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이 기누는 몸도 마음도 마에 님께 바쳤습니다. 마에 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설령 저승이라 할지라도 홀로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누는 그곳이 어디든 함께 갈 것입니다. 마에 님. 부디 같이 가자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계속 호소했다.

“기누,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잘 알겠다. 싫다고 하는데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나. 그 대신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 잠시도 내 곁에 둘 수 없다.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가거라. 이제 나와 너는 주인도 하인도 아니다.”

이러한 단호한 말에 기누는 몹시 놀라

“예?”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새빨갭게 부어오른 가련한 눈시울에 무한한 애수를 띄우며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해도 함께 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는 건가요....어쩔 수 없군요. 그렇다면, 예...지쿠고로 가겠습니다.” 이윽고 이렇게 말하고 다시 소매로 입을 막으며 엎드렸다. 그 말을 듣고 히데노마에는 안심한 듯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하고 한 통의 편지를 기누에게 건네었다. 기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못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꾸 뒤돌아보며 나가는 모습을 눈물 어린 눈길로 전송한 히데노마에는 곧 자세를 고쳐 앉고 엄중하게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곧 맹장지문이 쓰러지며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 공격해 오는 병사들이 난입하는 소요(騷擾)가 눈앞에 펼쳐지듯 가까이 들렸다.

그러자 히데노마에의 손에서 재빨리 비수가 번쩍 빛을 내었다. 음울하고 참혹하게 소란스러운 주변 물정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듯, 조용히 비수를 쥐고 자세를 바로 앉은 히데노마에는 지금 눈처럼 새하얀 목덜미를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비수를 내리꽂을 듯했다. 바로 그때, 가노 호겐(狩野法眼)<sup>92)</sup>의 금화단벽(金華

---

92) 본명은 가노 모토노부(狩野元信, 1476-1559)이며 호겐(法眼)은 무가 시대 의사나 화가, 유학자 등에게 수여된 칭호이다. 가노 모토노부는 에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가노파(狩野派, 중국적인 소재와 기법을 중시하는 일본의 회화 유파)의 시조(始祖)인 아버지 가노 마사노부의 뒤를 이은 무로마치 시대의 어용 화가(御用畫家)로, 당시 쇼군인 아시카가(足利) 집안이 선호하던 중국풍의 수묵화(水墨畵) 기법을 이어받았다. 일본 고유의 야마토에(大和

丹碧)이 그려진 장지문 사이에서 날아오르는 새처럼 뛰쳐들어와 히데노마에의 오른손을 탁 붙든 자가 있었다.

“누구냐”

히데노마에는 놀란 목소리로 몸을 비틀어 돌아보았다. 그자는 이 집안의 가신(家臣)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류조지 쪽 공격군의 한 장수인 노토미 다지마노카미 노부카게(納富但馬守信景)<sup>93)</sup>였다.

“아앗, 그대는 류조지의 노토미 다지마.... 이미 늦었던 말인가, 원통하구나...” 하며 몸을 움직여 그를 떨어내려 하였으나 노부카게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아, 제때 도착했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이 성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그대는 방해하지 말고 물러서시오.”

“마마, 어찌 그리 심한 말씀을... 그것은 성급한 생각이십니다. 꽃잎을 떨구는 것만이 꽃이 가진 지조가 아닙니다. 불탄 들판에서 싹을 틔우는 봄의 풀도 있습니다. 지금 잠시 원통함을 참으시고 사가(佐賀)로 가지지요. 다카노부 전하는 마마의 의붓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마마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다(小田) 전하께서도 다카노부 전하와는 원

---

繪)를 전문적으로 그린 도사파(土佐派)의 창시자 도사 미쓰노부의 양자였으며, 중국적인 수묵화의 힘찬 필치와 야마토에의 장식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였다. 이 양식은 이후 300여 년 동안 일본 화단을 풍미하였다.

93) 본명은 노토미 노부카게(納富信景)이다. 다지마노카미(但馬守)는 관직명으로 다지마(현재 효고현 북부)의 정무를 맡은 중앙의 파견직이다. 노토미 노부카게는 전국시대부터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까지 활동한 나베시마(鍋島)와 류조지 집안의 무장이다.

래 깊은 인연이 있으시니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은 저 노부카게에게 맡겨주시고 얼른 여기서 떠나시지  
요.”

하고 억지로 달래고 속여보았으나 바위처럼 단단한 히데노마에  
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들 나는 이미 결심을 하였다. 그 손 뇌라. 뇌달란  
말이다.”

“허나 그럴 수 없습니다.”

노부카게는 당황하여 눈살을 찌푸렸으나 결국 답답하다는 듯이  
“용서하십시오”라는 말만 하고 히데노마에의 몸을 짝 끌어안  
은 채 밖으로 나갔다. 히데노마에는 이를 악물고 벗어나려 발버  
둥 쳤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이글이글 타는 듯한 늦더위 속에서도 오동나무 한 앞에서 가을  
바람이 일고, 하늘도 공기도 나날이 물처럼 청명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류조지 야마시로노카미 다카노부(龍造寺山城守隆  
信)는 서원(書院)의 창에 기대어 때마침 불어오는 저녁 바람에  
정원의 오동잎이 바스락 바스락 흩어져 떨어지는 것을 즐겁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손뼉을 쳐 신하를 불렀다.

부르는 소리에 달려와 문밖에 대기한 자는 신쿠로(新九郎)라는  
청년이였다.

“부르셨습니까.”

“아, 신인가. 요사이 오토모(大友)의 포위도 풀리고 사가(佐賀)  
는 참으로 조용해졌어”

“예 그러하옵니다. 실로 기뻐할만한 일이옵니다.”

“허나 한때는 안팎으로 오토모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였지.”

“그것은 조상신의 가호와 대대로 집안을 섬겨온 신하들의 덕 일 것입니다.”

“그렇지. 이 집안을 대대로 섬긴 신하들의 충혼의백(忠魂義魄)<sup>94)</sup> 덕분이야. 그에 비해 궤뺨하게 인척(姻戚)의 의리를 버리고 오토모 쪽에 힘을 보태준 불의한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자들은 역시 히젠(肥前)의 무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야스코(安子)를 불러 오게.”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떠났다. 곧 신쿠로를 앞세워 가만가만 들어온 이는 야스코, 즉 히데노마에였다. 사가성으로 끌려온 후 몇 날 며칠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밤을 새운 그녀의 얼굴은 애처로운 정도로 여위어 보였다. 얼굴빛은 창백하고 볼은 움푹 패었으며 입술빛은 바래고 다정한 눈에는 이슬을 한가득 머금고 있었다.

“부르셨사옵니까”

하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향해 엎드려 두 손을 짚은 채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야스코인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

하고 다카노부는 평소와 달리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 신쿠로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

“신, 물러가 있게.”

하며 그를 내보낸 뒤 가만히 히데노마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히데노마에는 그의 눈을 피하듯 점점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2, 3분 정도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다카노부는 정이 담뱃 담긴

---

94) 충성스럽고 의로운 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스코, 시게미쓰(鎭光)와 만나고 싶지 않느냐.”

이 뜻밖의 말에 히데노마에는 당황하여 그저

“아, 예....”

라고 할 뿐. 그마저도 입 속에서 완전히 꺼져가는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시게미쓰는 지금 지쿠고의 반도지(坂東寺)라는 곳에 있다고 들었다. 분명 너와 만나고 싶어할 게야. 나 또한 다름 아닌 사위를 계속 그곳에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내 본심은 아니야. 오토모(大友)를 위해 칼을 갈고 우리 집안에 활을 쏘는 불의, 불신... 변명할 여지 없는 그의 처사는 괴씸하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 앞에서는 무가로서의 의지, 무사의 패기도 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만약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을 다할 생각이라면 나도 그의 죄를 용서하고 원래의 영지도 하사할 뜻이 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

“시게미쓰에게 뉘우칠 마음이 있겠느냐.”

“.....”

“그가 진심으로 나를 섬길 생각이 있겠느냐. 그에게 그럴 뜻이 있을까? 야스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고 히데노마에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이거 참, 야스코. 야스코 네게 물었거늘 너는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느냐....답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렇다면 시게미쓰는 무언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냐.”

히데노마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다다미를 적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허나 여자의 몸으로, 더구나 모든 것이 부족하여 첩으로 들어간 제가 조석(朝夕)으로 섬긴다 한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조석으로....”

이렇게 말하다 목에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조석으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남편의 마음은커녕 거하는 형편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붓물 터지듯 용솨음치는 눈물을 양 소매로 애써 감추었다.

다카노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흐음...”

하고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이윽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거라. 내 생각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너는 이 일을 시게미쓰에게 알리고 그를 사가(佐賀)로 오도록 해라. 어떠냐 야스코, 네가 그런 편지를 써주겠느냐. 사가에 오기만 하면 그의 원래 영지도 하사할테니.”

하고 ‘원래 영지’라는 말을 힘주어 말했다. 히데노마에는 차츰 눈물에 젖은 눈을 닦으며

“송구하오나 아버님 말씀, 설마 놓은 아니시겠지요....”

하며 맑은 눈동자를 일렁였다.

“대체 농 따위에 어찌 이런 말까지 하겠느냐. 어서 편지를 쓰거라.”

다카노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히데노마에의 얼굴에는 금세血色이 돌았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듯한 미소까지 띄우고 있었다.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무사하시다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일전의 불운한 사태로 먼저 보낸 기누(絹)를 통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자결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다지마노카미(但馬守)에게 발각되어 곧장 사가(佐賀)로 끌려간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전생의 업보 탓이겠지요.

그나저나 지쿠고(筑後)에서 생활은 얼마나 쓸쓸하신지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그곳 생각뿐입니다. 아버지 다카노부 전 하께서도 잠시 뜻밖의 역정을 내셨으나 오늘은 조금의 격의도 없이 당신께서 이곳 사가로 오신다면 원래의 영지도 하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오늘이라도 결심을 하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많으나 직접 뵈옵기를 고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9월 17일 히데로부터  
단조(彈正)님께

윗글은 지쿠고의 반도지(坂東寺)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오다 단조쇼히쓰 시게미쓰(小田彈正少弼鎮光)가 받은 히데노마에의 편지이다.

그날 밤 시게미쓰는 은하수가 선명하게 흐르는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사가(佐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반도지에서 출발했다.

출발한 일행은 노신(老臣) 구치이 사부로 사에몬(久地井三郎左衛門), 야마자키 몬도(山崎主水) 이하 12명의 신하였다.

사가에 도착하자 일행은 먼저 노토미 다지마노카미(納富但馬守)의 관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지마노카미는 다카노부의 지시라고 말하며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대접했다. 시게미쓰 일행은 이러한 다지마노카미의 정중한 접대에 안심하여 거둬 잔을 기울였다.

구혼하고자 건넌 비단 장식 나무는 이미 시들어버렸지만 그 이야기만은 세상에 남아

이제는 만날 수 없기에 흐르는 눈물에도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구나.<sup>95)</sup>

시게미쓰는 흥에 겨운 나머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리하여 일동이 잠자리에 든 시간은 밤 열두 시 무렵이었다. 이슬에 젖은 성벽 아래로 가을밤은 물처럼 청명한데, 멀리서 다듬이질 소리와 함께 쓸쓸하면서도 그윽한 벌레 소리가 바로 옆에서 우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러자 시게미쓰의 가슴에는 지난밤에 받은 편지의 주인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래서 다음날 만날 기쁨에 간질거리는 듯한 희열이 가슴 속에서 북받쳐 올라 쉽게 잠

---

95) ‘비단 장식 나무’로 번역한 구절의 원문 단어는 니시키기(錦木)이다. 니시키기(錦木)란 일본 동북지역의 특산물 비단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나뭇가지이다. 이 지역에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의 집 문 앞에 이 니시키기를 세워두는데,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받아줄 의사가 있다면 나뭇가지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방치해 두는 습속이 있었다. 그러한 구혼자 중에 여성이 받아주기를 기다리며 3년 동안 천 개가 될 때까지 나뭇가지를 하나씩 더해 세워둔 남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일본의 전통 시가인 와카(和歌)로 지어져 널리 유행했으며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노(能)를 집대성한 제아미(世阿弥)에 의해 작품으로 각색되어 지금까지 공연되고 있다.

(<https://noh-sup.hinoki-shoten.co.jp/sh/24/ja> 참고)

원문 구절은 다음과 같다. 「錦木は朽つれども、名はたちそうて、逢ふことは、涙もいろに出けるかや」

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밤도 점차 깊어지고 시계미쓰는 깊이 잠들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인마(人馬)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이해하기 힘든 인마 소리로군, 무슨 연유인가.”

시계미쓰는 머리맡에 둔 칼을 쥐고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부하 한 명이 당황하며 들어와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이 집 근처에서 별안간 인마가 몰려오는가 싶더니 금세 대략 백여 기 정도의 군병이 이미 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분명 주군께 원한이 있어 야습하는 자들로 추정됩니다.”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집 밖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다 전하는 들으시오. 본인은 류조지 가문의 신하 노토미 이와미노카미 노부카타(納富石見守信門)<sup>96)</sup>라 하오. 오늘 밤 다카노부 공의 말씀에 받들어 그대를 죽이고자 왔소이다. 이미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니 단념하고 깨끗이 자결하십시오.”

“그렇다면”

시계미쓰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툇마루에서 뛰어내려왔다.

“더러운 류조지의 소행이었구나.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의 소식에 설마 거짓이 있겠는가 하고 어리석게 여기까지 온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이다. 이렇게 적의 여자에게 속아 개죽음으로 끝나다니 죽어서도 치욕일 것이나 이제 와서 후회해야 소용 없는 일.

---

96) 본명은 노토미 노부카타(納富信門)이다. 이와미노카미(石見守)는 관직명으로 이와미(현재 시마네현 서부)의 정무를 맡은 중앙의 파견직이다. 노토미 노부카타는 형제인 노부카게와 함께 전국시대부터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까지 활동한 나베시마(鍋島)와 류조지 집안의 무장이다.

이렇게 된 바에 우리 무장들의 최후를 지켜보고 후세의 이야깃거리로 삼거라.” 라고 말하고는 함께 온 열두 명의 가신과 함께 칼을 치켜들고 떼 지어 모인 적들 한 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갔다.

때마침 비친 대낮 같은 달빛 아래서 이렇게 참담한 광경이 전개되었다.

(미완결)

## 회보

### □위원이동□

미야케 히코시치(三宅彦七)가 포항서장에 취임하여 본 회 위원을 맡았다. 위원 가토 세시로(加藤清四郎)는 칠곡군 왜관 서장으로 전임되었다.

### □회비납입 때 주의□

1. 대체 저금으로 회비를 납부할 경우, 해당 납부서 용지 뒷면 통신란에 반드시 아래의 상세 정보를 기록하기 바란다.

통신란

금 얼마인지

내역

금 얼마, 몇 월분 회비, 몇 인분

금 얼마, 몇 월분 회비, 몇 인분

2. 본 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통신란에 기재한 명세를 기준으로 수령 처리할 것이고 대체저금으로 회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회원의 이동 사항은 앞서 언급한 통신란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서면으로 자세한 통지를 해야 한다.

3. 본회는 3월을 기준으로 제1회계 연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하므로 회비 미납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전액 완납하기 바란다.

## □회원수입 보고□

(본 보고로 영수를 증명하여 별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1금 496, 080

12월 중 회비 총 수입액

### 내역

,300 경찰부장

,600 비서과

2,100 문서과

4,800 지방과

2,100 사회과

4,200 경찰과

1,200 고등과

,600 보안과

2,700 위생과

11,700 달성군

20,920 영양군

22,640 영덕군

10,720 경산군

30,520 고령군

15,600 성주군

12,220 칠곡군

32,320 김천군

15,600 고령서

16,200 왜관서

13,200 선산서  
32,100 상주서  
20,560 개령서  
15,900 예천서  
8,400 권업과  
10,800 농무과  
4,800 토목과  
6,900 회계과  
9,900 세무과  
10,000 선산군  
1,600 예천군  
36,220 영천군  
9,900 대구서  
13,500 군위서  
19,800 의성서  
17,920 안동서  
5,940 청송서  
6,000 영양서  
11,700 영덕서  
4,200 경주서  
13,800 영천서  
6,900 영주서  
5,400 봉화서  
1,200 대구농학과  
,900 달성금융조합  
1,500 순사교습소

1금 755,440

1월 중 회비 총 수입액

### 내역

2,400 지사 외 네 명

,600 비서과

2,100 문서과

2,400 지방과

2,100 사회과

8,400 권업과

10,800 농무과

5,100 토목과

6,000 회계과

3,300 세무과

4,800 경무과

1,200 고등과

,300 보안과

2,100 위생과

9,000 대구부

14,100 달성군

12,600 의성군

22,500 안동군

45,820 청송군

20,020 영양군

25,900 경주군

17,700 영천군

46,940 경산군  
32,320 청도군  
20,020 고령군  
12,600 성주군  
12,820 칠곡군  
66,740 김천군  
35,000 선산군  
48,000 상주군  
25,500 봉화군  
9,600 대구서  
16,200 의성서  
17,620 안동서  
5,340 청송서  
28,820 포항서  
4,200 경주서  
7,500 경산서  
15,000 고령서  
8,400 성주서  
15,600 왜관서  
4,500 김천서  
13,500 선산서  
30,900 상주서  
31,500 예천서  
6,900 영주서  
5,400 봉화서  
1,500 순사교습소

9,000 대구전매지국  
3,900 금융조합연합회  
,900 대구토목조합

## 회원 명부(4)

### △ 상주군(속)

최재규(崔在圭), 이와이 이와타로(岩井岩太郎), 아베 아쓰시(阿部淳), 정일묵(鄭一默), 다가미 하치로(田上八郎), 나카오 지로지(中尾次郎治), 박진섭(朴辰燮), 다가미 야스노리(田上保則), 이시바시 진노스케(石橋甚之助), 박정한(朴挺漢), 손동욱(孫東昱), 김기달(金基達), 김정환(金正煥), 손용덕(孫容德), 송계필(宋桂弼), 김재?(金在?), 손병주(孫炳胄), 정태묵(鄭泰默), 성동환(成東煥), 허용하(許龍夏), 신상학(申相鶴), 오성재(吳聖在), 나카가미 요시오(中神義雄), 오현숙(吳賢淑), 정재거(鄭在鑿), 정재옥(鄭在玉), 황신오(黃信五), 김우동(金佑東), 이홍영(李洪寧), 강광을(姜光乙), 무라세 세타로(村瀬清太郎), 박명덕(朴明德), 노구치 시게루(野口茂), 신현구(申鉉求), 마쓰우라 마고이치(松浦孫市), 노구치 다쓰오(野口辰雄), 이성하(李星河)

### △ 영주군

이범주(李範周), 와카쓰키 구라타(若月蔵太), 배준(裴淳), 김병순(金秉淳), 조희순(趙熙舜), 신응필(申應弼), 윤용식(尹鎔植), 박종훈(朴宗勳), 김동식(金東湜), 고토 리자부로(後藤利三郎), 후쿠이 가쿠(福井格), 이현재(李鉉在), 권만영(權萬永), 윤상기(尹相琦), 서석범(徐錫範), 김정석(金貞錫), 황기세(黃基世), 남정수(南鉦濸), 장태운(張泰云), 이택종(李宅鐘), 정호익(鄭鎬益), 우성태(禹誠台), 장학상(張學相), 김락진(金洛縉), 오카다 스타로(岡田数太郎), 오다 헤이키치(織田平吉), 스즈키 긴자부로(鈴木金三)

郎), 김진원(金震源), 송진상(宋震祥), 이재호(李宰虎), 노리타케  
 고자부로(則武光三郎), 박정래(朴廷來), 송원식(宋元植), 이종환  
 (李鍾煥), 임헌규(林獻圭), 변성열(卞成烈), 이용우(李庸宇), 권영  
 주(權寧周), 안용호(安瑢鎬), 정건화(鄭健和), 이찬효(李鑽孝), 이  
 중우(李中宇), 김병철(金秉澈), 이와다 사부로(岩田三郎), 김희규  
 (金熙奎), 쓰시마 가쓰요(津島加津代), 송상식(宋相奭), 권태두(權  
 泰斗), 송상윤(宋相尹), 후루야 겐조(古谷 堅城), 강시창(姜是昌),  
 정종기(鄭鍾器), 권영박(權寧博), 권영철(權影轍), 미야케 다다키  
 치(三宅忠吉), 다카하시 고지로(高橋光治郎), 이만하(李晩夏), 사  
 립내명학교(私立內明學校), 서병장(徐丙長)

#### △ 영천군

장윤규(張潤圭), 오가타 기요히코(緒方清彦), 마쓰바라 고시라  
 에(松原拵), 이소오카 다메키치(磯岡為吉), 김규년(金圭年), 정기  
 용(鄭基瑢), 박영식(朴英植), 김여원(金汝元), 박갑주(朴甲周), 오  
 병호(吳秉灝) (이하 다음 호)

## 경북연구회 규약

제1조 본회는 경북연구회라 칭하며 조선의 시정 방침 및 지방행정 기타 제반 상황을 주지시키고 또한 회원 상호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경상북도 관내의 관공리 및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4조 회원의 회비로 매월 금 삼 십전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 행정 기타 집무 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일  
잡지 ‘경북’을 발간하고 회원에게 배포하는 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연 또는 의견 교환을 위한 회원의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제6조 ‘경북’은 매월 1회 발행한다. 단 필요할 때는 임시 증간할 수도 있다. ‘경북’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방침, 시사, 지방행정, 농상공 교육, 토목, 경찰, 재정, 경제, 금융, 학술, 기예 및 통계 등의 보도 및 논설
2. 조사 및 연구
3. 지방 사정
4. 법령 및 질의
5. 인사
6. 문예란
7. 해방란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약간 명

제8조 회장으로서는 도지사를 추대하고 부회장, 위원 및 간사는 회

장이 이를 촉탁한다.

**제9조**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위원은 중요한 사무를 평의한다. 간사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각 연도 시행과 관련된 본회의 성적 및 서무 회계의 보고는 잡지 ‘경북’에서 발표한다.

잡지 『경북』(매월 1회 5일 발행 100페이지 내외) 1부 정가 35전

정가표		광고료	
개정	선금		1회 1페이지
6개월	1원 70전	보통	20원 상당
1년	3원 40전	특별	30원 상당
중간 및 증대호는 정가가 같지 않으므로 값이 부족할 때는 그 차액을 별도로 받는다.		1년 단위 및 3회 이상은 광고 요금을 할인하기로 하고 매번 광고 의뢰자와 의논한다.	

1923년 2월 3일 인쇄 납본

1923년 2월 5일 발행

제2년 제2호

발행인 경상북도 문서과장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인 시모이시 고야(下石幸也)

조선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소 대구인쇄합자회사

조선 대구부 상정 경상도청내

발행소 경북연구회

**半島斯界の權威者**

**松本製作所**

洋家具裝飾  
學校用器具  
體操機械  
理化學器具  
**製作專門**

價格低廉  
品質堅牢  
期日確實  
**は弊所の特徵**

京城府岡崎町九三番  
電話龍山長一五五番  
振替京城六二三八番

**마츠모토 제작소(松本製作所)**

반도 사회의 권위자  
서양 가구 장식, 학교 용품, 체조용 기계, 이화학(理化学) 도구 제작 전문  
저렴한 가격, 견고한 품질, 확실한 기일 준수는 저희 제작소의 특징  
경성부 강기정(岡崎町)<sup>97)</sup> 93번  
長전화 : 용산(龍山) 155번  
전화 : 용산 906번  
대체 : 경성 6238번

97) 현 용산구 갈월동의 일제강점기 명칭으로 경성부 갈월리(葛月里) 일부를 강기정(岡崎町)으로 칭하였다.

**△朝鮮沿岸定期航路**

×元山雄基線(月十回以上)	×釜山麗水線(月十回以上)
元山瀋津連絡線(月十五回以上)	木浦多島海線(月三回以上)
金剛山遊覽線(夏元山每日發)	木浦濟州島線(月八回以上)
釜山元山線(月七回以上)	仁川木浦線(月四回以上)
釜山鬱陵島線(月四回以上)	仁川鎮南浦線(月四回以上)
釜山木浦線(月二十回以上)	仁川海州線(月十回以上)
釜山濟州島線(月五回以上)	×印ハ私營航路他ハ命令航路

△清津敦賀線 月二航海以上

△釜山浦壇關門阪神線 月三航海以上

△雄基關門線 月三航海以上

△新義州阪神線 月三航海以上

△橫濱朝鮮西岸線 月二航海以上

△仁川北支那線 月二航海以上

△西鮮大連青島線 月二航海以上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支店 釜山, 元山, 仁川

朝鮮郵船株式會社

**조선 우선 주식회사**

△조선 연안 정기 항로

- 원산-웅기(雄基)<sup>98</sup>선 (월 10회 이상)
- 금강산 유람선 (하계 원산 매일 출발)
- 부산-울릉도선 (월 4회 이상)
- 부산-제주도선 (월 5회 이상)
- 목포-다도해선 (월 3회 이상)
- 인천-목포선 (월 4회 이상)
- 인천-해주(海州)<sup>99</sup>선 (월 10회 이상)

- 원산-청진 연락선 (월 15회 이상)
- 부산-원산선 (월 7회 이상)
- 부산-목포선 (월 20회 이상)
- 부산-여수선 (월 10회 이상)
- 목포-제주도선 (월 8회 이상)
- 인천-진남포선 (월 4회 이상)

인(印)은 사영항로(私營航路) 나머지는 명령항로(命令航路)

- △청진-쓰루가(敦賀)<sup>100</sup>선 월 항해 2번 이상
- △부산-블라디보스톡-관문(關門)<sup>101</sup>-한신(阪神)<sup>102</sup>선 월 항해 3번 이상
- △웅기-관문선 월 항해 3번 이상
- △신의주-한신선 월 항해 3번 이상
- △요코하마-조선-시안(西岸)선 월 항해 2번 이상
- △인천-북지나(北支那)선 월 항해 2번 이상
- △서선(西鮮)-다렌-칭다오선 월 항해 2번 이상

본점 : 경성 남대문동 1정목

지점 : 부산, 원산, 인천

98) 함경북도 경흥군에 있는 항구 도시.

99) 황남 남해안 중앙에 있는 시

100) 일본 후쿠이현(福井縣) 중부 쓰루가 만(敦賀灣)에 면한 항만 도시.

101) 시모노세키(下關) 항구와 모지(門司)항구를 묶어서 관문(關門)항이라고 부른다.

102) 한신(阪神)은 오사카(大阪)의 '阪'과 고베(神戸)의 '神'을 의미하며 오사카만 연안을 가리킨다.

[해제]

##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잡지 『경북』의 역사적 가치와 1923년 2월호 주요 내용

### 1.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의 역사적 가치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慶北)』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간행된 월간지 형태의 공보잡지(公報誌)이다. 발행 주체는 당시 대구부(大邱府) 상정(上町)의 경상북도청 안에 있었던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이다. 경북연구회 회장은 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부지사가 맡았다. 잡지 발행인은 경상북도 문서과장(文書課長)이었다. 『경북』은 발행 주체와 발행인 정보만 보더라도 일반 민간 잡지가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간행한 공보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권당 분량은 창간호만 약 80페이지이고 제2호부터는 약 100페이지~150페이지에 이른다. 잡지 『경북』은 권당 분량과 내용 구성만 보더라도 당시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이례성은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 기록물이다.

첫째, 『경북』은 1945년 이전 한반도 전체의 12개 부(府)와 13개 도(道) 단위 지역,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광역자치체 단위에서 발간된 근대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한다. 경상북도가 근대 시기 전국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도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경상북도’라는 행정 단위 명

칭이 탄생한 것은 1897년 광무개혁 시점이었다. 이때 경상북도는 수부(首府)인 대구군(大邱郡)을 포함한 41개 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 단위였다. 이후 경상북도가 현재와 같이 대구와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14년 부제(府制) 실시 시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전국 12개 거점 도시를 부(府)로 지정하면서 13개 도(道) 단위 행정과 분리시켜 가는데, 경상북도는 이 과정에서 대구와 독립된 행정 체계를 처음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근대 행정 조직 역사에 비추어 보면 1922년 시점에 경상북도가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을 창간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이 역사적으로 최초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도정 기록물을 낳은 것이다.

1945년 이전 전국의 부(府) 혹은 도(道) 단위 행정 자료 발간 상황을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가 간행한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성부(京城府)는 1921년에 『경성휘보(京城彙報)』를 창간했지만 분량과 체제가 월 1회 발간되는 신문 정도에 머물렀고 『경북』처럼 잡지 형태를 갖춘 것은 1925년 이후이다. 평양부(平壤府)의 『평양휘보(平壤彙報)』도 1922년 창간 시점에는 월간신문 형태였고 1931년이 되어서야 월간잡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부산부(釜山府)도 1926년 7월이 되어서야 잡지 『부산(釜山)』을 창간하고, 인천부(仁川府)는 1934년이 되어서야 월간 『인천휘보(仁川彙報)』를 발행했다.<sup>103)</sup>

둘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13개 도(道) 단위에서 월간 형태로 발간한 유일한 근대 도정 자료이다. 앞서 살펴본 근대 시기 주요 지역별 행정 공보잡지 사례는 모두 부(府) 단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이전에

103) 坂本愁一 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桜井書店, 2007), p.58.

도 단위에서 근대 도정 자료를 월간 형태로 발간한 지역은 경상북도가 유일했던 것이다. 어떻게 경상북도만 이와 같은 근대 도정 자료 발간이 가능했는지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조세 납부액을 내는 지역이었다는 점과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라는 조직 체계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해제 집필자의 전문 영역을 벗어나 확정은 못하겠지만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아 관내 관공리를 가입시킨 ‘연구회’를 조직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한 사례는 당시 도 단위 행정 기관에서 흔치 않은 사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프랑스문학도 읽을 수 있었던 저널리스트 출신 전문 편집인을 고용해 행정, 경제, 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해외 정보까지 아우른 평균 100페이지 이상의 두툼한 월간지를 발간한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창간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192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 자료이기 때문이다. 『경북』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었다고 소개했는데, 근대 도정 자료가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간 시점은 역사적 이유와 맥락이 분명히 존재했다. 일본은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정책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단위 행정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중요 조치는 1914년의 부제(府制) 시행이었다. 이 시점에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국 12

곳 부 단위 도시 지역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보면 1910년에 시작해 1917년 무렵에 마치는 토지조사사업 또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최우선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면제(面制)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이 면제 시행은 부(府) 단위에 이은 도(道) 단위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 조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7년부터 새로운 면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도 단위 행정 정책이 토지조사사업으로 구축·재편한 토지 소유에 기초한 세금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진행한 위와 같은 정책은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역사 용어가 상징하듯이 일방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1920년대 접어들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 본토로 이주하는 조선인 숫자가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 숫자를 단숨에 따라잡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언한다. 조선총독부도 1910년대 식민지 지배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했고 그 결과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대표되는 정책 전환이었다. 물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정책 전환이 1910년부터 본격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오히려 부드럽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유일한 귀중 자료인 것이다.

## 2. 1923년 2월 『경북』 제2년 2호 목차별 주요 내용

### ■ 권두언

1923년 2월이라는 겨울철 날씨를 소재로 해서 겨울의 추위가 지나는 의미와 그에 대한 편집자의 감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봄에 대한 기대를 적은 첫머리 글이다.

### ■ 조선의 산업(상)

이 글은 경상북도가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산업자문회’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 글은 경상북도가 1920년대에 최초로 산업자문회를 조직해 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그러한 움직임이 당시 조선총독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산업 영역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현행의 지방제도와 나의 자각

이 글은 초창기 대구의 일본인으로서 1930년까지 30년 가까이 일본어 신문을 발행했던 가와이 아사오의 글이다. 이 글이 흥미로운 점은 1920년대 시점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상황 속에서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중앙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엿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이러한 필자의 태도는 현대 행정 체계에서 지방 자치제와 맞닿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저널리스트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고, 1920년대 지역 상황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 조선인 초등교육시설 개정 필요

조선에서 일반 민중의 향학열이 높아져 이에 대응하여 초등교육 시설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행 방안을 논하고 있다. 당시 보통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1면 1교 제도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 시설에 대한 과도한 경비 절감과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사설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불완전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육 보급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빠른 실행을 촉구한다.

### ■ 도 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 (하)

1년 4호와 2년 1호에 이어 도지방비 사업과 임시 은사금 사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번 호에 제시된 지방비 사업은 교육과 위생, 사회사업 등이며, 임시 은사금 사업은 수산(授産)과 교육, 휴검구제와 사회구제에 관한 내용이다.

### ■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하)

도로, 도랑, 제방 등을 신설, 변경하여 경지를 늘이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논하고 있다. 경지정리의 개념 및 그 방법, 늘어난 경지에 대한 지세(地稅), 경지정리 법령, 경지정리조합, 토지개량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 ■ 군 사무감찰 상황(상)

칠곡, 성주,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봉화, 청도, 경산, 선산, 경주, 영일 12군의 사무감찰을 시행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의 문서 정리, 장부 및 대장 정리, 일 처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 문제점과 주의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여자체조복에 관하여

대구 본정 소학교 여자 아이들의 체육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조복 제정을 추진해 온 경과 및 시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체조복 연구위원회를 마련하고, 부형회 총회의 찬동을 얻어 체조복 구입 신청을 받게 된 과정, 신청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조복의 재질, 무늬에 대한 설명 및 크기별 가격에 대해서는 표로 제시하고 있다.

### ■ 물의 응변

이 글은 물을 의인화하여 물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은 그릇의 형태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민주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물은 농업, 공업, 의학, 기타 일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본인의 힘을 ‘수력’이라 칭한다. 이 수력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공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인, 즉 물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 ■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

1년 4호와 2년 1호에 이어 이번 호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

의 완결편이다. 이번 호에는 러시아혁명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그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사회적 무질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의 민경 경찰과 소방대, 블라디보스토크 감옥 상황을 주로 기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러시아 사회의 무질서와 부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지난 호에 이어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내용을 채록, 정리한 것이다. 즉, 회의 이틀째부터 나흘째 기록으로, 각 위원들과 후지카와 경상북도 도지사의 질의, 응답, 제1부(농업), 제2부(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제3부(실업교육, 산업자금, 교통 기타)로 부문을 나누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심의 내용 및 경과 보고, 위원회 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 주왕산 고적보존회

청송과 의성을 잇는 자동차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왕산 고적 보존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22년 주왕산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다. 주왕산 고적보존회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기부금 모집 취지를 시작으로, 도로, 시설 정비, 기금 설치 등 주왕산 고적 보존회 사업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 ■ 서임사령

서임 사령은 벼슬이나 직위를 부여하는 명령으로 1922년 11월과 12월에 조선총독부에서 다양한 관리와 군속들에게 임명, 전

근, 급여 지급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해당 인물들의 직위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 ■ 조선교육과 문부성령

조선교육령에 의해 설치된 학교의 생도 및 졸업생이 타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할 때의 규정을 다룬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사범학교의 학생들은 각 학교령에 따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수업 연한 및 자격에 따라 입학과 전학이 이루어진다. 별도로 소학교령에 의하면 수업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4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은 규정이 다르다. 본령은 구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 ■ 통계 강습 개황

이 글은 1920년대 경상북도 행정에서 근대적인 통계 행정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세금 징수의 정리 및 행정 업무 전반에서 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통계 행정 관련 지침이 경상북도 단위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이른 시기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 ■ 군웅할거의 시대(상)

전국시대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패권을 잡던 시기 규슈 지역의 패권 다툼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로 이어지는 전국 통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이 소설은 규슈의 오토모(大友) 세력과 류조지(龍造寺) 세력이라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규슈 지역 호족들의 세력 다툼을 묘사하였다. 이는 당시 후쿠오카나 사가와 같은 규슈 북부 출신이 많은 경상북도 거주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로 보는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해상 교통  
- 포항, 하마다 간 항로 문제를 중심으로 -**

박려옥

『경북』 2년 1호와 2호는 1922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경상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회의 내용을 채록, 정리한 기사를 싣고 있다. 회의에는 경상북도 각 방면에서 활약하는 한일의 주요 인사 44인으로 구성된 자문회 위원들과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1879-미상) 경상북도 도지사 이하 도청 직원, 통역 등이 참석하였다. 산업자문 회의였던 만큼 경상북도의 농업, 양잠, 축산, 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금융 등에 관한 현황 보고 및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 도청 측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 경상북도 산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흥미를 끄는 내용으로 ‘위원회 결의’ 사항으로 제출된 ‘교통에 관한 건’을 꼽을 수 있다. 자문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왜관-군위-영천-안강으로 통하는 도로 건설, 김천-안동선 철도 연장, 대구-안동 간 경철(輕鐵) 건설 등 육로 교통의 설비 확충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로 개설에 관한 건도 있었다.

포항과 하마다(濱田) 간 항로를 개시하여 산인선(山陰線)과 연결하면 대구와 오사카 사이는 128리, 대구와 교토 사이는

170리가 단축된다. 이출입에 있어 많은 편의를 얻으므로 경상북도 산업에 끼치는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당국은 적극적으로 이 항로 개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

「회보」 『경북』(2년 2호)

즉, 야마구치현(山口縣)-시마네현(島根縣)-돗토리현(鳥取縣)-효고현(兵庫縣)-교토후(京都府)를 지나는 산인선(山陰線) 철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영일군 포항항과 시마네현의 하마다 항구를 오가는 항로를 열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로부터 며칠 후 『매일신보』에는 대구상업회의소 의원, 경상북도와 대구부 평의원, 학교조합의원 그리고 포항번영회장 등이 회합하여 항로 개설 추진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번에 개최한 경상북도 산업자문위원회에서도 포항과 하마다 간 항로문제에 대해 열심히 연구, 논의한 결과 이를 단순히 포항의 국부적 지방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및 조선 전체의 문제로 보고 연구함이 지당하다는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다. 이에 전부터 응원해 오던 대구상업회의소 주최로 16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역 앞 서양요리점 라쿠텐(樂天)에서 회의소 의원 및 경상북도, 대구부 평의원, 학교조합의원 등이 모였다. 때마침 대구에 와 있었던 포항번영회장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 씨 등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 문제를 시급히 구체안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포항 하마다 연락항로 문제, 대구유지 원조」

『매일신보』(1922.12.17)<sup>104)</sup>

---

104) 원문은 당시의 한글 표기로 되어 있으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기 및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하 한글 신문 『시대일보』도 동일함.

포항변영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대구의 인사들은 다수가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위원들로 보이며 이들은 자문회 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3일 만에 계속해서 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모인 것이다. 이후 포항과 하마다 간 정기항로는 우여곡절 끝에 1924년 개설되나,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1927년 결국 폐항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본 해제에서는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개항부터 폐항까지의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23년 4월 17일자 및 5월 23일자 『조선시보』 기사는 대구 및 포항 그리고 시마네현이 서로 시찰단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만큼 포항 하마다 간 항로 개통은 경상북도와 시마네현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과 일본의 산업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추진 단계에서 이미 해당 항로의 한계점도 드러나는데 바로 두 지역 간의 화물 규모의 차이다. 즉 대구와 포항에서 이출되는 산물은 쌀, 대두, 소금에 절인 생선, 사과 등이고 하마다 지방에서 들어오는 산물은 조도기(粗陶器)<sup>105)</sup>, 대나무 자재, 석재, 술, 농기구 등으로 해당 지역이 물자가 부족한 곳이라는 지적이다.<sup>106)</sup> 이와 더불어 취항하는 선박회사에 지급할 보조금 문제도 상당 기간을 끌게 되는데 애초 경상북도에서는 추진 단계부터 지방비 보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시마네현에서는 지사의 경질과 내각 해산, 일제의 간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1924년 11월에

105) 굉장히 정밀한 조직의 순백색의 도자기를 일컫는 정도기(精陶器)에 대비되는 것으로, 거칠고 처리가 안 된 점토로 만들어진 도기를 말한다.

106) 「지사의 승낙도 얻었다. 포항 하마다 기선회사의 서광」 『조선시보』(2023.04.17.), 「두박(豆粕)비료 운송이 가능하다면 포항 하마다 항로는 굉장히 유망」 『경성일보』(1924.10.25.)

야 비로소 타결된다. 즉 오키(隱岐)기선회사<sup>107)</sup>에 지급할 보조금 2만엔 중 12,000엔은 이출량이 많은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마네현과 하마다초(町)에서 각각 4,000엔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sup>108)</sup> 재정 및 행정적인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로가 열릴 것으로 낙관한 오키기선회사에서는 500톤급의 기선을 띄우기로 결정한다. 오키기선회사는 1910년부터 1917년까지 북한 항로를 개설했던 회사<sup>109)</sup>로 해당 항로를 계기로 다시금 대륙 진출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배에는 포항에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부푼 하마다 지역의 유지들도 함께 승선하였다.

시마네현 하마다항과 경상북도 포항항과의 사이에 직통항로를 개시하고자 작년부터 쌍방에서 시찰단이 방문하였다. 관현 측을 보면 경북에서는 하타(秦) 내무부장이 시찰하였고 시마네현으로부터는 나가(那賀) 부장이 왔다. 최근에는 시마네현 지사가 대구에 와서 포항을 시찰하였다. 이렇듯 정기항로 실현을 서두르기 위해 쌍방이 노력해 왔으나 일반재계의 불황과 의회 해산, 내각 경질 등으로 인해 시마네현과 경상북도를 잇는 항로에 대한 보조금 하부(下附) 문제가 지금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항로의 장래는 실현될 서광이 보이므로 오키기선회사는 보조금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상당한 희생을 치를 각오로 이번에 500톤급 기선 한 척을 해당 항로에 총당하기로 한 것이다. 25일경 시마네현 우마가타(馬

107) 시마네현 오키에 본사를 둔 기선주식회사로 1895년에 설립되었다.

108) 「포항 하마다 간 항로 보조금 문제 드디어 해결」『조선신문』(1924.11.15.)

109) 현재도 영업 중으로, 회사 홈페이지 개요(<https://www.oki-kisen.co.jp/company/7>)에는 “1910년 북한 항로가 개설되어 1917년 항로가 폐지될 때까지 단기간이지만 대륙까지 항로를 연장했다.”고 나와 있다.

瀉)를 출발하여 돛토리현 사카이(境), 시마네현 미호노세키(美保の関), 하마다 등을 경유하여 27일이나 28일경 포항으로 첫 항해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하마다항의 유지들이 앞장서서 조선시찰단을 조직하여 이번 첫 항해 때 함께 와서 포항과 대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시마네현의 유지들은 이 첫 항해가 의의를 지니도록 200-300톤의 물자를 가져와서 시험삼아 판매를 할 것이라는데 돌아가는 배편에는 경북의 쌀 약 300석과 그 외에도 되도록 많은 물자를 적재하여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이에 포항변영회와 대구상업회의소에서는 적재할 화물 수집에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국자 말에 의하면 포항에서는 굉장히 조약한 일본술을 팔고 있는데, 시마네현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청주를 양조하고 있으므로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 산인도(山陰道)에서 양조된 청주의 판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시마네 포항 첫항로, 하순에 오키기선이 취항하기로 결정」  
『경성일보』(1924.06.24.)

다만, 당시 신문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오키기선회사가 띄운 다이하치오키마루(第八隱岐丸)가 포항에 처음으로 입항하게 된 것은 며칠 미뤄진 1924년 7월 5일로, 8월 중에는 하마다-포항-울릉도 노선으로 다음과 같이 화물과 승객을 태우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

다이하치오키마루는 석재, 된장, 조도기, 잡화 300개를 적재하고서 19일에 입항하였다. 파도 때문에 하역을 못하고서 21일까지 정박해 있었는데 21일에 미두(米豆), 소금에 절인 생선 300개와 승객 17명을 태우고 울릉도를 경유하여 귀항하였다.

「다이하치오키마루 귀항」『경성일보』(1924.08.24.)

정식으로 정기항해가 개시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듬해에는 700톤급의 지타마루(知田丸)가 취항하였는데 “하마다로부터의 적재화물은 극히 적었고 포항에서는 곡물, 소금, 건어물 5,000개를 적재하여 이출”<sup>110)</sup>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초 두 지역간의 화물량 차이로 인해 빚어질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드디어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자 포항 하마다 간 직항항로는 1925년 4월부터 정식으로 열리게 되었고 매달 3회씩, 1년에 36회 정기항해가 결정된다. 그런데 직항항로가 개설되고 불과 석 달 후인 7월에는 포항에서 하마다로 돌아갈 때 돛토리현의 사카이(境) 항을 기항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는데, 기선회사가 당국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항로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항로 개시 당시에는 화물도 상당히 있었고 승객도 평균 40명 정도는 있었으나 요즈음은 해운계의 암흑기로 특히 승객은 대개가 조선인으로 일본으로 도항하는 자들뿐이다. 그것도 농번기에 들어가자 전무인 상황이다. 화물 또한 대부분 미곡과 생선류이며 현재는 그것도 한산하여 신통치 않은 상태이다.

「포항 하마다 간 항로 사카이 기항을 인가」

『부산일보』(1925.07.03.)

만성적인 화물과 승객 부족 문제는 결국 결항으로 이어지고 이듬해 신문에는 이러한 상황을 성토했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기사도 보도된다. 즉 “오키기선회사의 무성의로 인하여 결항이 속출하여 지방거래상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포항 하마다 간 보조항로 문제는 해당 지방의 중대한 문제가 되어 도(道) 당

110) 「포항 하마다 항로 지타마루 취항」『경성일보』(1925.01.21.)

국에 진정을 하자, 도 당국에서도 시마네현 지사에게 독려책을 의뢰하며 직접 오키기선회사에 주의”<sup>111)</sup>를 내렸다고 전한다. 이후 하마다 지방에서도 포항으로 관계자를 파견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경상북도에서도 내무부장과 산업과장이 대책 회의를 하며 ‘오키기선회사의 반성’을 촉구한 결과, 기선회사로부터 향후 성실히 운항하겠다는 답변은 얻을 수 있었으나 항로 개선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급기야는 해당 항로를 이용하여 기타규슈(北九州) 와카마쓰(若松)로부터 경동선(慶東線)에 쓰이는 석탄을 우송하도록 교섭한다거나<sup>112)</sup>, 포항과 하마다 지역이 협력하여 포항에 소 검역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sup>113)</sup>, 계속된 결항으로 인해 항로는 1927년에 결국 폐항하기에 이른다.

경북 포항과 시마네현 하마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우송기관으로서 경북도에서 1만 2천엔, 시마네현에서 8천엔 합계 2만엔을 보조하여 오키기선회사가 운영하던 포항 하마다 항로는 처음에는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1923년에 개시하였고 이후 회사 측에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기에 1925년도부터 보조금을 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만선이 될 만큼의 화물이 없고 특히 일본해는 난항로이기도 하여 회사는 해마다 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 또한 처음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인해 예정된 항해 횟수를 실행하지 않고 결항하는 일이 많아져 도 당국에서는 재차 회사와 시마네현 당국에 무성의함을 힐문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결국 이번

111) 「포항 하마다 간 보조항로문제 관계 당국은 실지조사」『시대일보』(1926.03.16.)

112) 「포항 하마다 간 항로개선」『부산일보』(1926.07.28.)

113) 「활우(活牛) 검역소문제로 포항 하마다 두 항구가 제휴. 1년 2만마리 이출은 확실. 포항 유력자 도청 방문」『부산일보』(1927.04.26.)

에 항로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우 3년만에 폐항해 버렸다.

「포항 하마다 항로 손해가 이어져서 결국 폐항. 가까운 시일에 시마타니(島谷)기선회사에 의해 부활할 것인가」  
『부산일보』(1927.06.10.)

결항 사태에 이어 시마네현에서도 8000엔이라는 보조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경상북도는 고베(神戸)를 근거지로 하는 시마타니(嶋谷)기선주식회사<sup>114)</sup>와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2만엔을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신문 기사는 비관적인 논조로 “앞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될지 어떨지는 아직 의문 중의 일이라더라”<sup>115)</sup>고 전한다. 그럼에도 포항 하마다 간 항로의 존치를 원했던 경상북도는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해당 항로를 ‘명령항로’ 즉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운항 유지를 명하는 항로로 지정받게 된다.

포항 하마다 간 정기항로는 종래 경상북도에서 연간 1만 2천엔으로 고베 시마타니 기선회사에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바, 종종 결항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본 결과 이를 조선총독부의 명령항로에 편입시키고자 총독부에 교섭하여 간신히 내락(內諾)을 얻었다고 한다. 내년 4월 신년도부터 현재의 홋카이도(北海道)-조선-다이렌(大連) 사이를 항행하는 큰 기선이 기항할 터인데 이로 말미암아 종전의 시마타니 기선은 내년 3월말에 중지한다더라.

「포항 하마다 간 명령항로 실현 신년도부터」『매일신보』  
(1927.11.11.)

---

114) 시마타니 토쿠사부로(嶋谷徳三郎, 1867-1928)가 1917년에 세운 기선주식회사.

115) 「포항 하마다 간 운항업자 변경 보조는 예전처럼」『매일신보』(1927.09.12.)

이후 포항은 직항항로 대신 북한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거대 기선의 기항지가 되고 대구 포항 간 경철이 국철로 귀속되면서 화물 운송이 수월해지자 비로소 활기를 되찾게 된다.

북조선에서 한신(阪神) 항로를 오가는 오사카 상선 아난마루(阿南丸)(2,567톤)가 포항을 임시 기항지로 삼아 항해를 시작하여 7일에 입항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조선에서 일본 각지의 항구를 경유하는 도쿄 항로의 시마타니기선 히라노마루(平野丸)(2,000톤)가 포항에 매월 2회 기항하기로 결정되어 오는 10일에 처음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두 선박이 기항하게 된 데에는 일찍이 포항 측의 요청이 있었고 회사 측에서도 여러모로 정밀조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된 데에는 포항 대구 간 철도가 7월 1일 국철로 귀속되고 나서 해당 지방의 운수 계통이 완비되어 경북의 화물이 포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사카 상선) 시마타니 두 기선의 기항으로 포항의 운수계가 활황을 띄게 되었다.」

『부산일보』(1928.12.07.)

비록 일제가 조선의 산물을 내지 즉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항로이기는 하였으나, 포항 하마다 간 항로는 일제강점기 특히 1920년대 경북의 교통 및 항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경북에서 어떠한 품목들이 이출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포항의 가능성을 발견한 일제가 시행한 정책, 일제강점기 만주와 경북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해상 교통, 무역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에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사진> 포항 영일만으로 들어오는 배들<sup>116)</sup>

---

116) <https://kutsukake.nichibun.ac.jp/CHO/index.html?page=1>

[해제]

## 통계로 보는 경상북도 지역의 특성 및 통계의 중요성

- 산업, 교통, 교육 통계의 기록과 의미 -

정찬휘

『경북』은 농업, 산업,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를 기록하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조망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경작지 면적과 생산량, 산업에서는 양잠과 축산, 공업의 성장률, 교통에서는 주요 노선과 시간표 및 이용 현황, 교육에서는 초등교육 시설과 학생 수, 또는 지방비와 같은 수치를 정리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에 본 해제에서는 『경북』 2년 제1호와 제2호의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북산업자문회’

경상북도는 1922년에 개최된 ‘경북산업자문회’를 통해 농업, 양잠, 축산, 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금융 등 주요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 방침에 따라 각 지역의 고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경북산업자문회’의 논의 내용은 『경북』 2년 제1호와 제2호에

수록되어 있으며, 1호에서는 각 산업의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가 조선 내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 (1) 농업

188,500정보의 논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102,000정보이며, 70,000정보는 가뭄과 수해에 취약했다. 쌀의 연간 생산량은 2,200,000석으로 이 중 500,000석이 외부로 반출되었다. 그러나 일본 평균 대비 낮은 수확량(1반보당 1석 2두)을 개선하기 위해 관개와 품종 개량이 필요했다.

#### (2) 양잠

양잠 산업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강점으로, 1921년 기준 양잠 호수는 52,000호, 연간 누에 생산량은 22,000석으로 조선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지역 농가 부업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자, 제사 공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 (3) 축산

경상북도는 183,000마리의 소를 사육하며, 연간 50,000마리가 태어나 조선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축된 소는 연간 30,000~40,000마리로, 일본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그러나 우량 소의 수출로 인해 도내 소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품질 관리가 필요했다.

#### (4) 임업

경상북도에는 약 1,310,000정보에 이르는 임야가 있으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한다. 그러나 성림지(成林地)는 180,000정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30,000정보는 황폐했다. 황폐지 복구를 위해 1912년부터 1921년까지 매년 조림된 나무 수는 1,900,000그루에서 27,000,000그루로 크게 증가했다.

#### (5) 수산

경상북도의 연안선은 540리에 불과하지만 1921년 어획량은 약 4,800,000원이었다. 이는 연안선 1리당 90,000원으로 조선 전국 평균(8,900원)의 약 10배, 일본 평균(24,000원)의 4배에 해당한다.

#### (6) 상공업

대구의 무역액은 1912년 196만 원에서 1921년 1,237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상업 회사는 7곳에서 33곳, 운수업 회사는 1곳에서 4곳으로 증가했다. 공업 부문에서 공장 수가 20곳에서 70곳, 자본금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방직업과 제지업이 조선 내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경상북도가 조선 내 주요 산업과 경제적 역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경상북도는 각 분야의 개량과 장려 정책을 실행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 2. 제사공장

『경북』 2년 제1호에는 ‘대구의 3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공

장의 사진이 있으며 가마의 수와 누에고치의 무게를 수치로 기록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조선에서 제사(製絲) 산업의 중심지로 대구에 위치한 야마주구미, 가타쿠라 제사방적주식회사, 조선생사주식회사 3대 공장에서 총 1,400가마를 운영하며, 연간 약 42,000석의 누에고치를 처리했다.

- 야마주구미 제사공장: 650가마, 18,000석 처리.
- 가타쿠라 제사방적주식회사: 380가마, 12,000석 처리.
- 조선생사주식회사: 400가마, 12,000석 처리.

가마 수를 통해 공장의 생산 규모를, 누에고치의 총량을 통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의 제사공장은 경상북도가 조선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

### 3. 제지업

경산군의 제지업은 경상북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지방청은 1917년부터 지방비를 지원해 공장 개량과 설비 확충이 이루어졌다. 1921년에는 지역 내 141가구 중 131가구가 제지업에 종사했다.

『경북』 2년 제1호에는 제지 원료로 쓰이는 닥나무 껍질의 생산량, 제지 생산량, 생산고 등을 1917년부터 1921년까지 연도별로 표로 정리하고 있다.

- 닥나무 재배 면적: 1917년 3.47정보 → 1921년 13.13정보
- 닥나무 껍질 수확량: 1917년 1,860관 → 1921년 5,459관
- 제지 생산량: 3,641괴 → 3,972괴

또한 제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총수익도 35,635,000원에서 61,405,000원으로 증가하였다.

#### 4. 교통

『경북』 2년 제1호와 제2호는 ‘경북자동차주식회사’의 노선별 출발 및 도착 시간표를 기록하여 대구-안동, 안동-예천, 김천-춘양, 김천-문경, 김천-선산, 구미-선산 등의 노선을 통해 지역 교통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 5. 교육

『경북』 2년 제2호에서는 초등교육 시설 부족과 취학난이 조선 전체 사회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정원을 초과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접근과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봉화군청 이케자키 요타(池崎鷹太)는 초등교육 보급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1면 1교 제도를 고려하였다.

초등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비는 초년도 약 20,000원, 전체 건축 완료까지 약 30,000원, 그리고 한 학급당 연간 운영비는 1,600원이었다. 또한 교사의 증축과 개축에만 매년 500,000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신설 학교의 건축비를 합하면 실로 750,000원 이상이 필요했다. 이에 이케자키 요타는 초등교육이 보급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비용을 줄이고 교사(校舍)를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개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당 130원의 건축비를 70원으로 줄이고, 한 학급당 경상비 1,600원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면 1교 제도를 4개년 내에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초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건축비와 경상비를 산출한 총 경비는 22,340원으로, 연간 평균 경비는 5,58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예산은 학교 수업료, 보조금, 부과금을 포함한 세입 증

대로 총당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 면당 평균 부과 호수 1,100호를 기준으로 연간 한 호당 평균 부담은 약 4원이었다.

이케자키 요타는 재정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여 1면 1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계적 접근은 정책 결정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당시 초등교육 보급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 6. 통계 강습 개황

『경북』 2년 제2호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통계 행정 관련 지침이 경상북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실고 있다. 1921년 도쿄 국세원에서 개최된 통계 강습에는 총 72명이 입소했으며, 경상북도에서 총 5명이 참석하여 경제통계, 수리통계, 인구통계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며 근대 통계의 기초와 실무를 익혔다. 경상북도 입소자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강습을 수료하였고, 이들은 이후 경상북도 행정에서 근대적 통계 행정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후반부터 면 제도를 도입하며 세금 징수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북』 1년 제4호와 『경북』 2년 제1호에 ‘통계 개론’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으며, 살펴보면 통계는 국가 운영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근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통계’의 도입은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다. 『경북』 1년 제4호의 ‘통계 개론(상)’에서는 일본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

한 인물로 스기 고지(杉亨二)가 소개된다.

특히 통계는 일본이 제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 활용했으며, 이는 식민지의 인구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탈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경북』에 기록된 다양한 통계와 데이터는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농업, 양잠, 축산, 제지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 현황과 교육 및 교통의 상황은 경상북도가 조선 내 경제와 사회적 역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계 강습의 확산은 정책 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